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	화살촉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 제주 고산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화살촉입니다. 눌러떼기로 정교하게 만든 이 화살촉은 삼각형, 물고기 모양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화살촉은 날쌔 동물, 새, 물고기 등을 잡기에 좋은 도구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업활동을 잘 보여줍니다.	제주 고산리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약 1만년 전에 만든 화살촉입니다. 눌러떼기로 정교하게 만든 이 화살촉은 삼각형, 물고기 모양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화살촉은 날쌔 동물, 새, 물고기 등을 잡기 좋으며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사냥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살촉은 제주 고산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삼각형, 물고기 모양 등 모양이 다양하다. 약 1만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사냥 활동을 알 수 있다.	
5	고산리식 토기	제주 고산리유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토기는 깊은 바리모양이며 식물 잎이 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산리유적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 토기는 ‘고산리식토기’라 불리며 그 시기에도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보다 앞선 가장 오래된 토기입니다.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시대의 토기인 ‘고산리식 토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산리식 토기는 깊은 바리 모양이며 식물 잎이 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산리식 토기는 한반도의 빗살무늬토기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입니다.	흙을 빚어서 만든 깊은 바리(그릇) 모양의 토기이다. 식물의 잎이 탄 흔적이 있다.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한 반도(육지)의 빗살무늬토기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토기이다.	
6	갈판과 갈돌	갈판과 갈돌은 열매나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내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신석기 사람들이 식물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고산리유적에서 출토된 갈판과 갈돌에서 밀이나 벼와 식물흔적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생 곡물을 채집하여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판과 갈돌은 열매나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내는 도구입니다.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갈판과 갈돌에서는 밀이나 벼와 같은 식물의 흔적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야생 곡물을 채집하여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나 딱딱한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내는 도구이다. 신석기 사람들이 식물자원을 이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발견했을 때 밀이나 벼 등의 식물의 흔적이 있어 곡물을 채집하여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	흙으로 만든 깔대기	흙으로 만든 깔대기입니다. 나팔모양의 아가리에 대롱이 있어 액체를 부어 담기에 적합합니다. 이와 유사한 깔대기가 신석기시대 부산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러한 도구가 신석기시대부터 만들어졌다니 신기합니다. 신석기시대에 이미 기능에 따라서 토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깔대기입니다. 나팔 모양의 아가리에 대롱이 달려 액체를 부어 담기에 적합합니다. 신석기시대에 이미 기능을 생각하여 토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깔대기이다. 입구가 넓은 나팔 모양에 대롱이 달려 액체 종류를 부어 담기에 적합하다. 신석기시대에 이미 사용 목적에 맞는 기능을 생각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8	덧무늬토기	토기 겉면에 흙띠를 붙여 장식한 토기를 덧무늬토기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남해안, 제주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며 약 8천~6천년 전에 유행하였습니다. 덧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기하학적 무늬가 많습니다. 이 토기는 3개의 줄을 울동감 있게 붙인 것이 특징입니다.	덧무늬토기는 토기 겉면에 흙띠를 붙여 장식한 토기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도와 남해안에서 주로 발견되며 약 8천~6천년 전에 유행하였습니다. 덧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기하학적 무늬가 많습니다. 이 토기는 3개의 줄을 울동감 있게 붙인 것이 특징입니다.	토기 겉면에 흙으로 만든 띠 3개의 줄을 붙여서 만든 것이다. 약 8천~6천년 전에 유행하였으며 제주도과 남해안, 강원도에서 발견됐다.	
9	식물화석	약 4천년 전, 송악산의 화산폭발로 떨어진 화산재가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층에서는 참나무과의 너도밤나무를 비롯해 상수리나뭇잎, 고사리잎 등의 식물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당시 제주도 서쪽 해안가에 자생하던 식물 양상과 제주의 기후 등을 보여줍니다.	너도밤나무를 비롯해 상수리나뭇잎, 고사리잎 등의 식물화석입니다. 약 4천년 전 송악산의 화산 폭발로 떨어진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식물화석을 통해 당시 제주도 서쪽 해안가의 식물 생태 양상과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약 4천 년 전 송악산 화산 폭발로 떨어진 화산재가 쌓인 지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너도밤나무, 상수리나뭇잎, 고사리잎의 화석이다. 4천 년 전 제주도 서쪽 해안가의 어떤 식물인지 모양과 기후 등을 알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0	공렬토기	구멍무늬토기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아가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장식하였으며 종종 입술에 날카로운 도구로 누른 눈금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토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100년경에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일정 시기에 제주에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멍무늬토기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아가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장식하였습니다. 종종 입술에 날카로운 도구로 누른 눈금무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것으로 아가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모양내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며 종종 날카로운 도구로 누른 눈금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11	조개팔찌	투박조개로 만들어진 조개팔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 신석기시대 무덤유적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도 확인됩니다. 조개팔찌는 무덤의 껍질거리 이외에도 교역용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상모리의 조개팔찌는 미완성에서 완성품까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어 팔찌의 제작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박조개로 만들어진 조개팔찌입니다. 조개팔찌는 무덤의 껍질거리 이외에도 교역용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상모리의 조개팔찌는 미완성에서 완성품까지 다양하게 발견되어 팔찌의 제작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박조개로 만들어진 조개팔찌이다. 죽은 사람 무덤에 껍질거리와 무역용으로 이용되었다. 상모리에서 발견된 조개팔찌는 처음 만들 때의 시작 모양부터 완성된 모양까지 다양하게 발견되어 팔찌의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다.	
12	삼양동식토기	제주시 삼양동유적은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마을유적입니다. 유적에서는 집터, 고상가옥터, 토기 가마터, 쓰레기터 등 다양한 종류의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적에서 나온 깊은 바리, 항아리 등은 이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 썼던 특징적인 그릇으로 유적 이름을 따서 ‘삼양동식토기’라 부릅니다.	제주시 삼양동 유적에서 집터, 고상가옥터, 토기 가마터, 쓰레기터 등 다양한 종류의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적에서 나온 깊은 바리, 항아리 등은 이 지역의 특징적인 그릇으로 유적 이름을 따서 ‘삼양동식 토기’라고 부릅니다.	제주시 삼양동에서 발견된 깊은 바리(그릇) 항아리 등의 토기이다. 제주시 삼양동 유적에서 집터, 고상가옥터, 토기 가마터, 쓰레기터 등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초기 철기시대에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한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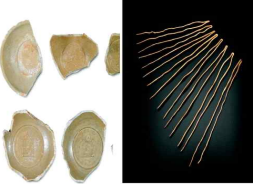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3	전복껍질 화살촉	화살촉은 주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주지역에서는 전복껍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김녕리 퀴네기 동굴 유적에서는 30여 점의 전복껍질 화살촉이 출토되었는데, 이 화살촉들은 화살촉을 만들기에 적당한 돌이 흔치 않았던 제주지역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유물입니다.	제주 김녕리 퀴네기 동굴 유적에서는 30여 점의 전복 껍데기 화살촉이 출토되었습니다. 돌이나 금속이 적당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제주지역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화살촉입니다.	전복 껍데기로 만들어진 화살촉이다. 제주 김녕리 퀴네기 동굴에서 30여 점이 발견되었다. 돌이나 금속이 흔치 않았던 제주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14	붉은 간토기	붉은간토기는 토기 겉면에 붉은 색 안료인 산화철을 칠하고 매끄럽게 문지른 토기를 말합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중 하나로 바리, 항아리, 굽달린 바리 등이 있습니다. 집터와 생활유적에서도 확인되지만 주로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의 껍묻거리로 발견되고 있어 의례용으로 많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붉은간토기는 토기 겉면에 붉은색 안료인 산화철을 칠하고 매끄럽게 문지른 토기입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중 하나입니다. 주로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의 껍묻거리로 발견되고 있어 의례용으로 많이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기 겉면에 붉은색 안료인 산화철을 칠하고 매끄럽게 문지른 토기이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들 중 하나이다.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에서 발견되고 있어 껍묻거리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의례용으로 많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15	굽 달린 접시	서귀포시 화순리유적에서는 제주에서 보기 드문 굽 달린 접시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화순리유적은 제주 서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마을유적으로 집터와 함께 의례와 관련된 터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특수한 제사용기로 보이는 이 접시와 다양한 의례 흔적들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했던 이곳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서귀포시 화순리 유적은 제주 서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마을 유적입니다. 의례와 관련된 터에서 제주에서 보기 드문 굽 달린 접시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제사용기로 보이는 이 접시는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했던 화순리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용기로 보이는 굽 달린 접시이다. 제주 화순리에 마을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물고기가 많이 잡힘)를 기원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6	간돌칼	간돌칼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칼자루 끝에 나무 자루를 끼워 손에 쥐기 편하게 하였습니다. 제주지역에서 간돌칼은 주로 무덤이나 의례용 유구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삼화지구에서 움무덤에 끼문거리로 나온 바 있어 그 용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간돌칼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입니다. 칼자루 끝에 나무 자루를 끼워 손에 쥐기 편하게 하였습니다. 제주지역에서 간돌칼은 주로 무덤이나 의례용 유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간돌칼이다. 칼자루 끝에 나무를 끼워 손에 쥐기 편하게 만들었다. 제주에서는 주로 무덤이나 의례용 유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17	간석기	도끼와 홈자귀는 자루에 묶어 사용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로 나무를 다듬거나 파내는데 사용합니다. 간석기는 농경이 주된 생계수단이 되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귀, 끌, 반달돌칼, 화살촉, 갈돌 등 다양한 용도의 간석기들이 나타나 그 기능과 형태가 세분화 됩니다.	간석기는 농경이 주된 생계수단이 된 청동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루에 묶어 사용하는 도끼와 홈자귀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간석기입니다. 이외에도 자귀, 끌, 반달돌칼, 화살촉, 갈돌 등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간석기들이 나타납니다.	나무를 다듬거나 파낼 때 사용하는 것이다. 농경 생활이 이루어진 청동기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루에 묶어 사용하는 도끼와 홈자귀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과 형태의 간석기들이 있다.	
18	한국식 동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발견된 청동검으로 검의 날 부분이 곧은 '한국식 동검'입니다. 청동기가 생산되지 않는 제주에서 이 동검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기원전 4세기 무렵, 제주지역에서 큰 권력을 지녔던 사람이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발견된 한국식 동검으로 검의 날 부분이 곧은 청동검입니다. 제주에서는 청동기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제주지역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의 날 부분이 곧은 '한국식 동검'이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에서 발견하였다. 제주에서는 청동기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물건이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소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9	옥환	<p>옥환은 중국계 유물로 중국과 일본에서도 발견되는 꾸미개의 일종입니다. 제주시 삼양동유적의 한 집터에서 출토된 이 옥환은 낙랑지역의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며, 연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옥환은 높은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 지역과 교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p>	<p>옥환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발견되는 중국계 유물이며, 꾸미개의 일종입니다. 제주시 삼양동 유적의 한 집터에서 출토된 이 옥환은 낙랑지역의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며, 연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 지역과 교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p>	<p>꾸미는데 사용되는 것(장신구)이다. 중국계 유물로 중국과 일본에서 발견된다. 제주시 삼양동 유적의 집터에서 발견되었으며 낙랑 지역에서 발견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변 지역과 교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p>	
20	꾸미개	<p>제주에서는 경옥, 유리옥, 유리구슬, 납석 등으로 만든 수입된 재질의 귀한 장신구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가 되면서 수량이 많아 집니다. 일부 흙으로 빚은 흙구슬과 굵은 옥을 만들어 장신구로도 사용하였습니다.</p>	<p>제주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 꾸미개의 수량이 많아집니다. 경옥, 유리옥, 납석 등의 수입된 재료로 만든 꾸미개부터 흙으로 빚은 흙구슬과 굵은 옥으로 만든 꾸미개도 있습니다.</p>	<p>꾸미는데 사용되는 것(장신구)이다. 제주에는 청동기시대 이후 장신구의 수량이 많아진다. 유리옥, 유리구슬, 납석 등 수입된 귀한 재료로 만든 것부터 흙으로 빚은 흙구슬과 굵은 옥으로 만든 것도 있다.</p>	
21	중국동전과 청동거울	<p>제주 산지항에서는 오수전, 화천, 대천오십 등 중국 동전과 본 뜬 거울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주로 국제교류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이었습니다. 탐라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와 교역을 하였으며 이러한 교역을 통해 제주 지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p>	<p>제주 산지항에서는 중국 동전과 청동거울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탐라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 등지와 교역을 하였으며, 이러한 교역을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p>	<p>이것은 중국 동전과 청동거울이다. 제주 산지항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제주에서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과 무역을 하면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2	삼양동 독널	독널은 사람의 주검을 안치하거나 뼈를 추려 매장했던 토기 항아리 무덤입니다. 제주시 삼화지구유적에서 발견된 독무덤은 제주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형 토기 2점을 서로 맞붙여 만들었습니다. 이 독무덤은 네모난 구덩이에 독널을 놓고 가장 자리에 돌을 채워 흙을 덮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독널은 사람의 주검을 안치하거나 뼈를 추려 매장했던 토기 무덤입니다. 제주시 삼화지구 유적에서 발견된 독널은 제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형 토기 2점을 서로 맞붙여 만들었습니다. 이 독무덤은 네모난 구덩이에 독널을 놓고 가장자리에 돌을 채워 흙을 덮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주검이나 뼈를 아가리가 넓은 두 개의 항아리에 맞붙여 만든 토기 무덤이다. 제주시 삼화지구 유적에서 발견하였다. 제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대형 토기 2점을 서로 맞붙여 만들었으며 이것을 네모난 구덩이에 넣고 주위에 돌을 채워 흙을 덮어서 무덤을 만들었다.	
23	용담동 독널	아가리가 넓은 두 개의 항아리를 맞붙여 만든 독널입니다. 독널은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초기철기~삼국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용담동 무덤에서는 철제 무기를 부장한 돌덧널무덤과 그 주변에서 독널이 함께 발견되어 탐라시대의 장례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가리가 넓은 두 개의 항아리를 맞붙여 만든 독널입니다. 독널은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지만 제주에서는 초기철기부터 삼국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용담동 무덤에서는 철제 무기를 부장한 돌덧널무덤과 그 주변에서 독널이 함께 발견되어 탐라의 장례풍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검이나 뼈를 아가리가 넓은 두 개의 항아리에 맞붙여 만든 토기 무덤이다. 독널은 신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제주에서는 초기철기부터 삼국시대까지 사용되었다. 용담동 무덤에서 철제 무기를 부장품으로 넣은 돌덧널무덤과 함께 발견되어 과거 제주의 장례풍습을 엿볼 수 있다.	
24	전복껍질 칼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서는 대형 조가비를 이용해 생활 도구를 만든 예가 많습니다. 전복껍질 칼은 반달모양 돌칼의 돌 대신 날카로운 전복의 날을 이용하여 만든 곡식 수확 도구입니다. 단단한 석재가 부족한 제주에서 자연에 적응하며 만들어낸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는 대형 조가비를 이용해 생활 도구를 만든 것이 많습니다. 전복껍질 칼은 반달돌칼의 돌 대신 날카로운 전복의 날을 이용하여 만든 곡식 수확 도구입니다. 단단한 석재가 부족한 제주에서 자연물을 이용해 만들어낸 특유의 도구입니다.	대형 전복의 날을 이용해서 만든 칼이다. 곡식을 수확할 때 사용되었다. 제주에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물을 이용한 특유의 도구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5	철제 무기	제주시 용담동 무덤에서는 철로 만든 검, 검 장식, 도끼, 화살촉 등 다양한 무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제주지역은 철이 생산되지 않아 당시 철기를 소유할 수 있던 사람은 높은 신분 또는 지배계급의 사람만이 가능했습니다. 이 철제 무기는 기원후 2세기경의 영남지방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하여 탐라의 지배계급의 위상과 양 지역의 교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용담동 무덤에서는 철검, 검 장식, 도끼, 화살촉 등 다양한 무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철이 생산되지 않아 지배계급만이 철기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출토된 철제 무기는 2세기경 영남지방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하며 지배계급의 위상과 지역 간의 교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철로 만든 검, 검에 사용되는 장식, 도끼, 화살촉 등이다. 제주에서는 철이 생산되지 않아 지배계급만 철기를 소유할 수 있었다. 제주시 용담동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영남 지방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하여 지역 간의 교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26	곽지리식 토기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제주의 탐라 전기에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이름을 ‘곽지리식토기’라 부릅니다. 이 토기가 만들어진 시기는 제주에서 강력한 세력이 출현하던 기원후 2세기 무렵입니다. 이 시기는 대규모 마을, 고인돌, 돌덧널무덤 등 지배층의 무덤이 나타나고 있어 고대 사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탐라 전기 2세기 무렵(한반도의 삼국시대에 해당)에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서 처음 발견되어 ‘곽지리식토기’라 부릅니다.	탐라 전기(2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토기이다. 발견된 지명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기원후 2세기 무렵, 제주에서 강력한 세력이 출현하던 때에 만들어졌다.	
27	고내리식 토기	한반도의 통일신라 시기에 해당하는 제주의 탐라 후기에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유적이 발견된 지명을 따서 토기이름을 ‘고내리식토기’라 부릅니다. 이 토기는 물레로 만들어 이전 단계에 비해 토기 제작기술이 발전된 형태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굴가마를 이용하여 토기를 구워 회색빛의 단단한 토기를 만들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야외가마에서 구운 토기를 사용하여 섬 문화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제주도의 탐라 후기(한반도의 통일신라 시기에 해당)의 토기입니다. 유적이 발견된 지명을 따서 ‘고내리식토기’라 부릅니다. 이 토기는 물레로 만들어 토기 제작기술이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입니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굴가마를 이용하여 토기를 구웠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야외가마에서 구워냅니다.	탐라 후기에 만들어진 토기이다. 발견된 지명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물레로 만들었으며 제작기술이 이전보다 발전된 것이다. 제주에서는 야외 가마에서 구워낸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8	용천동굴에서 나온 회청색토기	용천동굴은 제주시 김녕리에 위치한 용암동굴입니다. 길이가 3.4km나 되는 동굴 속에는 지하 호수가 있습니다. 동굴과 지하 호수 속에는 통일신라시대 제주 사람들이 들고 간 회청색토기가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사람들이 빛 하나 들지 않는 이곳에 갔는지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용천동굴은 제주 김녕리에 있는 길이 3.4km의 용암동굴이며, 동굴 안에는 지하 호수가 있습니다. 동굴과 지하 호수에서 통일신라시대의 회청색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동굴 안에 토기를 들고 갔는지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회청색토기이다. 제주시 김녕리에 있는 길이 3.4km의 동굴 안과 그 안에 있는 지하 호수에서 통일신라시대 회청색토기가 다량 발견되었다. 사람들이 빛 하나 없는 지하 동굴에 토기를 들고 들어간 이유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29	금동허리띠 꾸미개	허리띠 꾸미개는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 표면에 매달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허리띠 꾸미개는 권력과 신분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용담동 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이 허리띠 꾸미개는 인동당초무늬가 정교하게 돋을새김된 것으로 매우 귀한 것입니다.	허리띠 꾸미개는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 표면에 매달아 장식하는 용품입니다. 고대의 허리띠 꾸미개는 신분과 권력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용담동 제사유적에서 발견된 이 허리띠 꾸미개는 인동당초무늬가 정교하게 돋을새김된 것으로 매우 귀한 것입니다.	허리띠 표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장신구이다. 허리띠 꾸미개는 고대 신분과 권력의 상징이었다. 용담동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의 무늬는 정교하고 형상을 도드라지게 새겨 매우 귀한 것이다.	
30	신창리 해저에서 건져 올린 보물	제주시 신창리 해저에서 건져 올린 중국 도자기와 금제품입니다. 물질하던 해녀에 의해 알려진 이 유물은 중국 남송대의 용천요에서 만들어진 청자와 금팔찌 등입니다. 당시 중국은 도자기의 최대 수출국이었으며 한국과 일본은 주요 수입국이었습니다. 이 배는 고려 또는 일본으로 가다가 제주 신창리 바닷가에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신창리 해저에서 건져 올린 중국 도자기와 금제품입니다. 물질하던 해녀에 의해 알려진 유물입니다. 중국 남송대의 용천요에서 만들어진 청자와 금팔찌입니다. 청자와 금제품을 실은 배가 중국에서 고려 또는 일본으로 가다가 제주 신창리 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도자기와 금제품이다. 신창리 해저에서 제주 해녀에 의해 발견되었다. 중국 남송대의 용천요에서 만들어진 청자와 금팔찌이다. 청자와 금제품을 실은 배가 중국에서 고려 또는 일본으로 가다가 제주 바다에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1	법화사에서 나온 유물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던 13세기, 제주에는 법화사라는 큰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노비가 28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의 사찰이었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청자, 중국청자, 용과 봉황이 새겨진 막새기와 등 고급유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용무늬 막새기와는 중국 원나라의 궁궐터나 주요 건물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여 제주를 지배했던 원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던 13세기, 제주 법화사는 노비가 280여 명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사찰이었습니다. 법화사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청자, 중국청자, 용과 봉황이 새겨진 막새기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용무늬 막새기와는 원나라의 궁궐터나 주요 건물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여 제주에서 원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법화사에서 나온 기와이다. 법화사는 13세기, 고려가 원나라에 지배당했을 때 있던 사찰로, 노비가 28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였다. 이 사찰의 발굴조사에서 고려청자, 중국청자, 기와 등을 발견했다. 특히 용무늬 막새기와는 원나라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여 제주에서 원의 영향을 알 수 있다.	
32	‘중창’이 새겨진 기와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이지만 제주에서 불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고려시대 부터입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법화사터에서는 ‘지원육년기미시중창십육년기묘’ 글씨가 새겨진 기와편이 발견되어 이 절이 1279년(충렬왕 5)에 다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이지만 제주에서 불교의 흔적은 고려시대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법화사터에서 ‘지원육년기미시중창십육년기묘’라는 문구가 새겨진 기와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화사가 1279년(충렬왕 5년)에 다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물은 서귀포시에 있는 법화사터에서 발견한 기와 조각이다. 조각에 적혀있는 연도와 ‘중창’이라는 글자를 통해 법화사가 1279년 충렬왕 때 다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불교의 흔적은 고려시대부터 찾을 수 있다.	
33	수정사터 석탑	법화사와 함께 고려시대의 주요 사찰 중 하나가 수정사터입니다. 조선시대 초에는 노비가 130명이나 되는 큰 사찰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점판암으로 만든 다층 석탑의 부재들이 출토되었는데, 이중 인왕상이 새겨진 면석이 주목됩니다. 인왕은 절의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고려시대 탑에 새겨진 예는 매우 드물며 제주에서 볼 수 없는 석재로 만들어져 더욱 주목을 받습니다.	법화사와 함께 수정사도 고려시대 주요 사찰 중 하나입니다. 수정사 터에서는 점판암으로 만든 다층 석탑의 부재들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인왕상이 새겨진 면석이 주목됩니다. 인왕은 절의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고려시대 탑에 새겨진 예는 매우 드물며, 제주에서 볼 수 없는 석재로 만들어져 더욱 주목을 받습니다.	고려시대 큰 사찰 중 하나인 수정사 터의 석탑 부재(중요 재료)이다. 수정사에는 점판암으로 만든 다층 석탑의 부재들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인왕상이 새겨진 면석이 주목된다. 인왕은 절의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고려시대 탑에 새겨진 예는 드물며, 제주에서는 볼 수 없는 석재로 만들어져 더욱 주목을 받는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4	최충헌 묘지명 탁본	고려시대 후기 무신집권자인 최충헌의 묘지명 탁본입니다. 최충헌은 4대 60여년에 걸친 최씨 무신정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려의 삼별초는 최씨 무신집권기에 설치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말합니다. 삼별초는 경찰, 전투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고려의 대몽항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고려시대 후기 무신집권자인 최충헌의 묘지명 탁본입니다. 최충헌은 4대 60여년에 걸친 최씨 무신정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몽항쟁의 핵심이었던 고려의 삼별초는 최씨 무신집권기에 설치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을 말합니다.	고려 후기 무신 집권자인 최충헌의 묘지명 탁본이다. 최충헌은 4대 60년에 걸친 최 씨 무신정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35	용장성에서 나온 유물	삼별초는 1270년 6월 고려정부가 원에 항복하며 개경 환도를 결정하자 이를 거부하고 항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강화도에서 진도 용장성으로 이동하면서 승화후 온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새 정부를 세웠습니다. 연꽃무늬 수막새와 도깨비 얼굴 장식기와는 용장성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삼별초는 1270년 6월 고려 조정이 원나라에 항복하여 개경 환도를 결정하자 이를 거부하고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진도 용장성으로 이동하여 승화후 온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항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연꽃무늬 수막새와 도깨비 얼굴 장식 기와는 용장성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진도 용장성에서 나온 도깨비 얼굴 장식기와이다. 1270년 고려 조정이 원에 항복하여 개경 환도를 결정하자 삼별초는 이를 거부하고 항쟁을 시작했다. 강화도에서 진도 용장성으로 이동하여 온을 왕으로 추대하고 항쟁을 계속했다. 이 기와가 용장성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36	항파두리성에서 나온 유물	진도의 삼별초군이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자 1271년 5월 김통정이 삼별초의 나머지 세력을 이끌고 제주에 들어와 항파두리성에서 최후의 항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진 항파두리성에서는 20여 동의 건물이 확인되었고 연꽃무늬 수막새와 청자 등 고려 후기 양식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진도가 함락되자 1271년 5월 삼별초를 이끄는 김통정이 제주에 들어와 항파두리성에서 최후의 항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진 항파두리성에서는 연꽃무늬 수막새와 청자 등 고려 후기의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항파두리성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진도의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함락되자 1271년 김통정이 나머지 삼별초를 끌고 제주에 들어와 항파두리성에서 최후의 항쟁을 했다. 이 성에서 20여 동의 건물, 연꽃무늬 수막새, 청자 등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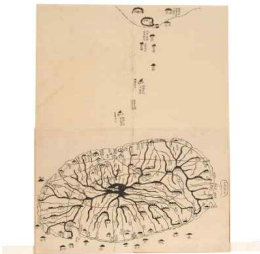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7	고누놀이판	<p>항파두리성 내성터에서 출토된 고누놀이판입니다. 고누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말판놀이인데 말판에 말을 놓아 포위하거나 떼어 내는 놀이입니다. 개성의 만월대에서도 유사한 것이 출토되었습니다. 항파두리성의 고누놀이판은 삼별초의 군사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p>	<p>항파두리성 내성 터에서 출토된 고누놀이판입니다. 고누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말판놀이인데 말판에 말을 놓아 포위하거나 떼어 내는 놀이입니다. 항파두리성의 고누놀이판은 삼별초의 군사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p>	<p>항파두리성 내성 터에서 출토된 고누놀이판이다. 고누놀이는 우리나라 전통 말판놀이로 말판에 말을 놓아 포위하거나 떼어 내는 놀이이다. 개성의 만월대에서도 유사한 것이 출토되었다. 이 성에서 발견된 고누놀이판은 삼별초 군사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p>	
38	항파두리성 갑옷	<p>항파두리성 내성터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고려의 미늘갑옷으로 추정됩니다. 고려는 국가의 관리 하에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다고 하며, 고려 갑옷의 전체적인 모습이 두루마기형태라는 기록이 전합니다. 흩어진 갑옷에서 삼별초의 처절했던 마지막 전투모습이 느껴집니다.</p>	<p>항파두리성 내성 터에서 출토된 철갑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고려의 미늘갑옷으로 추정됩니다. 고려는 국가가 관리하여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는데, 고려 갑옷의 모습은 두루마기 형태라는 기록이 전해집니다.</p>	<p>항파두리성 내성터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이다. 전체적인 모양은 알 수 없지만, 고려의 미늘갑옷으로 추정된다. 고려 갑옷은 국가의 관리 하에 만들어졌고 두루마기 형태라는 기록이 있다.</p>	
39	네 귀 달린 항아리	<p>어깨에 네 개의 고리가 달린 항아리로 제주에서는 몽골병이라고 부릅니다. 고리에 끈을 달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원나라 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과 제주지역에서 발견되며 일본의 경우 규슈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원, 고려, 일본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p>	<p>어깨에 네 개의 고리가 달린 항아리로 제주에서는 '몽골병'이라고 부릅니다. 고리에 끈을 달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 원나라 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과 제주에서 발견되며 일본의 경우 규슈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원나라, 고려, 일본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p>	<p>어깨에 네 개의 고리가 있는 항아리로 '몽골병'이라고 부른다. 고리에 끈을 달아 사용하며 중국 원나라 때 많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제주, 일본 규슈에서 발견된다. 원나라, 고려,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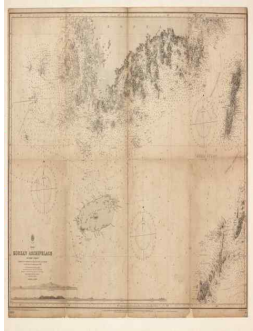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0	탐라지도 병서	1709년에 만들어진 대형의 제주지도입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과 숲, 촌락, 포구 등이 자세히 새겨져 있습니다. 지도의 위와 아래에는 각 고을의 연혁과 행정단위, 인구와 군사, 재정, 명승고적 등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의 방위는 한양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려서 아래가 북쪽에 해당됩니다.	1709년에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제주 지도입니다. 대형 지도로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과 숲, 촌락, 포구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지도의 위와 아래에는 각 고을의 연혁과 행정단위, 인구와 군사, 재정, 명승고적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의 방위는 한양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려서 아래가 북쪽에 해당합니다.	1709년에 만든 대형의 제주 지도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오름, 숲, 촌락, 포구 등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지도의 위와 아래에 각 고을의 연혁과 행정단위, 인구와 군사, 재정, 명승고적 등의 정보가 기록되었다. 한양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려 아래가 북쪽이다.	
41	제주목관아지 출토유물	조선시대 제주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3읍으로 나뉘어 관리되었으며 제주목관아는 삼읍의 정치, 행정, 군사 등 모든 분야를 관리하던 중심기관이었습니다. 관아지에서는 건물터를 비롯하여 글자가 새겨진 백자, 분청사기, 기와 등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제주목관아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제주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3읍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었습니다. 제주목관아는 3읍의 정치, 행정, 군사 등 모든 분야를 관리하는 중심기관이었습니다. 제주목관아지에서는 건물터와 글자가 새겨진 백자, 분청사기, 기와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제주목관아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목관아지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조선 시대 제주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3읍으로 나뉘었다. 제주 관아는 3읍의 정치, 행정, 군사 등 모든 분야를 관리하는 중심관이었다. 관아지의 건물터, 글자가 새겨진 백자, 분청사기, 기와 등이 출토되어 제주목관아의 위상을 알 수 있다.	
42	탐라관풍안	고려시대부터 1945년까지의 제주 관리를 평가한 기록입니다. 고려시대의 현령 최척경을 시작으로 해방으로 파직된 마지막 도사(島司) 소야호시(小野虎市)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이취임 시기 및 교체 사유를 적어 관리들의 공과를 적어놓았습니다. 부록에는 제주출신 문과(생원진사시 포함) 급제자들의 명단을 적은 <빈흥록(賓興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해방까지의 제주도 관리를 평가한 것으로 고려시대의 현령 최척경을 시작으로 해방으로 파직된 마지막 도사(島司) 일본인 소야호시(小野虎市)까지의 기록입니다. 제주도 관리의 이취임 시기 및 교체 이유를 적어 관리들의 공과를 기록했습니다. 부록에는 제주 출신 문과(생원진사시 포함) 급제자들의 명단을 적은 <빈흥록(賓興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1945년까지의 제주 관리를 평가한 기록이다. 고려 현령 최척경부터 마지막 도사 소야호시까지 이취임 시기, 교체 이유, 관리의 공과를 적었다. 부록에는 제주 출신 문과 급제자들의 명단을 적은 <빈흥록>이 수록되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3	탐라속오군 적부	1620년~1650년 사이 제주도 속오군東伍軍의 소속과 신원을 기록한 명부입니다. 군적부에는 군사 개인의 나이, 부친, 소속 고을, 거주지, 얼굴 모습, 수염 상태, 흉터, 기예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속오군은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지방군을 재편성하기 위해 중국 명나라의 속오법을 따라 조직한 부대로 일정기간 병역과 훈련으로 유사시 국가 방어에 동원되었습니다.	1620년부터 1650년 사이 제주도의 속오군(東伍軍)의 소속과 신원을 기록한 명부입니다. 군적부에는 군사 개인의 나이, 부친, 소속 고을, 거주지와 얼굴 모습, 수염 상태, 흉터, 기예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속오군은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지방군을 재편성하기 위해 명나라의 속오법을 따라 만든 부대입니다. 일정기간의 병역과 훈련으로 국가 방어에 동원되었습니다.)	1620~1650년 제주도 속오군의 소속과 신원을 기록한 책이다. 군적부에는 군사 개인의 나이, 부친, 소속 고을, 거주지, 얼굴 모습, 수염 상태, 흉터, 기예 등을 자세히 기록했다. 속오군은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지방군을 재편성하기 위해 조직한 부대로 유사시 국가방어에 동원되었다.	 
44	탐라순력도	병와 이형상李衡祥(1653년~1733년)이 제주목사로 재임 중에 제주도의 각 고을을 순회하면서 거행했던 행사와 여러 풍경 등을 화공 김남길金南吉로 하여금 그리게 하여 만든 화첩입니다.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면마다 그림에 대한 제목과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탐라순력도를 통해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병와 이형상(李衡祥)<1653-1733>이 제주목사 부임 중에 제주의 각 고을을 순회하면서 치뤘던 행사와 여러 풍경 등을 화공 김남길(金南吉)에게 그리게 하여 만든 화첩입니다. 총 43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면마다 그림에 대한 제목과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제주목사 이형상이 화공 김남길에게 그리게 한 화첩이다. 부임 중 제주 각 고을을 순회하면서 치뤘던 행사와 여러 풍경을 그리게 한 것이다. 총 43면으로 면마다 그림에 대한 제목과 설명이 있다.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5	제주목사 이규원의 교지	만은 이규원李奎遠(1833~1901)을 제주목사로 임명하는 임명장입니다. 이규원은 1891년(고종 28) 정의현에서 일어난 민란과 일본인이 제주 연안을 무단 침탈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1894년까지 3년 동안 제주목사로 있으면서 흥흥한 민심을 안정시키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등 바르고 어진 정치를 펼칩니다.	만은 이규원(李奎遠)<1833-1901>을 제주목사로 임명하는 임명장입니다. 이규원은 1891년(고종 28) 정의현에서 일어난 민란과 일본인의 무단 침탈을 막는 임무를 가지고 임명되었습니다. 이규원은 1894년까지 3년 동안 제주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만은 이규원을 제주 목사로 임명하는 임명장이다. 이규원은 1891년 정의현에서 일어난 민란과 일본인의 제주 무단 침탈을 막기 위해 임명되었다. 그는 3년간 제주 목사로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등 바르고 어진 정치를 펼쳤다.	
46	제주목사 이익태 초상	야계 이익태李益泰(1633~1704)는 숙종 임금 때 2년간 제주목사를 지냈습니다. 1694년에 부임하여 관덕정과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연무정, 제주성 방어를 지휘하던 운주당 등을 다시 지어 제주목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것을 보고 <지영록>을 편찬하였는데 여기에는 네덜란드인 하멜이 표류해 온 기록도 있어 17세기 제주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야계 이익태(李益泰)<1633-1704>는 조선 숙종 때 2년간 제주목사를 지냈습니다. 1694년에 부임하여 관덕정과 군사훈련 기능의 연무정, 제주성 방어를 지휘하던 운주당 등을 다시 지어 제주목관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영록>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네덜란드인 하멜이 표류해 온 기록도 있습니다.	제주 목사 이익태의 초상이다. 이익태의 호는 야계이고 조선 숙종 때 2년간 제주 목사를 했다. 1694년 제주에 부임하여 관덕정, 군사훈련을 위한 연무정, 제주성 방어를 지휘하는 운주당 등 제주목관을 정비하였다. <지영록>을 편찬하였는데 여기에 네덜란드인 하멜이 표류해 온 기록 등 17세기 제주 상황이 잘 담겨있다.	
47	시권	오점吳靄(1764~1834)이 과거시험에서 적었던 답안지를 옮겨 적은 책입니다. 1786년(정조 10) 식년시 생원 3등 3위로 사마시에 합격하고 이후 1792년(정조 16) 대과에 응시했던 시험 답안지를 옮겨 적었습니다. 오점은 정조~철종 대에 활동했던 인물로서 제주 뿐 만 아니라 호남의 명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제주향교 계성사啓聖祠 현판이 그의 필적입니다.	'오점(吳靄)<1764~1834>이 1792년(정조 16년) 과거시험인 대과에 응시했던 시험 답안지를 옮겨 적었습니다. 오점은 정조~철종 대의 인물이며 제주뿐만 아니라 호남의 명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제주 향교 계성사 현판이 그의 필적입니다.	1792년 오점이라는 인물이 과거시험에서 적었던 답을 옮겨 적은 책이다. 오점은 정조~철종 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제주뿐 아니라 호남의 명필가이다. 현재 제주 향교 계성사의 현판도 그의 필적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8	탐라빈홍록	<p>제주도에서 시행한 과거시험인 빈홍과賓興科의 내용과 합격자 명부를 기록한 책입니다. 1793년(정조 17) 정조는 어사 심낙수를 보내어 민생을 살피고 고령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문무과 과거시험을 치를 것을 명하였는데 이 때 빈홍과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이듬해 규장각에서 <탐라빈홍록>으로 발간된 것입니다.</p>	<p>1793년(정조 17년) 정조가 어사 심낙수를 제주에 보내어 민생을 살피고 고령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며 문무과 과거시험을 치를 것을 명했습니다. 이 때 빈홍과가 실시되었고 이 책은 이듬해 규장각에서 발간된 것입니다.</p>	<p>이 책은 <탐라빈홍록>으로 제주에서 시행한 과거시험인 '빈홍과'의 내용과 합격자 명부를 기록했다.</p> <p>1793년 정조가 어사 심낙수를 보내어 민생을 살피고 고령자에게 잔치를 베풀고 문무과 과거시험을 치르게 명하여 빈홍과가 실시되었다.</p> <p>이 책은 그다음 해 규장각에서 발간했다.</p>	
49	탐라기년	<p>심재 김석익金錫翼(1885~1956)이 938년(고려 태조 21년)부터 1904년(광무 10)까지 4권으로 나눠 제주 역사를 기술한 편년체 역사책입니다. 한국사 연대를 먼저 쓰고 중국 연호를 뒤에 쓰는 등 주체적으로 역사를 서술하였습니다. 다시는 사직이 무너지는 비운을 없게 하려는 포부에서 쓰여진 제주 향토사입니다.</p>	<p>심재 김석익(金錫翼)<1885~1956>이 938년(고려 태조 21년)부터 1904년(광무 10년)까지의 제주의 역사를 기술한 4권의 편년체 역사서입니다. 우리의 연대를 먼저 쓰고 중국 연호를 뒤에 쓰는 등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보입니다. 종묘사직이 무너지는 비운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쓴 제주 향토사입니다.</p>	<p>심재 김석익이 쓴 역사서이다.</p> <p>938년부터 1904년까지의 제주 역사를 시간에 따라 4권으로 기술했다.</p> <p>한국의 연대를 먼저 쓰고 중국 연호를 뒤에 쓰는 등 주체적으로 서술했다.</p> <p>나라가 다시 무너지는 비운을 없게 하려는 바람을 담아 쓴 역사책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0	대동여지도 속 제주도	고산자 김정호 金正浩(?~?)가 1861년에 제작, 간행한 <대동여지도>의 제주 지도입니다. 다른 제주 지도에 비해 실제 지형을 반영하였고 군사·행정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간결히 표시하였습니다. 이전 지도에서 오름을 단일 봉우리처럼 그린 것을 산맥처럼 표현하였습니다.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1861년에 제작하고 간행한 <대동여지도>의 제주 지도입니다. 다른 제주 지도와 비교하면 실제 지형을 반영하였고 군사·행정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간결하게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름을 산맥처럼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1861년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의 제주 지도이다. 다른 제주 지도 보다 실제 지형을 반영하였고 군사·행정적으로 중요한 항목을 간결하게 표시했다. 다른 지도에서는 오름을 봉우리처럼 그렸으나 산맥처럼 표현하였다.	
51	송시열의 글씨	17세기 노론의 영수로서 정계를 주도하였던 우암 송시열(1607~1689)의 글씨입니다. 이 글은 당나라 시인 두보가 지은 것으로 제갈공명 사당 앞의 오래된 측백나무에 빗대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인재의 쓸쓸함을 노래한 ‘고백행’이라는 칠언시입니다.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111일의 짧은 유배 생활을 하였지만 굴림서원에 배향되고 제주 오현의 한 명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 <1607~1689>이 당나라 시인 두보가 지은 ‘고백행’이라는 칠언시를 적은 글씨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인재의 쓸쓸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111일의 짧은 유배 생활을 하였지만 굴림서원에 배향되고 제주 오현 중 한 명으로 추앙되었습니다.	17세기 노론 영수인 우암 송시열이 쓴 것이다. 당나라 시인 두보의 칠언시 ‘고백행’을 적은 글씨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인재의 쓸쓸함에 대한 내용이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111일의 유배 생활을 했지만, 제주 오현 중 한 명으로 추앙되어 굴림서원에 배향(위패를 모심)되었다.	
52	최익현 초상	조선 말기 유학자이자 항일의병장인 면암 최익현(1883~1906)의 74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종황제의 어진을 그리기도 했던 당대 최고의 어진 화가인 채용신이 1905년에 그린 것입니다. 굵게 잡힌 주름, 허공을 응시하는 눈동자와 굳게 다문 입술 등은 노년의 의병장 최익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유학자이자 항일의병장인 면암 최익현<1883~1906>의 74세 때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고종황제의 어진을 그리기도 한 화가 채용신이 1905년에 그린 것입니다. 노년의 의병장 최익현의 기백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말 유학자이자 항일의병장인 면암 최익현의 74세 때 모습이다. 1905년에 화가 채용신이 그렸다. 채용신은 고종황제의 어진을 그리기도 했던 당대 최고의 화가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3	추사 김정희 초상	심재 김석익이 추사 김정희(1786~1856)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린 초상화입니다. 김정희는 1840~1849년까지 제주 대정현에 유배되었는데 유배 기간 중 추사체를 완성하고 학문적으로도 높은 경지에 올랐습니다. 또한 여러 제자들을 가르쳐 제주사회의 학문과 문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큰 스승으로 존경 받았습니다.	심재 김석익이 추사 김정희 <1786~1856>에 대한 존경을 담아 그린 김정희의 초상화입니다. 김정희는 제주 대정현에서 1840~1849년까지 9년간 유배되었습니다. 유배 기간 중 추사체를 완성하고 높은 학문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또한 여러 제자를 배출하여 제주사회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심재 김석익의 그림이다. 그림 속 인물은 그가 존경하는 추사 김정희이다. 김정희는 제주에서 1840~1849년까지 유배되었다. 그 기간 중 추사체를 완성하였고 여러 제자를 가르쳐 제주 사회의 큰 스승으로 존경받았다.	
54	표해록	표해록(漂海錄)은 표류자가 귀국 후 이국의 풍속과, 제도, 그가 체험한 것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부의 <표해록>, 장한철의 <표해록> 등입니다. 이들은 중국, 일본 오키나와 등지를 다녀와서 그 견문기를 일기나 기행문 형식으로 썼습니다. 특히 최부의 <표해록>은 내용이 흥미로워 일본에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표해록(漂海錄)은 표류자가 돌아와서 다른 나라의 풍속과 제도, 그곳에서의 체험을 기록한 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최부의 <표해록>, 장한철의 <표해록>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오키나와 등지를 다녀와서 일기나 기행문 형식으로 기술했습니다. 최부의 <표해록>은 내용이 흥미로워 일본에서 번역되어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표해록이다. 표해록이란 표류자가 귀국 후 다른 나라의 풍속과 제도, 그 나라에서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부와 장한철의 표해록이 있다. 이들은 중국, 일본 등을 다녀와 일기나 기행문 형식으로 썼다. 특히 최부의 책은 내용이 흥미로워 일본에서 번역해 출판되었다.	
55	서양인이 그린 조선 남해안지도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1845~1884년까지 조선의 해역을 조사하고 그린 지도 중 제주 지도입니다. 에드워드 벨처(1799~1877)는 세계 각지의 해안선 측량에 참가한 영국 해군으로 1845년 6월 25일에 제주에 도착하여 우도를 기지로 삼고, 약 37일 동안 제주도, 거문도, 거금도 일대를 측량하였습니다.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1845~1884년까지 조선의 해역을 조사하고 그린 지도 중 제주 지역 부분의 지도입니다.	영국군이 그린 제주도 지도이다.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1845~1884년까지 조선 해역을 조사하고 그린 지도 중 제주 부분의 지도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6	물옷과 물질도구	제주에서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과 도구입니다. 1702년에 그려진 탐라순력도에 물옷을 입은 해녀 모습이 있어 이때부터 이미 물옷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옷은 상의인 물적삼과 하의인 물소중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녀들은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도구와 이를 보관하는 테왁망사리를 꼭 들고 다녔습니다.	제주에서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과 도구입니다. 1702년에 그려진 <탐라순력도>에 물옷을 입은 해녀의 모습이 있는 걸 봐서 이미 과거부터 물옷을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옷은 상의인 물적삼과 하의인 물소중이로 되어 있으며, 해녀들은 채취하는 도구와 이를 보관하는 테왁망사리를 꼭 들고 다녔습니다.	제주에서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과 도구이다. 해녀들은 상의 '물적삼'과 하의 '물소중이'를 입고, 채취하는 도구와 해산물을 보관하는 테왁망사리를 꼭 들고 다녔다.	
57	제주의 말 문화	말 목동인 '말테우리'가 입는 복식과 말 꼬리로 만든 말총공예품입니다. 조선시대 제주말은 나라에 올리는 중요한 진상품이었습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10개의 목마장에서 말을 키웠으며 제주목사는 공마를 점검하고 육지로 수송하는 일을 관리하였습니다. 값비싼 말들이 죽지 않게 말테우리들은 말을 엄격히 관리하였고 만일 말이 죽으면 그 비용을 대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말을 관리하는 목동 '말테우리'가 입는 복식과 말총으로 만든 공예품입니다. 제주말은 나라에 올리는 중요한 진상품이었습니다. 한라산 중심으로 10개의 목마장에서 말을 키우고 제주목사는 공마를 점검하여 육지로 수송하는 일을 관리했습니다. 말테우리들은 말이 죽으면 그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에 죽지 않게 엄격히 관리하였습니다.	말을 관리하는 사람(말테우리)이 입는 옷과 말총(말털)으로 만든 공예품이다. 조선시대 제주 말은 중요한 진상품이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10개의 목마장에서 말을 키웠고 제주목사는 공마를 점검하고 육지로 수송하는 일을 관리했다. 말이 죽으면 관리사(말테우리)가 비용을 내야 했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했다.	
58	허벅	물을 길고 다니는 운반용구로 보통 '물허벅'이라고 합니다. 양은 열 되들이입니다. 보통 '물구덕'이라는 대나무 구덕(대오리)에 넣어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물을 가득 담고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 허벅의 목이 좁게 만들어졌습니다. 크기에 따라 바룻허벅(맞춤허벅), 허벅, 대배기(대바지), 애기대배기(애기대바지) 등이 있습니다.	물을 길고 다니는 용구로 보통 '물허벅'이라고 합니다. 용량은 열 되들이입니다. '물구덕'이라 불리는 대나무 구덕(대오리)에 넣어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물을 가득 담아도 넘치지 않게 허벅의 목을 좁게 하였습니다. 크기에 따라 바룻허벅(맞춤허벅), 허벅, 대배기(대바지), 애기대배기(애기대바지) 등으로 구분하여 부릅니다.	물을 길고 다니는 도구로 '물허벅'이라고 한다. 양은 열 되들이 이다. 물이 넘치지 않게 목을 좁게 만들었다. 크기에 따라 바룻허벅, 대배기, 애기대배기 등으로 부른다. '물구덕'이라 불리는 대나무 바구니에 넣어 등에 지고 다닌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9	토신함	제주 사람들은 칠성신을 부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이 안채의 뒤에 토신함을 두고 칠성신을 모시는 것을 ‘밭칠성’이라 합니다. 밭칠성은 뱀칠성을 의미하며 뱀을 가신(家神)으로 모시는 제주의 민간신앙입니다. 짚으로 집을 만들어 씌우기도 하지만 이처럼 돌집을 마련하여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칠성신이 부유함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믿고 모셨습니다. 집안의 안주인이 안채 뒤에 토신함을 두고 칠성신을 모시는 것을 ‘밭칠성’이라 합니다. 밭칠성은 뱀칠성을 말하며 뱀을 가신(家神)으로 모시는 제주의 민간신앙입니다. 짚으로 집을 만들어 씌우거나 돌집을 마련하여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의 신을 모시는 돌집인 토신함이다. 제주 사람들은 칠성신을 믿었다. 집안의 안주인이 안채 뒤에 토신함을 두고 뱀을 집안의 신으로 모신다. 이렇게 돌집을 만들어 모시거나 짚으로 집을 만들어 씌우기도 한다.	
60	무구	무구는 무당이 굿을 하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제주에서는 명도(명두), 요령, 산판 등이 중요한 무구입니다. 요령은 신을 부를 때, 명두와 산판은 점을 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굿판의 연주 음악인데 장구, 북, 징, 바라 등이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무당이 굿을 하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무구(巫具)라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명도(명두), 요령, 산판 등을 중요한 무구로 봅니다. 요령은 신을 부를 때, 명두와 산판은 점을 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무당이 굿을 하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제주에서는 명도, 요령, 산판 등을 중요한 무구로 본다. 요령은 신을 부를 때, 명도와 산판은 점을 칠 때 주로 사용된다.	



(6) 국립청주박물관(60편)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	주먹도끼 手斧	주먹도끼는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도구입니다. 아래의 볼록한 부분은 손으로 잡는 곳이고 위쪽은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떼어낸 후 다듬어서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주먹도끼는 손에 쥐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손도끼로, 사냥이나 도살, 나무뿌리 캐기, 도구 만들기, 가죽 가공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청주淸州의 서쪽 만수리萬水里 유적에서는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주먹찌르개, 찌개 등 다양한 석기가 출토되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무려 56만년 전에 만든 것으로 봅니다. 청주 서쪽의 중요 하천인 미호천美湖川에 한국의 가장 오래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주먹도끼는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도구입니다. 주먹도끼 아래의 볼록한 부분은 손으로 잡기 편한 모양이고, 위쪽은 엇갈리는 방향으로 떼어낸 후 다듬어서 날을 만들었습니다. 주먹도끼는 손에 쥐고 사용하기에 편한 손도끼로, 주로 사냥이나 도살, 나무뿌리 캐기, 도구 만들기, 가죽을 가공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무려 56만년 전에 만든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청주淸州 서쪽의 중요한 하천인 미호천美湖川에 한국의 구석기시대 사람들 중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 살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볼록한 부분은 손으로 잡기 편한 모양이고 위쪽은 엇갈리는 방향으로 떼어내 다듬은 날이 있는 손도끼이다. 56만 년 전에 만든 것으로 사냥이나 도살, 나무뿌리 캐기, 가죽을 가공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주먹찌르개 手鎚	주먹찌르개는 납작한 자갈돌로 만드는데, 둥근 자연면을 손잡이로 남겨 두고, 위쪽 끝부분 가장자리를 크게 떼어 내어 뾰족하게 만든 도구입니다. 주먹찌르개는 주먹도끼와 함께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대형 도구입니다. 몸돌 전체 또는 큰 돌조각 양면을 떼어 날을 만드는데, 주로 사냥할 때 찌르거나 가죽과 같은 유기물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했습니다. 청주淸州의 서쪽 만수리萬水里 유적에서 출토된 이 주먹찌르개는 주먹도끼, 찌개 등과 함께 미호천美湖川 유역에 살았던 전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석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주먹찌르개는 납작한 자갈돌로 만듭니다. 아래쪽 둥근 부분은 그대로 손잡이로 남겨 두고, 위쪽 끝부분은 가장자리를 크게 떼어 내어 뾰족하게 만듭니다. 주로 사냥할 때 찌르거나 가죽과 같은 것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했습니다. 주먹찌르개는 주먹도끼와 함께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대형 도구입니다. 청주淸州의 서쪽 만수리萬水里 유적에서 출토된 이 주먹찌르개는 주먹도끼, 찌개 등과 함께 미호천美湖川 유역에 살았던 전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석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납작한 자갈돌로 만든 것으로 사냥할 때 찌르거나 가죽과 같은 것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아래 둥근 부분은 손잡이이고 위쪽은 뾰족하게 만들어서 사용했다.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도구로 청주 서쪽 만수리 유적에서 발견되었으며 전기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	여러면석기 多角面圓球	<p>여러면석기는 구석기시대에 사용한 또 다른 석기입니다. 자갈돌의 거의 모든 면을 조금씩 떼어 내어 둥근 공처럼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야구공 정도의 크기입니다. 석기 두 개를 동물 힘줄 또는 식물 줄기로 묶어 연결한 후 이를 던져 사냥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면석기는 청주 서쪽의 만수리萬水里와 진천鎭川 장관리長管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6대 하천 중 하나인 금강錦江 상류에 해당하는 미호천美湖川 일대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의의가 있습니다.</p>	<p>여러면석기는 구석기시대에 사용한 또 다른 석기입니다. 자갈돌의 거의 모든 면을 조금씩 떼어 내어 둥근 공처럼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야구공 정도의 크기입니다. 석기 두 개를 동물 힘줄 또는 식물 줄기로 묶어 연결한 후 이를 던져 사냥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면석기는 청주 서쪽의 만수리萬水里와 진천鎭川 장관리長管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6대 하천 중 하나인 금강錦江 상류에 해당하는 미호천美湖川 일대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p>	<p>자갈돌의 모든 면을 조금씩 떼어 둥근 야구공의 모양처럼 만든 석기이다. 이것 두 개를 동물의 힘줄 또는 식물 줄기로 묶어서 연결한 후 던져서 동물을 사냥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 만수리와 장관리에서 발견하였으며 미호천 일대에 살았던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p>	
4	긁개 刮器	<p>긁개는 구석기시대 전 시기에 걸쳐 사용한 도구로, 가죽과 나무껍질을 벗겨 내거나 나무와 뼈 등을 깎는 데에 이용했습니다. 이 긁개는 길쭉한 형태로, 몸돌을 타격하여 떼어 낸 긴 돌조각의 한쪽 가장자리를 떼어내고 긁개날을 만들었습니다. 날이 마치 톱니날처럼 생겼다고 하여 '톱니날도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충북 동북쪽의 단양군 수양개유적丹陽 垂楊介 遺蹟에 살았던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p>	<p>긁개는 구석기시대 전 시기에 걸쳐 사용한 도구입니다. 주로 가죽과 나무껍질을 벗겨 내거나 나무와 뼈 등을 깎는 데에 이용했습니다. 이 긁개는 길쭉한 모양으로, 몸돌을 쳐서 떼어 낸 긴 돌조각을 만들고, 이 돌조각의 한쪽 가장자리를 떼어 내어 긁개날을 만들었습니다. 날이 마치 톱니날처럼 생겼다고 하여 '톱니날도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 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충북 동북쪽의 단양군 수양개유적丹陽 垂楊介 遺蹟에 살았던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p>	<p>가죽과 나무껍질을 벗겨 내거나 나무와 뼈 등을 깎는 데에 이용하는 도구이다. 몸돌을 쳐서 떼어 낸 돌조각을 만들고 한쪽 가장자리를 떼어 긁개날을 만든 것으로 톱니 날처럼 생겼다. 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충북 단양군 수양개유적에 살았던 당시 생활상을 추측해 볼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	갈돌과 갈판 礮石 石棒	갈돌과 갈판은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청동기시대까지 널리 사용했습니다. 도토리처럼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먹거리를 갈판 위에 올려놓고 갈돌로 갈았습니다. 갈돌은 긴 네모꼴 또는 원형의 돌을 사용하며, 갈판은 이처럼 편평하고 네모난 돌로 만듭니다. 이 갈돌은 가늘고 긴 네모꼴로,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청주 서쪽 쌍청리雙淸里에서 발견된 갈돌과 갈판은 청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미호천美湖川에서 살았던 신석기사람들의 음식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갈돌과 갈판은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청동기시대까지 널리 사용했습니다. 도토리처럼 딱딱한 껍데기를 가진 먹거리를 갈판 위에 올려놓고 갈돌로 갈았습니다. 갈돌은 긴 네모 모양의 돌 또는 원형의 돌을 사용합니다. 갈판은 평평하고 네모난 돌로 만듭니다. 이 갈돌은 가늘고 긴 네모 모양으로,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청주 서쪽 쌍청리雙淸里에서 발견된 갈돌과 갈판은 청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미호천美湖川에서 살았던 신석기사람들의 음식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긴 네모 갈판위에 도토리처럼 껍데기가 딱딱한 것을 올려두고 가늘고 긴 네모 모양으로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온 곳을 잡고 먹거리를 갈았다. 청주 쌍청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신석기사람들의 음식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6	빗살무늬 토기 櫛文土器	지금으로부터 약 만년 전인 신석기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생활을 했던 구석기시대와 달리 한 곳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그릇이 필요해서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띠를 쌓아 올려 만든 후 표면을 다듬고 빗처럼 생긴 도구로 토기 바깥 면에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뾰족한 바닥과 기하학적인 선 무늬를 새긴 그릇은 한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청주 서쪽 쌍청리雙淸里유적에서 출토된 이 빗살무늬토기를 보면서 후기 신석기시대에 미호천美湖川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만년 전인 신석기시대에는 이전에 사냥과 채집을 하며 이동생활을 했던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한 곳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그릇이 필요해서 이를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토기는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띠를 쌓아 올려 만든 후, 표면을 다듬고 빗처럼 생긴 도구로 토기 겉에 무늬를 새겨 넣었습니다. 뾰족한 바닥과 기하학적인 선 무늬를 새긴 그릇은 한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청주 서쪽 쌍청리雙淸里유적에서 출토된 이 빗살무늬토기를 보면서 후기 신석기시대에 미호천美湖川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고 조리하는 데 필요해서 만들게 된 그릇이다.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띠를 쌓아 올려 만든 후 표면을 다듬고 빗처럼 생긴 도구로 토기 겉에 무늬를 넣은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청주 쌍청리에서 발견되었으며 미호천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	가락바퀴 紡錘車	<p>흙으로 빚어 만든 가락바퀴로, 주판알 모양입니다. 가운데에 지름 0.5cm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양면 모두 2줄의 점열문點列文이 있습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도구로, 중앙의 둥근 구멍에 축이 될 막대를 넣어 고정시킨 다음 가락바퀴를 회전시키면 실이 늘어뜨려지는 순간 꼬이게 됩니다. 선사시대 의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처럼 점열문點列文이 새겨진 가락바퀴는 연해주 지역이나 두만강 유역 등 동북 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당시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교류 또는 이동 경로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p>	<p>주판알 모양의 흙으로 빚어 만든 가락바퀴입니다. 가운데에 지름 0.5cm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양면 모두 2줄의 점열문點列文이 있습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도구입니다. 중앙의 둥근 구멍에 축이 되는 막대를 넣어 고정시킨 다음 가락바퀴를 회전시키면 실이 늘어뜨려지는 순간 꼬이게 됩니다. 가락바퀴를 통해 선사시대의 의생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열문點列文이 새겨진 가락바퀴는 연해주 지역이나 두만강 유역 등 동북 지역의 신석기유적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당시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교류 또는 이동 경로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p>	<p>실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실을 만드는데 가장 오래된 도구로 흙으로 빚었으며 주판알 모양으로 가운데 지름 0.5cm의 구멍이 있으며 점줄무늬가 있다. 같은 모양의 가락바퀴가 연해주 지역이나 두만강 등에서 주로 발견되어 당시 사람들의 교류 또는 이동 경로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p>	
8	민무늬토기 항아리 無文土器壺	<p>기원전 10세기경부터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농경문화가 널리 퍼지고 커다란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는 다르게 무늬가 없다는 의미의 민무늬토기無文土器를 사용합니다. 청주 동쪽의 용정동龍亭洞 집터에서 이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약 3천년 전 미호천美湖川 일대를 비롯한 청주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민무늬토기無文土器를 만들며 살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p>	<p>기원전 10세기경부터 청동기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농경문화가 널리 퍼지고 커다란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청동기시대에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와는 다르게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無文土器를 사용했습니다. 청주 동쪽의 용정동龍亭洞 집터에서 이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약 3천년 전 미호천美湖川 일대를 비롯한 청주 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민무늬토기無文土器를 만들며 살았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p>	<p>청동기시대에 만들어 사용된 토기이다. 청주 용정동에서 발견하였으며 약 3천년 전 미호천과 청주지역에서 살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9	붉은간토기 赤色磨研土器	청동기시대에 사용한 민무늬토기無文土器의 일종인 붉은간토기입니다. 붉은간토기는 고운 흙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든 후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 붉은 광택을 냅니다. 이런 토기는 서북지방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집터를 비롯해서 고인돌이나 석관묘石棺墓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덤 안에 시신 옆에 놓아두었던 붉은간토기의 붉은 색은 사람의 피를 상징하며 내세의 부활과 재생을 바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청동기시대에 사용한 민무늬토기無文土器의 한 종류인 붉은간토기입니다. 붉은간토기는 고운 흙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들고,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 붉은 광택을 냅니다. 이런 토기는 서북지방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집터, 고인돌이나 석관묘石棺墓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운 흙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들고 표면에 산화철을 바르고 문질러 붉은 광택을 낸 토기이다. 청동기시대에 사용한 것으로 한반도 전역의 집터, 고인돌이나 석관묘에서 발견할 수 있다.	
10	반달돌칼 半月形石刀	청주의 동쪽 용정동龍亭洞 청동기시대 집터에서 발견한 반달돌칼입니다. 돌칼의 등 부분은 거의 직선에 가깝고, 날은 반달처럼 곡선을 이룹니다. 몸체에 뚫려 있는 두 개의 구멍에 끈을 끼워서 그 사이에 손을 넣어 돌칼을 잡고 사용합니다. 반달돌칼은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등장하는데요, 청동기시대 곡물 수확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농경구입니다. 이삭을 따는 데 쓰는데, 자르는 용도가 아니라 손에 쥐고 날을 이용하여 식물의 줄기를 꺾는 데 사용했습니다. 돌칼을 쓰다보면 날에 불규칙한 흠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청주의 동쪽 용정동龍亭洞의 청동기시대 집터에서 발견한 반달돌칼입니다. 돌칼의 등 부분은 거의 직선에 가깝고, 날은 반달처럼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쪽에 뚫려 있는 두 개의 구멍에 끈을 끼워서 그 사이에 손을 넣어 돌칼을 잡고 사용합니다. 반달돌칼은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등장하는데, 청동기시대에 곡물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농경구입니다. 이삭을 따는 데 사용하는데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날을 이용하여 식물의 줄기를 꺾는 데 사용했습니다. 돌칼을 사용하다보면 날에 불규칙한 흠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곡물을 수확할 때 사용하는 돌로 만든 칼이다. 안쪽에 뚫려있는 두 개의 구멍에 끈을 끼워 그 사이에 손을 넣어 칼을 잡아 사용하였다. 이삭을 따는 데 자르지 않고 식물의 줄기를 꺾는 데 사용하였다.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등장했으며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농경구(농사에 필요한 도구)로 청주 용정동 집터에서 발견하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1	홈자귀 유구 有溝石斧	이 홈자귀는 청주 봉명동鳳鳴洞 청동기시대 집터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긴 각목 형태에 외날을 가지고 있으며, 위쪽에는 자루에 묶어 쓸 수 있도록 오목한 홈을 만들었습니다. 날은 예리하며, 표면을 갈아 다듬어 매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고루 확인할 수 있는 홈자귀는 청동기시대 목재를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날을 자루와 같은 방향으로 끼우는 도끼와 다르게 날이 자루와 직각이 되도록 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벵농사 수용 시기에 키타큐슈北九州 지역으로 반달돌칼, 돌낫 등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청주 봉명동鳳鳴洞의 청동기시대 집터에서 발견한 홈자귀입니다. 긴 각목 형태에 외날을 가지고 있으며, 위쪽에는 자루에 묶어 쓸 수 있도록 오목한 홈을 만들었습니다. 날은 예리하며, 표면을 갈아 다듬어 매끄럽습니다. 또한 날은 자루와 직각이 되도록 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홈자귀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동기시대 목재를 가공하는 데 사용한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일본의 벵농사 수용 시기에 키타큐슈北九州 지역으로 반달돌칼, 돌낫 등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목재를 가공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위쪽에는 자루에 묶어 쓸 수 있는 오목한 홈이 있고 날카롭고 매끄러운 날이 한쪽에 있다. 날을 자루와 직각이 되도록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청주 봉명동에서 발견하였다.	
12	간돌검 磨製石劍	표면을 매끄럽게 잘 다듬은 간돌검은 청동기시대에 사용한 석기입니다. 부장품으로 무덤에 묻기도 하고 사냥도구나 무기로 실생활에 사용했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크게 만든 간돌검은 지배층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좌우대칭을 이루며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매우 예리한 날을 가진 이 간돌검은 날 가운데가 솟아 있어 잘라보면 단면이 볼록렌즈 모양입니다. 칼의 날과 자루의 경계가 뚜렷하며, 칼자루는 잘록한데 선이 아름답습니다.	간돌검은 표면을 매끄럽게 잘 다듬은 청동기시대의 석기입니다. 사냥도구나 무기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부장품으로 무덤에 묻기도 했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크게 만든 간돌검은 지배층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좌우대칭을 이루며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매우 예리한 날을 가진 이 간돌검은 날 가운데가 솟아 있어 잘라보면 단면이 볼록렌즈 모양입니다. 칼의 날과 자루의 경계가 뚜렷하며, 칼자루는 잘록한데 선이 아름답습니다.	표면을 매끄럽게 잘 다듬은 돌로 만든 검이다.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사냥도구나 무기로 실생활에 사용하고 죽은 사람의 무덤에 함께 묻기도 하였다. 불편할 정도로 크게 만든 것으로 보아 지배층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3	한국식동검 韓國式銅劍	청동기시대 둥근 형태의 비파형동검琵琶形銅劍과는 달리, 초기 철기시대부터 길고 날썸한 한국식동검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식동검은 검은간토기黑色磨研土器와 덧띠토기粘土帶土器와 함께 우리나라 초기철기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한국식동검은 칼날의 폭이 좁아 세형동검細形銅劍이라고도 합니다. 청주 비하동淸州飛下洞遺蹟과 충주忠州 본리本里에서 동검이 출토되었는데요, 칼날이 매우 예리하고 자루에 끼워 쓰는 것입니다.	한국식동검은 검은간토기黑色磨研土器와 덧띠토기粘土帶土器와 함께 우리나라 초기 철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한국식동검은 칼날의 폭이 좁아 세형동검細形銅劍이라고도 합니다. 칼날이 매우 예리하고 자루에 끼워 씁니다. 청주 비하동淸州飛下洞遺蹟과 충주忠州 본리本里에서 동검이 출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철기를 대표하는 한국식동검으로 칼날의 폭이 좁아 세형동검이라고도 한다. 청주 비하동과 충주 본리에서 발견되었으며 칼날이 매우 날카로우며 자루에 끼워 사용하는 것이다.	
14	말 모양 허리띠고리 馬形帶鉤	허리띠고리는 가죽이나 천으로 된 허리띠 양끝에 걸어 고정시키는 금속 장식입니다. 동물 모양 허리띠고리는 스키타이 등 유목문화권에서 유행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기원 전후에 호랑이나 말 모양을 본 뜬 허리띠 고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말 모양을 간략하게 만든 허리띠고리는 충청도 내륙지역의 마한馬韓시대 유적에서 주로 확인됩니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예가 많지만 철을 사용하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梧倉科學產業團地 내 송대리松垞里 널무덤에서 발견한 말 모양 허리띠고리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것으로, 머리에서 목으로 가는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되었고 귀와 갈기, 꼬리를 잘 표현했습니다.	허리띠고리는 가죽이나 천으로 된 허리띠 양끝에 걸어 고정시키는 금속 장식입니다. 동물 모양 허리띠고리는 스키타이 등 유목문화권에서 유행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기원 전후에 호랑이나 말 모양을 본 뜬 허리띠 고리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말 모양을 간략하게 만든 허리띠고리는 충청도 내륙지역의 마한馬韓시대 유적에서 주로 확인됩니다.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예가 많지만 철을 사용하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梧倉科學產業團地 내 송대리松垞里 널무덤에서 발견한 말 모양 허리띠고리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가는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되었고 귀와 갈기, 꼬리를 잘 표현했습니다.	가죽이나 천으로 만든 허리띠 양 끝에 걸어서 고정하는 말 모양의 금속 장식이다. 이것은 주로 마한시대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주 송대리 널무덤에서 발견하였다. 동물 모양의 허리띠 고리는 유목문화권에서 유행했으며 한반도에서도 기원 전후에 호랑이나 말 모양을 본 뜬 허리띠 고리를 만들어 사용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5	‘대길’ 이 새겨진 방울 大吉銘銅鐸	방울 가운데에 ‘대길’이라는 글자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는데요, 이는 “크게 길하다”는 뜻으로 좋은 일만 생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방울은 중국 한나라를 비롯하여 한사군漢四郡의 하나인 낙랑樂浪지역과 한성 백제기의 도읍지인 서울 지역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방울은 특이하게 청주 봉명동鳳鳴洞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첫 사례입니다. 봉명동鳳鳴洞은 3세기 중엽부터 4세기 초엽까지 마한馬韓과 초기 백제의 문화가 확인되는 지역입니다. 금강유역의 마한馬韓 세력 혹은 초기 백제 집단이 낙랑 또는 중국과 교류하면서 이 방울이 이곳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방울은 청주지역에서 발견된 문자가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 가치가 높습니다.	방울 가운데 ‘대길’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크게 길하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만 생기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방울은 중국 한나라를 비롯하여 한사군漢四郡의 하나인 낙랑樂浪지역과 한성 백제기의 도읍지인 서울 지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방울은 특이하게 청주 봉명동鳳鳴洞에서 출토되었고, 서울 외의 지역에서 출토된 첫 사례입니다. 봉명동鳳鳴洞은 3세기 중엽부터 4세기 초엽까지 마한馬韓과 초기 백제의 문화가 확인되는 지역으로 금강유역의 마한馬韓 세력 혹은 초기 백제 집단이 낙랑 또는 중국과 교류하면서 이 방울이 이곳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방울은 청주지역에서 발견된 문자가 있는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유물로 가치가 높습니다.	이 방울은 가운데 ‘대길(大吉)’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으며 그 의미는 ‘좋은 일만 생기라’는 뜻이다. 중국 한나라, 한사군의 낙랑지역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기에 서울 외의 지역인 청주 봉명동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청주지역에서 발견된 문자가 있는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가치가 높다. 봉명동은 3세기 중엽부터 4세기 초엽까지 마한과 초기 백제의 문화가 확인되는 지역으로 낙랑 또는 중국과 교류하면서 청주지역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6	말 탄 사람 장식 토기 騎馬人物裝飾土器	항아리나 독, 사발 모양 그릇들과는 달리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에 뚜껑을 갖춘 독특한 형상의 토기입니다. 컵 모양 그릇에 점토 띠로 만든 손잡이를 부착하고 그 위에 말을 탄 사람 모양 장식을 붙인 점이 독특합니다. 말을 타고 저승으로 가는 영혼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충주 금릉동金陵洞 무덤은 마한馬韓시대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시기의 유적으로 남한강유역의 마한馬韓세력과 새롭게 진출한 한강유역의 초기 백제문화를 알려주는 유적입니다.	항아리나 독, 사발 모양의 그릇들과 다르게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에 뚜껑이 있는 독특한 형상의 토기입니다. 컵 모양 그릇에 점토 띠로 만든 손잡이를 붙이고 그 위에 말을 탄 사람 모양 장식을 붙인 점이 독특합니다. 말을 타고 저승으로 가는 영혼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토기가 출토된 충주 금릉동金陵洞 무덤은 마한馬韓시대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시기의 유적으로 남한강유역의 마한馬韓세력과 새롭게 진출한 한강유역의 초기 백제문화를 알려주는 유적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컵 모양에 뚜껑이 있는 독특한 모양의 토기이다. 컵 모양 그릇에 점토 띠로 손잡이를 부착하고 말을 탄 사람 모양의 장식을 붙인 것이 독특하다. 충주 금릉동무덤은 마한시대에서 백제로 넘어가는 때의 유적으로 남한강 유역의 마한세력과 한강 유역의 초기 백제문화를 알려주는 유적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7	술 모양 토기 釜形土器	청주 봉명동鳳鳴洞 마한馬韓시대 널무덤 木棺墓에서 이 술 모양 토기가 발견되었 습니다. 적갈색의 무른 토기로, 몸체는 위 와 아래를 따로 만들어 접합한 것입니다. 두 부분이 맞닿는 곳에 0.5cm 정도의 두 툽한 테두리가 둘러져 있기에 마치 술처 럼 보입니다. 청주 봉명동鳳鳴洞 유적에 있는 마한馬韓시대 무덤과 출토품은 3~4 세기 무렵 청주지역의 문화상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술 모양 토기와 화로 모 양 토기, 구멍 뚫린 단지는 새롭게 나타나는 토기 양식이어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청주 봉명동鳳鳴洞 마한馬韓시대 널무덤 木棺墓에서 이 술 모양 토기가 발견되었 습니다. 적갈색의 무른 토기로, 위와 아 래를 따로 만들어 몸체로 결합하였습니 다. 두 부분이 맞닿는 곳에 0.5cm정도의 두툽한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 술처럼 보 이기도 합니다. 청주 봉명동鳳鳴洞 유적 에 있는 마한馬韓시대 무덤과 출토품은 3~4세기 무렵 청주지역의 문화상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술 모양 토기와 화로 모양 토기, 구멍 뚫린 단지는 새로 게 나타나는 토기 양식이어서 더욱 주목 할 만합니다.	몸체의 위와 아래가 따로 만들어 접합한 적갈색의 무른 토기이다. 두 부분이 맞닿는 곳에 0.5cm정도의 테 두리가 둘러 있어 마치 술처럼 보인다. 청주 봉명동 널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마한시대의 3~4세기 무렵 청주의 문화 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새롭게 나타나는 모양의 토기여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18	쇠뿔 손잡이 단지 牛角形把手 附壺	진천鎮川 송두리松斗里 삼한시대三韓時 代 널무덤木棺墓에서 발견된 토기입니다. 회백색을 띠는 무른 토기로,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만들었습니다. 둥근 몸체에 쇠뿔 모양 손잡이를 양쪽으로 붙였습니다. 삼한 시기에는 영남지역에서 이러한 토기 를 널리 사용했는데요, 소백산맥 이북에서 이러한 토기를 발견한 예는 진천 송두리 가 처음입니다. 영남지역과의 교류의 산물 로 볼 수 있습니다.	진천鎮川 송두리松斗里 삼한시대三韓時 代 널무덤木棺墓에서 발견된 토기입니다. 회백색의 무른 토기로,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만들었습니다. 둥근 몸체에 쇠뿔 모양 손잡이가 양쪽에 있습니다. 삼한 시 기에는 영남지역에서 이러한 토기를 널 리 사용하였는데, 소백산맥 이북에서 이 와 같은 토기를 발견한 것은 진천 송두 리가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과 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로 만들어진 회백 색의 무른 토기이다. 둥근 몸체에 쇠뿔 모양 손잡이를 양쪽에 붙인 모양이다. 진천 송두리의 삼한시대 널무덤에서 발 견되었으며 특히 소백산맥 이북에서 발 견된 것은 처음이다. 영남지역과의 교류 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9	손잡이 잔 把杯	청주 신봉동新鳳洞 백제 무덤에서 발견한 손잡이 잔입니다. 말 머리 모양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 잔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백제의 손잡이 잔은 다른 지역 손잡이 잔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손잡이 잔에는 가로 방향의 돌대突帶나 음각의 가로줄이 있는데요, 용량을 표시하기 위한 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잡이 잔은 일종의 도량형기로 어떠한 물건을 동일한 양으로 배분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청주 신봉동新鳳洞 백제 무덤에서 발견한 손잡이 잔입니다. 말 머리 모양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 잔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백제의 경우 다른 지역의 손잡이 잔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손잡이 잔에는 가로 방향의 돌대突帶나 음각의 가로줄이 있는데요, 이는 용량을 표시하기 위한 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잡이 잔은 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량형기로 어떠한 물건을 동일한 양으로 배분하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말머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있는 잔이다. 청주 신봉동 백제 무덤에서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백제의 것은 다른 지역 것보다 큰 편이다. 가로 방향의 돌대(양각 띠)나 음각의 가로줄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물건을 동일한 양으로 배분하기 위해 표시했던 눈금으로 볼 수 있다.	
20	갑옷 鐵甲	이 갑옷은 충북 음성陰城 망이산성望夷山城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철판을 엮어 만든 갑옷으로 총 일곱 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 철판은 못을 박아 고정했고, 한쪽 측면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 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있는데요, 아마도 판갑板甲 형태 갑옷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착용 후 끈을 매달아 사용했을 것입니다. 망이산성望夷山城은 충북 음성陰城, 경기 안성安城 일대에 위치한 마이산馬耳山 정상부에 있는데요, 이 갑옷의 존재로 망이산성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의 상태로 출토되어 백제 갑옷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치가 높습니다.	철판을 엮어 만들었고 총 일곱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철판은 못을 박아 고정하였고, 한쪽 측면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 부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있는데요, 이는 판갑板甲 형태 갑옷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갑옷을 입은 후 끈을 매달아 고정했을 것입니다. 이 갑옷은 충북 음성陰城 망이산성望夷山城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망이산성望夷山城은 충북 음성陰城, 경기 안성安城 일대에 위치한 마이산馬耳山 정상부에 있는데요, 이 갑옷의 존재로 망이산성이 군사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훼손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출토되어 백제 갑옷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어 가치가 높습니다.	철판을 엮어 만든 갑옷으로 총 일곱 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철판은 못을 박아 고정했고 한쪽 측면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어깨와 옆구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있는데요 아마도 착용 후 끈을 이용해 사용했을 것이다. 발견한 곳은 충북 음성과 경기 안성에 있는 마이산 정상부의 망이산성으로 군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원래의 상태로 출토되어 백제 갑옷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1	동관 銅冠	<p>충북지역 동북쪽에 있는 단양군丹陽郡 하리下里에서 발견한 동으로 만든 신라관입니다. 경주 등 신라의 왕경王京 지역 관은 대부분 금, 금동, 은으로 만들지만, 이 관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라 세력권에 있었던 지역 통치 세력에게 준 관이기 때문입니다. 관 테두리에 열매를 상징하는 영락瓔珞가 달린 세움 장식立飾이 네 개 있는데 매우 단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라관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이기에, 이 관을 7세기 초 전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7세기 초는 신라가 남한강 일대를 확보하여 지배력을 확산해가던 시기입니다. 신라의 지배력이 단양지역까지 미쳤음을 이 동관의 출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충북지역 동북쪽의 단양군丹陽郡 하리下里에서 발견한 동으로 만든 신라관입니다. 경주 등 신라의 왕경王京 지역 관은 대부분 금, 금동, 은으로 만들지만 이 관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라 세력권에 있었던 지역의 통치 세력에게 준 관이기 때문입니다. 관 테두리에 열매를 상징하는 장식이 네 개가 있는데 매우 단순한 형태입니다.</p> <p>이러한 모습은 신라관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 관을 7세기 초 전후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7세기 초는 신라가 남한강 일대를 확보하여 지배력을 확산해가던 시기입니다. 신라의 지배력이 단양지역까지 미쳤음을 이 동관의 출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동으로 만든 관이다.</p> <p>충북 단양군 하리에서 발견한 신라시대의 것이다.</p> <p>관 테두리에 열매를 상징하는 장식이 네 개가 있다.</p> <p>신라 마지막 즈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7세기 전후에 제작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p> <p>7세기 초는 신라가 남한강을 확보하여 지배세력을 확산하던 때로 단양까지 그 힘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2	계유가 새겨진 아미타 불비상 癸酉銘全氏阿 彌陀佛碑像	<p>불비상은 비석처럼 생긴 돌에 불교조각상과 발원문發願文을 새긴 것으로 통일신라시기 불비상이 총 일곱 점 남아있습니다. 모두 흑회색의 납석이고, 조각솜씨와 수법이 비슷하며, 현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인 연기군燕岐郡 지역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계유癸酉’라는 간기가 새겨진 이 불비상佛碑像 네 면에는 조각상과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아미타불 극락정토 장면, 양 측면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天人像과 용, 뒷면에는 20구의 작은 부처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새겨진 제작 시기와 목적,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관직명으로 당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유년 사월癸酉年 四月’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로 인해 백제 멸망 후인 673년에 이 불비상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각의 내용이 다양하고 솜씨가 좋으며, 제작 시기와 목적, 제작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발원문이 있어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p>	<p>현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인 연기군燕岐郡 지역에서 발견한 불비상입니다. 불비상은 비석처럼 생긴 돌에 불교조각상과 발원문發願文을 새긴 것입니다. 통일신라시기 불비상은 총 일곱 점 남아 있습니다. 모두 흑회색의 납석이고, 조각솜씨와 수법이 비슷합니다. ‘계유癸酉’라는 간기가 새겨진 이 불비상佛碑像의 네 면에는 조각상과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아미타불 극락정토 장면, 양 측면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天人像과 용, 뒷면에는 20구의 작은 부처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새겨진 제작 시기와 목적,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관직명으로 당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유년 사월癸酉年 四月’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로 인해 백제 멸망 후인 673년에 이 불비상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각의 내용이 다양하고 솜씨가 좋으며, 제작 시기와 목적, 제작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발원문이 있어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p>	<p>비석모양의 돌에 불교조각상과 발원문(기도문)이 새겨진 불비상(직육면체의 형태로, 전후좌우의 4면에 불상을 조각한 비석)이다.</p> <p>세종특별자치시 연기군에서 발견하였으며 ‘계유년 사월’라고 제작 시기가 새겨져 있어 백제 멸망 후인 673년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p> <p>곳곳에 새겨진 제작 시기와 목적,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관직명으로 당시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다.</p> <p>조각의 내용이 다양하고 솜씨가 좋으며 제작 시기와 목적, 제작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국보로 지정되어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3	기축이 새겨진 불비상 己丑銘阿彌陀佛碑像	‘기축己丑’이라는 간기가 새겨진 이 불비상 앞면에는 부처를 조각하고 뒷면에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장엄하게 표현했습니다. 난간 위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자와 사자상이 있고, 가운데에 연꽃과 결합한 향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아미타불이 앉아 있습니다. 아미타불 좌우로 보살과 나한 등이 있고 위쪽에는 앉아 있는 작은 부처상들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기축년 이월 십오일에 칠세부모를 위해 만들었다己丑年二月十五日此爲七世父母”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축년을 689년으로 봅니다. 이 불비상은 한국에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최초의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축己丑’이라는 간기가 새겨진 이 불비상은 앞면에 부처를 조각하고 뒷면에는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장엄하게 표현했습니다. 난간 위에는 무릎을 꿇고 있는 공양자와 사자상이 있고, 가운데에 연꽃과 결합한 향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아미타불이 앉아 있습니다. 아미타불 좌우로 보살과 나한 등이 있고 위쪽에는 앉아 있는 작은 부처상들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기축년 이월 십오일에 칠세부모를 위해 만들었다己丑年二月十五日此爲七世父母”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기축년을 689년으로 봅니다. 이 불비상은 한국에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최초의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부처를 조각하고 뒷면에는 글자를 새겨 넣은 불비상(직육면체의 형태로, 전후좌우의 4면에 불상을 조각한 비석)이다. 뒷면에는 ‘기축년 이월 십오일에 칠세부모를 위해 만들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 68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정토를 장엄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한국 최초의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24	생각하는 부처가 새겨진 불비상 彌勒菩薩半跏思惟碑像	이 불비상에는 생각하는 부처상인 반가사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이란 한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얹고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형상으로, 도를 깨닫기 전의 부처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초까지 유행했습니다. 불비상 양 측면에는 연꽃봉오리를 든 보살상이 있고 뒷면에는 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정면과 측면 아래쪽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공양자상이 보입니다. 이 불비상에는 제작 시기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글이 없지만, 다른 불비상들과 조각기법, 재질이 유사하여 통일신라 초에 제작한 것으로 봅니다.	이 불비상에는 생각하는 부처상인 반가사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이란 한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얹고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형상으로, 도를 깨닫기 전의 부처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초까지 유행했습니다. 불비상 양 측면에는 연꽃봉오리를 든 보살상이 있고 뒷면에는 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정면과 측면 아래쪽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공양자상이 보입니다. 이 불비상에는 제작 시기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글이 없지만, 다른 불비상들과 조각기법, 재질이 유사하여 통일신라 초에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부처상인 반가사유상이 새겨져 있는 불비상(직육면체의 형태로, 전후좌우의 4면에 불상을 조각한 비석)이다. 양쪽 측면에는 연꽃봉오리를 든 보살상이 있고 뒷면에는 탑이 조각되어 있으며, 정면과 측면 아래쪽에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공양자상이 보인다. 제작 시기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글은 없지만, 다른 불비상과 조각기법과 재질이 유사하여 통일신라 초에 제작한 것으로 본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5	청주 운천동 신라 사적비 淸州雲泉洞 新羅事蹟碑	이 비에는 통일신라시대 청주 운천동淸州雲泉洞에 있었던 어느 사찰 관련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는 빨랫돌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2년 마을 주민들이 신고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적비 앞면과 뒷면, 옆면에는 해서체楷書體의 글자가 있습니다. 마모가 심하여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부처를 받들고 임금의 덕을 칭송하며 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리는 내용입니다. 청주지역 비문碑文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특히 ‘수공垂拱 2년’이란 연호가 있어 신문왕神文王 6년인 686년에 이 비를 만들었으며, 685년 청주가 서원경西原京이 되면서, 이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에는 통일신라시대 청주 운천동淸州雲泉洞에 있었던 어느 사찰 관련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는 빨랫돌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2년 마을 주민들이 신고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적비 앞면과 뒷면, 옆면에는 해서체楷書體의 글자가 있습니다. 마모가 심하여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부처를 받들고 임금의 덕을 칭송하며 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리는 내용입니다. 청주지역 비문碑文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특히 ‘수공垂拱 2년’이란 연호가 있어 신문왕神文王 6년인 686년에 이 비를 만들었으며, 685년 청주가 서원경西原京이 되면서, 이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 운천동의 어느 사찰과 관련된 기록이 새겨져 있는 것이다. 빨랫돌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2년 마을 주민들이 신고하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마모가 심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처를 받들고 임금의 덕을 칭송하며 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리는 내용이다. 청주의 비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수공 2년’이라고 새겨져 있어 신문왕 6년인 686년에 만들었으며 685년 청주가 서원경이 되면서, 중심도시로의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6	청주 운천동 출토 청동 종 淸州雲泉洞 出土銅鐘	보물 1167호로 지정된 청주 운천동雲泉洞 출토 종은 상원사上院寺 중, 성덕대왕신종成德大王神鍾과 함께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 세 개의 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종은 절에서 시간을 알릴 때나 의식을 행할 때 쳐서 소리를 내는 의식용 도구입니다. 종을 칠 때 닿는 부분인 당좌는 연꽃과 넝쿨무늬로 이루어 있고, 그 위쪽에 천의天衣 자락을 휘날리며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비천상飛天像이 있습니다. 종 윗부분의 용 모양 고리와 비천상과 종 몸통의 당좌의 모양에서 통일신라 종의 특징을 찾을 수 있으며, 화염보주火焰寶珠와 새, 꽃문양은 고려시대와 이어지는 통일신라 말기의 변화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청주 운천동雲泉洞에서 출토된 이 청동 종은 보물 116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종은 성덕대왕신종成德大王神鍾과 함께 현재 한국에 남아 있는 통일신라시대 세 개의 종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종은 절에서 시간을 알릴 때나 의식을 행할 때 쳐서 소리를 내는 의식용 도구입니다. 종을 칠 때 닿는 부분인 당좌는 연꽃과 넝쿨무늬로 이루어 있고, 그 위쪽에 천의天衣 자락을 휘날리며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비천상飛天像이 있습니다. 종 윗부분의 용 모양 고리와 비천상, 종 몸통의 당좌 모양에서 통일신라 종의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염보주火焰寶珠와 새, 꽃문양은 고려시대와 이어지는 통일신라 말기의 변화된 특징을 보여줍니다.	절에서 시간을 알릴 때나 의식을 행할 때 쳐서 소리로 알리는 종이다.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세 개의 종의 하나이며 그 중 하나이다. 종을 칠 때 닿는 부분에는 연꽃과 넝쿨무늬가 있고 그 위쪽에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피리를 연주하는 비천상(하늘을 떠다니는 신선)이 있다. 종 윗부분과 몸통 모양, 새와 꽃문양 등에서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변화된 특징을 볼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7	‘홍덕사’가 새겨진 청동 금고 興德寺銘靑 銅金鼓	<p>금고는 사찰에서 소리를 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징과 같은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주로 공양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금고 옆면에는 “갑인년 5월 서원부 홍덕사 금구 하나를 다시 만들었는데 구리 32근이 들어갔다甲寅年月日西原付興德寺禁口臺坐改造入重三拾貳斤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금고가 만들어진 홍덕사는 금속활자로 찍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직지直指』를 인쇄한 곳인데, 안타깝게도 이 금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홍덕사 관련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서 절의 위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986년 ‘홍덕사’라는 절 이름이 새겨진 이 금고가 발견되어서 홍덕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 금고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p>	<p>금고는 사찰에서 소리를 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징과 같은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주로 공양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금고 옆면에는 “갑인년 5월 서원부 홍덕사 금구 하나를 다시 만들었는데 구리 32근이 들어갔다甲寅年月日西原付興德寺禁口臺坐改造入重三拾貳斤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금고가 만들어진 홍덕사는 금속활자로 찍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직지直指』를 인쇄한 곳인데, 안타깝게도 이 금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홍덕사 관련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서 절의 위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986년 ‘홍덕사’라는 절 이름이 새겨진 이 금고가 발견되어서 홍덕사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 금고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p>	<p>징과 같은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사찰 도구이다. 주로 식사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으는데 사용했다. 옆면에 새겨진 “갑인년 5월 서원부 홍덕사 금구 하나를 다시 만들었는데 구리 32근이 들어갔다”라는 글귀가 있어 중요하다. 홍덕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를 인쇄한 곳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홍덕사와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어 절의 위치도 알 수 없었다. 1986년 ‘홍덕사’라는 절의 이름이 새겨져있는 이것을 발견하여 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 가치가 매우 높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8	‘홍덕사’가 새겨진 청동 발우 興德寺銘靑銅鉢盂	발우는 승려가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이 발우의 바깥 면 윗부분에 “1150년인 황통 10년 경오 4월에 홍덕사 승려인 영인이 왕생 정토를 위해 발우 하나를 만들어 바치는 데 들어간 구리가 2근 6량이다皇統十年庚午四月日興德寺依止重大師領仁往生淨土之愿佛鉢一盒具銀雲入重二斤六兩印”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1986년 청주 운천동에서 ‘홍덕사’가 새겨진 금고와 이 발우를 발견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를 인쇄한 홍덕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발우는 승려가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이 발우의 바깥 면 윗부분에 “1150년인 황통 10년 경오 4월에 홍덕사 승려인 영인이 왕생 정토를 위해 발우 하나를 만들어 바치는 데 들어간 구리가 2근 6량이다皇統十年庚午四月日興德寺依止重大師領仁往生淨土之愿佛鉢一盒具銀雲入重二斤六兩印”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1986년 청주 운천동에서 ‘홍덕사’가 새겨진 금고와 이 발우를 발견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를 인쇄한 홍덕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승려가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릇이다. 바깥 면 윗부분에 “1150년인 황통 10년 경오 4월에 홍덕사 승려인 영인이 왕생 정토(죽어서 극락에 다시 태어남)를 위해 발우 하나를 만들어 바치는데 들어간 구리가 2근 6량이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1986년 청주 운천동에서 ‘홍덕사’가 새겨진 발우를 발견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를 인쇄한 홍덕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	
29	용머리모양 당간 장식 靑銅龍頭幢竿裝飾	당간은 절 입구나 마당에 세워두는 기둥입니다. 법회 등의 의식이 있을 때 깃발을 다는 데 사용합니다. 끝부분을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하곤 하는데, 이를 용두보당龍頭寶幢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머리 모양의 당간 장식은 절 밖에 설치하는 당간을 작게 만든 공예품입니다. 여의주를 물은 용의 입 앞에 작은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 깃발을 매달았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크기가 작아서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장식용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간은 절 입구나 마당에 세워두는 기둥입니다. 법회 등의 의식이 있을 때는 깃발을 다는 데 사용합니다. 끝부분을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하곤 하는데, 이를 용두보당龍頭寶幢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머리 모양의 당간 장식은 절 밖에 설치하는 당간을 작게 만든 공예품입니다. 여의주를 물은 용의 입 앞에 작은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실제 깃발을 매달았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크기가 작아서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장식용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절 입구나 마당에 세워두는 기둥이다. 법회 등의 의식이 있을 때 깃발을 다는 데 사용한다. 끝부분을 용머리 모양으로 장식한 것을 ‘용두보당’이라고 한다. 이것은 절 밖에 설치하는 기둥을 작게 공예품으로 만든 것이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장식용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0	망새 望瓦 (鷗尾)	망새는 전통 기와집의 지붕마루 끝에 올려서 장식하는 기와입니다. 수리의 머리와 닮아서 취두 또는 취와라고도 부릅니다. 망새로 장식하면 건물이 보다 웅장하게 보입니다. 망새는 건물의 위엄을 상징하며, 건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안전을 기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주 흥덕사 망새는 옆면에 몸통과 깃 부분을 구분하는 굽은 선을 두고, 바깥 부분에는 날짐승의 깃털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망새는 특히 새의 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치미라고도 부릅니다.	망새는 기와의 일종으로 전통 기와집의 지붕마루 끝에 올려서 장식하는 기와입니다. 수리의 머리와 닮아서 취두 또는 취와라고도 부릅니다. 망새로 장식하면 건물이 보다 웅장하게 보입니다. 망새는 건물의 위엄을 상징하며, 건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안전을 기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주 흥덕사 망새는 옆면에 몸통과 깃 부분을 구분하는 굽은 선을 두고, 바깥 부분에는 날짐승의 깃털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망새는 특히 새의 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치미라고도 부릅니다.	전통 기와집의 지붕마루 끝에 올려서 장식하는 기와이다. 모양이 수리의 머리와 닮아서 취두 또는 취와라고 부른다. 이것은 건물의 위엄을 상징하며 건물의 안전을 기원하는 목적이 있다. 충주 흥덕사의 망새로 옆면에 몸통과 깃 부분을 구분하는 굽은 선이 있고, 바깥 부분에 날짐승의 깃털 모양이 표현되어 있다.	
31	‘사내사’가 새겨진 청동 향완 思內寺銘靑銅香垸	향을 피워 올리는 공양구인 향로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입구의 테두리가 넓게 벌어지고 나팔 모양의 받침이 달린 향로가 유행했는데, 이를 특별히 향완이라고 부릅니다. 향완의 넓게 벌어진 테두리 아랫면에 절 이름, 만든 시기, 제작자 등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사내사思內寺’가 새겨진 청동 향완 역시 테두리 아랫면에 “경신 2월 일 호장 한경필과 호정 한억이 함께 향완 하나를 주조했는데 무게가 1근 5량이고 사내사 탑전에 바치다庚申二月日戶長韓鯁彌戶正韓億同心鑄成香垸一重一斤五兩施納思內寺塔殿”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내사思內寺’라는 절에서 사용한 향로라는 사실과 함께 발원자의 이름, 주조하는 데 들어간 구리 무게, 사용 공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향완은 향을 피워 올리는 공양구인 향로의 한 종류입니다. 고려시대의 향로는 입구의 테두리가 넓게 벌어지고 나팔 모양의 받침이 달린 모양이 유행했는데, 이를 특별히 향완이라고 부릅니다. 향완의 넓게 벌어진 테두리 아랫면에 절 이름, 만든 시기, 제작자 등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사내사思內寺’가 새겨진 청동 향완 역시 테두리 아랫면에 “경신 2월 일 호장 한경필과 호정 한억이 함께 향완 하나를 주조했는데 무게가 1근 5량이고 사내사 탑전에 바치다庚申二月日戶長韓鯁彌戶正韓億同心鑄成香垸一重一斤五兩施納思內寺塔殿”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내사思內寺’라는 절에서 사용한 향로라는 사실과 함께 발원자의 이름, 주조하는 데 들어간 구리 무게, 사용 공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을 피워 올리는 향로의 일종인 향완이다. 향완은 입구의 테두리가 넓게 벌어지고 나팔 모양의 받침이 달린 모양으로 고려시대 때 유행했다. 향완의 넓은 테두리 아랫면에 절 이름, 만든 시기, 제작자 등을 새겨 넣기도 했다. 이 청동 향완도 테두리 아랫면에 “경신 2월 일 호장 한경필과 호정 한억이 함께 향완 하나를 주조했는데, 무게가 1근 5량이고 사내사 탑전에 바치다”라는 글이 있어서 ‘사내사’라는 절에서 사용했다는 사실과 함께 발원자의 이름, 주조하는 데 들어간 구리 무게, 사용 공간 등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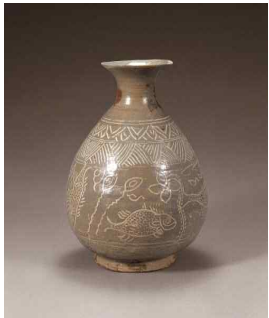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2	‘사내사’ 가 새겨진 청동 향로 思內寺銘青 銅香爐	향로는 부처 앞에 향을 피워 공양하는 공양구입니다. 인도에서는 악취를 없애고 습기를 제거하는 데에 사용했으나 점차 수행자들이 지니고 다니게 되면서 불단에 올리는 공양구가 되었습니다. 이 향로는 굽이 달린 발에 연꽃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에는 여의두 모양의 향 연기 구멍이 세 군데 뚫려 있습니다. 굽 아래에는 “사내사 나한당 향로를 무오년에 만들다靑州思內寺羅堂香戊午年造”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절의 이름과 사용처,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향로는 부처 앞에 향을 피워 공양하는 공양구입니다. 인도에서는 악취를 없애고 습기를 제거하는 데에 사용했으나 점차 수행자들이 지니고 다니게 되면서 불단에 올리는 공양구가 되었습니다. 이 향로는 굽이 달린 발에 연꽃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에는 여의두 모양의 향 연기 구멍이 세 군데 뚫려 있습니다. 굽 아래에는 “사내사 나한당 향로를 무오년에 만들다靑州思內寺羅堂香戊午年造”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절의 이름과 사용처,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 앞에 향을 피워 공양할 때 사용하는 그릇인 향로이다. 향로는 인도에서 악취를 없애고 습기를 제거하는 데에 사용했으나 수행자들이 지니고 다니게 되면서 불단에 올리게 되었다. 이 향로는 굽이 달린 발에 연꽃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있는 뚜껑이 있다. 뚜껑에는 여의두(心자를 나타내는 고사리 모양의 문양) 모양의 향 연기 구멍이 세 군데 뚫려 있다. 굽 아래에 “사내사 나한당 향로를 무오년에 만들다”라고 새겨져 있어 절의 이름과 사용처,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다.	
33	청동 종 靑銅鍾	종은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이나 중요한 법회 등 의식 때 치는 도구입니다. 이 종은 1993년 청주시 사직동社稷洞 무심천無心川 도로 공사장의 커다란 구덩이 안에서 금고, 향로, 발우 등 절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청주 사뇌사에서 사용한 이 종은 위아래 띠 부분과 상단의 연곽이 모두 넝쿨무늬로 장식되어 통일신라시대 전통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중기 이후 종의 특징인 어깨 부분의 입체적 꽃잎무늬가 보이지 않아 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작은 크기의 종을 많이 만들었으며, 주로 법당 안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종은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이나 중요한 법회 등 의식 때 치는 도구입니다. 이 종은 1993년 청주시 사직동社稷洞 무심천無心川 도로 공사장의 커다란 구덩이 안에서 금고, 향로, 발우 등 절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청주 사뇌사에서 사용한 이 종은 위아래 띠 부분과 상단의 연곽이 모두 넝쿨무늬로 장식되어 통일신라시대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중기 이후 종의 특징인 어깨 부분의 입체적 꽃잎무늬가 보이지 않아 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작은 크기의 종을 많이 만들었으며, 주로 법당 안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종은 1993년 청주시 사직동 무심천도로 공사장의 큰 구덩이에서 금고, 향로, 발우 등 절에서 사용하는 의식도구와 함께 발견되었다. 종은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이나 중요한 법회 때 치는 도구이다. 이 종은 청주 사뇌사에서 사용한 것이다. 위아래 띠 부분과 상단의 연곽이 모두 넝쿨무늬로 장식되어 통일신라시대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중기 이후 종의 특징인 어깨 부분의 입체적 꽃잎무늬가 보이지 않아 고려 중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작은 종을 많이 만들었고 주로 법당 안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4	‘사뇌사’가 새겨진 청동 금고 思惱寺銘靑銅金鼓	금고는 소리를 내는 의식구 중 하나로, 주로 공양시간을 알리거나 대중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합니다. ‘사뇌사思惱寺’가 새겨진 금고는 위쪽과 양 옆면에 모두 3개의 고리가 달려 있으며, 앞면에는 커다란 연꽃을 가운데 두고 그 바깥에는 당초무늬로 장식했습니다. 옆면에는 “기유년 5월 24일 사뇌사 반자 1개를 만드는 데 구리 35근이 들어갔으며, 부호장동정 곽무가 주관하고 장인 김선이 만들다己酉年五月廿四日思惱寺半子一口入重參拾伍斤揀梁副戶長同正郭務大匠金先造“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뇌사思惱寺’라는 절에서 사용했으며, 금고金鼓를 당시에는 반자半子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고는 소리를 내는 의식구 중 하나로, 주로 공양시간을 알리거나 대중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합니다. ‘사뇌사思惱寺’가 새겨진 금고는 위쪽과 양 옆면에 모두 3개의 고리가 달려 있으며, 앞면에는 커다란 연꽃을 가운데 두고 그 바깥에는 당초무늬로 장식했습니다. 옆면에는 “기유년 5월 24일 사뇌사 반자 1개를 만드는 데 구리 35근이 들어갔으며, 부호장동정 곽무가 주관하고 장인 김선이 만들다己酉年五月廿四日思惱寺半子一口入重參拾伍斤揀梁副戶長同正郭務大匠金先造“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뇌사思惱寺’라는 절에서 사용했으며, 금고金鼓를 당시에는 반자半子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뇌사’가 새겨진 금고이다. 공양(시주할 물건을 올리는 것)시간을 알리거나, 대중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위쪽과 양 옆면에 모두 3개의 고리가 달려 있으며, 앞면에는 커다란 연꽃을 가운데 두고 그 바깥에는 당초무늬로 장식했다. 옆면에는 “기유년 5월 24일 사뇌사 반자 1개를 만드는 데 구리 35근이 들어갔고, 부호장동정 곽무가 주관하고 장인 김선이 만들다“라고 새겨져 있다. 이를 보아 ‘사뇌사’라는 절에서 사용했고 금고를 ‘반자’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35	청동 거는 향로 靑銅懸香爐	향로香爐는 향을 피워 올리는 공양구供養具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향로는 불단 위에 올려놓는 향로香爐와 달리 걸거나 매달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으며, 몸체가 둥근 점이 독특합니다. 이 향로의 뚜껑에는 연꽃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있으며 여의두 모양의 연기가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몸체 양옆에 달린 고리에 끼워진 손잡이 끝도 연꽃봉오리 모양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세련된 고리 장식, 안정감 있는 둥근 몸체를 가진 이 향로는 균형미가 매우 뛰어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향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향로는 부처 앞에 향을 피워 공양하는 공양구로,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 향로는 불단 위에 올려놓는 향로와 달리 걸거나 매달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몸체가 둥근 점도 독특합니다. 이 향로의 뚜껑에는 연꽃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있으며 여의두 모양의 연기가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몸체 양옆에 달린 고리에 끼워진 손잡이 끝도 연꽃봉오리 모양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세련된 고리 장식, 안정감 있는 둥근 몸체를 가진 이 향로는 균형미가 매우 뛰어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향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향로는 부처 앞에 향을 피워 공양할 때 사용하는 그릇(공양구)으로 다양한 모양이 있다. 이 향로는 불단 위에 올려놓는 향로와 달리 걸거나 매달 수 있게 고리가 있다. 몸체가 둥근 점도 독특하다. 향로의 뚜껑에는 연꽃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있으며 여의두(心자를 나타내는 고사리 모양의 문양) 모양의 연기 나가는 구멍이 있다. 몸체 양옆에 달린 고리에 끼워진 손잡이 끝도 연꽃봉오리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세련된 고리 장식, 안정감 있는 몸체를 지니고 있으며 균형미가 뛰어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향로 중에 하나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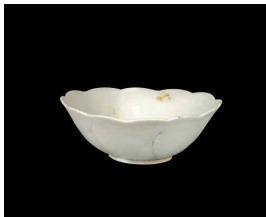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6	청동 금강령 靑銅金剛鈴	금강령은 금강저와 함께 불교 의식에서 쓰이는 도구입니다. 의식 때 소리를 내는 데 사용하며, 손잡이가 금강저와 같은 모양으로 종과 금강저가 합쳐진 모양입니다. 금강령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마음에 깃든 번뇌를 없애는 보리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뇌사思惱寺 금강령은 몸체에 두 명의 천인과 악귀를 밟고 있는 사천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고기 얼굴 모양의 설을 내부에 달아서 소리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금강령은 고려시대 말기에 중국 원나라에서 들어온 라마교의 영향으로 유행했습니다.	금강령은 금강저와 함께 불교 의식 때 소리를 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금강령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마음에 깃든 번뇌를 없애는 보리심菩提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금강령은 몸체에 두 명의 천인과 악귀를 밟고 있는 사천왕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고기 얼굴 모양의 설을 내부에 달아서 소리가 나도록 하였습니다. 금강령은 고려시대 말기에 중국 원나라에서 들어온 라마교의 영향으로 유행했습니다.	이 금강령은 종과 금강저 모양의 손잡이가 합쳐진 것으로써 불교 의식 때 소리를 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것은 금강과 같은 지혜로 마음에 깃든 번뇌를 없애는 보리심(깨달음을 얻는 마음)을 상징한다. 금강령 몸체에는 두 명의 천인과 악귀를 밟고 있는 사천왕(4명의 수호신)이 새겨져 있다. 물고기 얼굴 모양의 설을 안쪽에 달아 소리가 나도록 하였다. 금강령은 고려시대 말기에 중국 원나라에서 들어온 라마교의 영향으로 유행했다.	
37	‘사뇌사’가 새겨진 청동 기름말 思惱寺銘靑 銅油斗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 말은 도량기입니다. 원통형의 몸체 옆면은 2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청주목관에서 사뇌사에 전하는 기름말을 바르게 고치다靑州牧官平校思惱寺傳受油斗印”라는 글과 “주지 중대사 종상이 다시 만들다住持重大師宗常加成”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감독을 한 부사副使, 판관判官, 사록司錄의 직책과 서명이 함께 있습니다. 기름말을 확인하고 공문서 형식으로 확인 서명을 새겨둔 것이 특이합니다. 이 기름말은 고려시대 국가와 지방관청에서 저울과 도량기를 검사하고 바로 잡았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 도량기입니다. 원통형의 몸체 옆면은 2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청주목관에서 사뇌사에 전하는 기름말을 바르게 고치다靑州牧官平校思惱寺傳受油斗印”라는 글과 “주지 중대사 종상이 다시 만들다住持重大師宗常加成”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감독을 한 부사副使, 판관判官, 사록司錄의 직책과 서명이 함께 있습니다. 기름말을 확인하고 공문서 형식으로 확인 서명을 새겨둔 것이 특이합니다. 이 기름말은 고려시대 국가와 지방관청에서 저울과 도량기를 검사하고 바로 잡았다는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로 기름말이다. 원통형의 몸체 옆면은 2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위쪽에는 “청주목관에서 사뇌사에 전하는 기름말을 바르게 고치다”라는 글과 “주지 중대사 종상이 다시 만들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아래쪽에는 감독을 한 부사, 판관, 사록의 직책과 서명이 있다. 기름말을 확인하고 공문서 형식으로 확인 서명을 새긴 것이 특이하다. 이 기름말은 고려시대 국가와 지방관청에서 저울과 도량기(양을 측정하는 도구)를 검사하고 바로 잡았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8	맷돌 石磑	청주 사뇌사思惱寺 유물과 함께 발견된 맷돌입니다. 몸체는 원통모양으로, 옆면 중앙에 맷돌 자루인 어처구니를 끼우기 위한 네모난 구멍을 뚫려 있고 구멍 주변은 양각으로 연꽃잎 모양을 표현하였습니다. 받침은 몸체와 맞닿는 면을 원반형으로 돌출시키고, 그 주위에 홈을 돌려 돌출된 주구로 갈아진 내용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처가 알려진 유일한 고려시대 맷돌입니다.	청주 사뇌사思惱寺 유물과 함께 발견된 맷돌입니다. 몸체는 원통모양으로, 옆면 가운데에 맷돌 자루인 어처구니를 끼우기 위한 네모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주변에는 양각으로 연꽃잎 모양을 표현하였습니다. 받침은 위쪽을 원반형으로 돌출시키고, 그 주위에 홈을 만들어 맷돌로 갈아진 내용물이 이 홈을 타고 돌출된 주구로 흘러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처가 알려진 유일한 고려시대 맷돌입니다.	이 맷돌은 청주 사뇌사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다. 몸체는 원통모양으로 옆면 가운데에 맷돌 자루인 어처구니를 끼우기 위한 네모난 구멍이 있다. 구멍 주변에는 연꽃잎 모양을 양각으로 (도드라지게) 표현했다. 받침은 위쪽을 원반형으로 돌출시키고, 그 주위에 홈을 만들어서 맷돌로 갈아진 내용물이 홈을 타고 주구로 흘러내리도록 만들었다. 고려시대 맷돌 중 사용처가 알려진 유일한 맷돌이다.	
39	부처 石造佛 坐像	청주의 동북쪽 영하리靈下里 절터에서 옮겨 온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부처의 오른손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왼손은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얼굴은 살이 올라 볼이 통통하고 입술은 작으며, 머리는 곱슬머리 모양의 나발螺髮에 상투와 같은 모양의 육계肉髻가 있습니다. 부처의 허리가 매우 긴 편으로 인체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연꽃으로 장식한 받침은 돌 2개를 붙여서 한판으로 만들었는데 한쪽 부분이 없어져서 양쪽 모두 새로 만들었습니다.	청주의 동북쪽 영하리靈下里 절터에서 옮겨 온 고려시대 불상입니다. 부처의 오른손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왼손은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얼굴은 볼이 통통하고 입술은 작습니다. 머리는 곱슬머리 모양의 나발螺髮에 상투와 같은 모양의 육계肉髻가 있습니다. 부처의 허리가 매우 긴 편으로 인체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연꽃으로 장식한 받침은 돌 2개를 붙여서 한판으로 만들었는데 한 쪽 부분이 없어져서 양쪽 모두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 불상으로 청주의 동북쪽 영하리 절터에서 옮겨 온 것이다. 부처의 오른손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을 하고, 왼손은 중생의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여원인을 하고 있다. 부처의 얼굴은 볼이 통통하고 입술이 작다. 머리는 소라껍데기처럼 꼬불꼬불 들어 말렸고(나발) 상투 모양의 육계(살이나 뼈가 튀어나온 것으로 지혜를 상징)가 있다. 부처의 허리가 길어 인체 비례가 맞지 않는다. 연꽃으로 장식한 받침은 돌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는데 한쪽 부분이 없어져서 양쪽 모두 새로 만들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0	‘단산오옥’ 이 새겨진 먹 丹山烏玉銘墨	국립청주박물관 인근의 명암동明岩洞 유적 중 고려시대 목관묘木棺墓에서 출토된 먹입니다. 먹 앞면에는 ‘단산오옥丹山烏玉’ 이, 뒷면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먹의 윗부분에는 먹집계를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 아래는 사용하면서 닳아 없어져 옥玉자의 첫 번째 획 ‘일一’자만 남아 있습니다. 단산丹山은 충북 단양의 옛 이름으로, 단양의 토산품 가운데 단산오옥을 최상품으로 여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산오옥이란 명칭을 고려시대부터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시대와 출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 먹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 인근의 명암동明岩洞 유적 중 고려시대 목관묘木棺墓에서 출토된 먹입니다. 먹 앞면에는 ‘단산오옥丹山烏玉’ 이, 뒷면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먹의 윗부분에는 먹집계를 사용한 흔적이 있으며, 아래는 사용하면서 닳아 없어져 옥玉자의 첫 번째 획 ‘일一’자만 남아 있습니다. 단산丹山은 충북 단양의 옛 이름으로, 단양의 토산품 가운데 단산오옥을 최상품으로 여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산오옥이란 명칭을 고려시대부터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시대와 출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 먹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먹은 국립청주박물관 인근의 명암동 유적 중 고려시대 목관묘에서 출토되었다. 먹 앞에는 ‘단산오옥’, 뒷면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다. 먹의 윗부분에는 먹집계를 사용한 흔적이 있고, 아래는 닳아서 옥자의 첫 획 ‘일一’만 남아 있다. 단산은 충북 단양의 옛 이름이다. 단양의 토산품 중에서 단산오옥을 최상품으로 여긴다는 기록이 있다. ‘단산오옥’이란 명칭을 고려시대부터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시대와 출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 먹으로 보물로 지정되었다.	
41	호서도 湖西圖	조선시대 충청도忠淸道 지역 지도인 호서도湖西圖입니다. ‘호서湖西’는 호수의 서쪽이라는 의미로 충청도의 별칭입니다. 이 호수는 금강 또는 제천시堤川市 의림지義林池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은 충주忠州와 청주淸州의 첫 글자를 합해서 만든 지명입니다. 고려 1106년에 정한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라는 행정구역 명칭에서 처음으로 용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광충청도楊廣忠淸道’를 경기도京畿道와 충청도忠淸道로 나누고, 충주·淸州·公州·洪州에 속한 군현郡縣을 충청도에 속하게 했습니다. 조선 초반에는 충주에 감영監營을 두었으나 이후 공주로 감영을 옮겼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忠淸道 지역 지도인 호서도湖西圖입니다. ‘호서湖西’는 호수의 서쪽이라는 의미로 충청도의 별칭입니다. 이 호수는 금강 또는 제천시堤川市 의림지義林池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은 충주忠州와 청주淸州의 첫 글자를 합해서 만든 지명인데, 고려 1106년에 정한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라는 행정구역 명칭에서 처음으로 용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광충청도楊廣忠淸道’를 경기도京畿道와 충청도忠淸道로 나누고, 충주, 청주, 공주, 홍주에 속한 군현郡縣을 충청도에 속하게 했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지역 지도인 호서도입니다. ‘호서’는 호수의 서쪽이라는 의미로 충청도의 별칭이다. 이 호수는 금강 또는 제천시 의림지로 보고 있다. 충청은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합쳐서 만든 지명으로 고려 1106년에 정한 ‘양광충청주도’라는 행정구역 명칭에서 처음으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광충청도’를 경기도와 충청도로 나누고 충주, 청주, 공주, 홍주에 속한 군현을 충청도에 속하게 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2	분청사기 양감 연어문 병 粉靑瓷器鑲 嵌蓮魚紋瓶	조선 16세기까지 백자와 함께 분청사기粉靑瓷器를 생활용기로 사용했습니다. 분청사기粉靑瓷器는 청자에서 백자로 가는 중간 단계로, 고려 14세기 중엽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청사기粉靑瓷器를 만드는 흙은 철분 함량이 적어 청자에 비해 색이 밝고 유약도 흰 편이어서 이처럼 밝은 회청색을 띠니다. 이 분청사기 병의 장식 문양은 청자에도 사용한 상감기법을 쓴 것입니다. 문양의 윤곽선을 파서 흰 흙으로 메우는 기법입니다. 상감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의 문양은 청자에 비해 문양의 면적이 넓은데요, 여기서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16세기까지 백자와 함께 분청사기粉靑瓷器를 생활용기로 사용했습니다. 분청사기粉靑瓷器는 청자에서 백자로 가는 중간 단계로, 고려 14세기 중엽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분청사기粉靑瓷器를 만드는 흙은 철분 함량이 적어 청자에 비해 색이 밝고 유약도 흰 편이어서 이처럼 밝은 회청색을 띠니다. 이 분청사기 병의 장식 문양은 청자에도 사용한 상감기법을 쓴 것입니다. 문양의 윤곽선을 파서 흰 흙으로 메우는 기법입니다. 상감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의 문양은 청자에 비해 문양의 면적이 넓은데요, 여기서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분청사기로 장식문양은 상감기법을 쓴 것이다. 즉, 문양의 윤곽선을 파서 흰 흙으로 메운 것이다. 상감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 문양은 청자 보다 문양의 면적이 넓은데 이 병에서도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16세기까지 생활용기로 백자와 분청사기를 함께 사용했다. 분청사기는 청자에서 백자로 가는 중간 단계로 고려14세기 중엽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분청사기를 만드는 흙은 철분이 적어 청자 보다 색이 밝고 유약도 흰 편이어서 밝은 회청색을 띤다.	
43	인화문 분청사기 장식기법 印花文粉靑 沙器粧飾技 法	도자기를 장식하기 위해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서 문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식법으로 고려청자 상감象嵌기법 뿐만 아니라 조선의 인화印花기법이 있습니다. 인화기법은 도장에 양각으로 꽃이나 점 등의 문양을 새기고 이를 도자기 표면에 반복적으로 찍어서 오목하게 문양을 표현한 후, 흙을 채우는 기법입니다. 손쉽게 문양을 표현할 수 있어서 분청사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세 점의 분청사기 편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문양을 찍어서 구운 후, 백토를 넣고, 마지막으로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인화기법 분청사기 제작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를 장식하기 위해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서 문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식법으로는 고려청자의 상감象嵌기법 외에도 조선의 인화印花기법이 있습니다. 인화기법은 도장에 양각으로 꽃이나 점 등의 문양을 새기고 이를 도자기 표면에 반복적으로 찍어서 오목하게 문양을 표현한 후, 흙을 채우는 기법입니다. 손쉽게 문양을 표현할 수 있어서 분청사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세 점의 분청사기 조각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문양을 찍어서 구운 후, 백토를 넣고, 마지막으로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인화기법의 분청사기 제작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청사기 조각들을 보고 문양을 찍어서 구운 후에 백토를 넣고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인화기법의 제작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도자기를 장식하기 위해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서 문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 방법으로는 고려의 상감기법과 조선의 인화기법이 있다. 인화기법은 도장에 양각으로 꽃이나 점 등의 모양을 새기고 이를 도자기 표면에 반복적으로 찍어 오목하게 문양을 표현한 후 흙을 채우는 기법이다. 쉽게 문양을 표현할 수 있어 분청사기를 대량으로 만들 때 효과적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4	도자기 포개구이 器皿疊起来烧	<p>도자기는 고온의 불에 구워서 완성합니다. 좋은 품질의 도자기를 구울 때는 흙으로 원통 모양의 큰 틀을 만들어 그 안에 그릇을 하나씩 넣어 굽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마 안의 이물질이나 재가 도자기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그릇을 포개서 굽습니다. 그릇 사이에는 불에 잘 견디는 흙으로 만든 받침이나 모래알을 놓아 유약이 흘러내려 그릇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포개 구운 그릇에는 받침을 떼어낸 흔적이 남게 됩니다.</p>	<p>도자기는 고온의 불에 구워서 완성합니다. 좋은 품질의 도자기를 구울 때는 흙으로 원통 모양의 큰 틀을 만들어 그 안에 그릇을 하나씩 넣어 굽습니다. 이렇게 해야 가마 안의 이물질이나 재가 도자기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그릇을 포개서 굽습니다. 그릇 사이에는 불에 잘 견디는 흙으로 만든 받침이나 모래알을 놓아 유약이 흘러내려 그릇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포개 구운 그릇에는 받침을 떼어낸 흔적이 남게 됩니다.</p>	<p>도자기는 고온의 불에서 구워 만든다. 좋은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는 흙으로 원통 모양의 큰 틀을 만들어 그 안에 그릇을 하나씩 넣어 굽는다. 그래야 가마 안의 이물질이나 재가 도자기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릇을 포개서 굽는다. 그릇 사이에 불에 잘 견디는 흙으로 만든 받침이나 모래알을 놓아 유약이 흘러내려 그릇에 붙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구운 그릇에는 받침을 떼어낸 흔적이 남는다.</p>	 
45	‘청주’ 명 분청사기 접시조각 淸州銘粉靑 沙器標匙片	<p>도자기에 글자가 있기도 하는데요, 도자기 생산과 유통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주淸州 운동동雲東洞에서 출토된 접시 편 가운데에 ‘청주淸州’ 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처럼 15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 중에는 그릇을 생산한 곳과 향후 그릇이 사용될 관청의 명칭을 흰색 흙으로 표시한 예가 많습니다. 이는 1417년에 관청에 납품할 사기와 나무 그릇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청 이름을 새기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청사기 편에는 ‘청주’ 라는 지명만 있고 관아 명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운동동雲東洞 건물터에서 출토되었기에 청주 일원에서 제작되어 청주 관아에 납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p>	<p>도자기에는 글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로 도자기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청주淸州 운동동雲東洞에서 출토된 접시 조각 가운데에 ‘청주淸州’ 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처럼 15세기에 제작된 분청사기 중에는 그릇을 생산한 곳과 향후 그릇이 사용될 관청의 명칭을 흰색 흙으로 표시한 예가 많습니다. 이는 1417년에 관청에 납품할 사기와 나무 그릇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청 이름을 새기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청사기 조각에는 ‘청주’ 라는 지명만 있고 관아 명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동雲東洞 건물터에서 출토되었기에 청주 일원에서 제작되어 청주 관아에 납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p>	<p>이 접시 조각은 청주 운동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운데에 ‘청주’라고 쓰여 있다. 이처럼 15세기에 만든 분청사기 중에는 그릇을 생산한 곳과 앞으로 그릇을 사용할 관청의 이름을 흰색 흙으로 표시한 예가 많다. 그 이유는 1417년 관청에 납품할 사기와 나무 그릇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청 이름을 새기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이 조각에는 ‘청주’라는 지명만 있고 관아 명칭은 없지만 운동동 건물터에서 출토되었기에 청주에서 제작되어 청주 관아에 납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6	백자 접시 白磁標匙	충주忠州 호암동虎岩洞 무덤 터에서 발견한 백자 그릇으로, 조선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반에 제작한 것입니다. 이 그릇의 형태를 제작한 수준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운영한 관요官窯에서 만든 백자에 버금가지만, 접시에 칠해진 유약의 수준은 관요官窯 백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지방 장인이 관요에서 배운 실력으로 고향에서 백자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백자는 1496년부터 관요를 경기도 광주廣州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전국의 장인匠人들이 이곳에 와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제도의 산물입니다.	충주忠州 호암동虎岩洞 무덤 터에서 발견한 백자 그릇으로, 조선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중반에 제작한 것입니다. 이 그릇의 형태를 제작한 수준은,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운영한 관요官窯에서 만든 백자에 버금가지만, 접시에 칠해진 유약의 수준은 관요官窯 백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지방 장인이 관요에서 배운 실력으로 고향에서 백자를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백자는 1496년부터 관요를 경기도 광주廣州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전국의 장인匠人들이 이곳에 와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제도의 산물입니다.	이 백자 그릇은 충주 호암동 무덤 터에서 발견했다. 조선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중반에 제작한 것이다. 그릇의 모양을 보면,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운영한 관요에서 만든 백자와 비슷하지만 접시에 칠해진 유약은 관요 백자에 미치지 못한다. 아마 지방 장인이 관요에서 배워 고향에 와서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백자를 통해 1496년부터 경기도 광주에 관요를 고정으로 설치하고 전국의 장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해진 기간 일을 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47	별승자총통 別勝字銃筒	별승자총통別勝字銃筒은 조선 선조 때 제작했던 개인용 화기인 승자총통勝字銃筒을 개량한 총입니다. 승자총통勝字銃筒은 화약과 탄환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발사하는데, 여러 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을 조준해서 사격하기보다는 모여 있는 적을 향해 발사하는 데에 효과적이어서 여진족과의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별승자총통別勝字銃筒은 승자총통에 비해 총의 길이가 길고 가늘어서 사정거리가 늘어나 명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총통 손잡이 부분에는 제작 시기, 제작자를 밝히는 글이 새겨져 있어서 화기를 연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별승자총통別勝字銃筒은 조선 선조 때 제작했던 개인용 화기인 승자총통勝字銃筒을 개량한 총입니다. 승자총통勝字銃筒은 화약과 탄환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발사하는데, 여러 발의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을 조준해서 사격하기보다는 모여 있는 적을 향해 발사하는 데에 효과적이어서 여진족과의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별승자총통別勝字銃筒은 승자총통에 비해 총의 길이가 길고 가늘어서 사정거리가 늘어나고 명중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총통 손잡이 부분에는 제작 시기, 제작자를 밝히는 글이 새겨져 있어서 화기를 연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총은 조선 선조 때 만든 개인총인 승자총통을 개량한(바꾸어 만든) 것이다. 승자총통은 화약과 탄환을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쏘는데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을 조준해서 사격하기보다 모여 있는 적들을 향해 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사용했다. 이 총은 승자총통 보다 길이가 길고 가늘어서 멀리까지 쏠 수 있고 명중률이 높다. 손잡이에 제작시기, 제작자를 밝히는 글이 있어 총기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8	청주 운동동 제106호 토광묘 부장품 清州雲東洞第 一百六號土壤 墓副葬品	죽은 자의 무덤에 귀중한 것을 넣는 부장 풍습은 오랜 전통입니다. 조선 17세기 초기까지 이러한 부장 풍습이 지속되었습니다. 부장품은 식기류와 장신구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숟가락을 가장 많이 묻었으며, 백자나 동으로 만든 그릇을 함께 넣기도 했습니다. 죽어서도 잘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치장하는 도구와 노갯돈 개념의 동전을 묻기도 했습니다. 청주 운동동雲東洞 제106호 무덤 터에서 부장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부유한 집안 출신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에 귀중한 것을 넣는 부장 풍습은 오랜 전통입니다. 조선 17세기 초기까지 이러한 부장 풍습이 지속되었습니다. 부장품은 식기류와 장신구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숟가락을 가장 많이 묻었으며, 백자나 동으로 만든 그릇을 함께 넣기도 했습니다. 죽어서도 잘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치장하는 도구와 노갯돈 개념의 동전을 묻기도 했습니다. 청주 운동동雲東洞 제106호 무덤 터에서 부장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부유한 집안 출신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에 함께 넣은 것(부장품)이다. 청주 운동동 제106호 무덤 터에서 많이 발견했으며, 부유한 집안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죽은 자의 무덤에 귀한 것을 넣는 부장은 조선 17세기 초까지 지속된 오랜 전통이다. 가장 많이 묻은 것은 숟가락이고, 백자나 동으로 만든 그릇을 넣기도 했다. 아마도 죽어서도 잘 먹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또 치장하는 도구와 동전을 묻기도 했다.	 청주22384
49	백자명기 白磁明器	부장품으로 살아생전에 사용한 물건을 무덤에 넣지만,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은 별도로 작은 형태로 그릇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를 명기明器라고 합니다. 명기明器를 넣는 풍습은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명기는 보통 무늬가 없는 순백자로 만들었으며 12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는 무덤의 외관을 꾸미고 제사 의식을 중요시하면서 부장 풍습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부장품으로 살아생전에 사용한 물건을 무덤에 넣지만,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은 별도로 작은 형태로 그릇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를 명기明器라고 합니다. 명기明器를 넣는 풍습은 16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명기는 보통 무늬가 없는 순백자로 만들었으며 12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는 무덤의 외관을 꾸미고 제사 의식을 중요시하면서 부장 풍습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덤에 넣는 그릇인 명기이다. 보통 살아있을 때 사용한 물건을 무덤에 함께 넣지만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은 따로 작은 모양의 그릇인 명기를 만들어 넣었다. 명기 넣는 풍습은 16세기 이후 많이 나타난다. 보통 무늬가 없는 순백자로 만들었으며 12개가 한 세트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부터 무덤의 밖을 꾸미고 제사를 중요시하면서 부장(무덤에 함께 묻는) 풍습이 점점 사라졌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0	동제 손칼 銅製刀子・拔毛具	<p>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 전통을 이어 무덤에 몸을 치장하는 도구와 장신구를 넣었습니다. 눈썹이나 얼굴 털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족집게와 가위, 손톱을 다듬는 손칼, 남성들이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은곳과 동곳, 장신구인 구슬과 반지를 묻었습니다. 청주 미평동에서 특이한 치장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구리로 만들었는데, 윗부분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족집게가 있으며, 이 둘을 못으로 결합했습니다. 족집게 안쪽에도 뾰족한 도구가 있는 다용도 손칼로, 현대의 맥가이버 칼이 연상됩니다.</p>	<p>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 전통을 이어 무덤에 몸을 치장하는 도구와 장신구를 넣었습니다. 눈썹이나 얼굴 털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족집게와 가위, 손톱을 다듬는 손칼, 남성들이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은곳과 동곳, 장신구인 구슬과 반지를 묻었습니다. 청주 미평동에서 특이한 치장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구리로 만들었는데, 윗부분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족집게가 있으며, 이 둘을 못으로 결합했습니다. 족집게 안쪽에도 뾰족한 도구가 있는 다용도 손칼로, 현대의 다용도 칼이 연상됩니다.</p>	<p>이 칼은 청주 미평동에서 발견한 특이한(치장)도구이다. 구리로 만들었고 윗부분에 날카로운 칼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족집게가 있으며, 둘을 못으로 결합했다. 족집게 안쪽에도 뾰족한 도구가 있는 손칼로 현대의 다용도 칼이 연상된다. 조선시대에도 고려 전통을 이어 무덤에 몸을 치장하는 도구와 장신구를 넣었다. 눈썹이나 얼굴 털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족집게와 가위, 손톱을 다듬는 손칼, 남성들이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은곳과 동곳, 구슬과 반지를 묻었다.</p>	 <p>청주23819.</p>
51	흑요석	<p>흑요석은 화산이 분출할 때 생긴 유리질의 광석입니다. 흑요석은 작고 날카롭게 깨져 손쉽게 예리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석기는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흑요석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산지대에서만 확인됩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흑요석은 백두산과 일본 큐슈지역에서 나온 것이며 내륙지역의 흑요석 존재는 교통이 불편했던 당시 사회에서도 희귀한 자원을 얻기 위해 먼 거리까지 교역을 한 사실을 알려줍니다.</p>	<p>흑요석은 화산이 분출할 때 생긴 유리질의 광석입니다. 흑요석은 깨질 때 작고 날카롭게 깨지기 때문에 손쉽게 예리한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석기는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흑요석은 화산지대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흑요석은 백두산과 일본 큐슈지역에서 나온 것이며 내륙지역에 흑요석이 있다는 점은 교통이 불편했던 당시 사회에서도 희귀한 자원을 얻기 위해 먼 거리까지 교역한 사실을 알려줍니다.</p>	<p>흑요석은 화산이 분출할 때 생긴 유리질의 광석이다. 흑요석은 작고 날카롭게 깨지기 때문에 끝이 뾰족한 도구를 만들기 쉽다. 흑요석을 이용한 석기는 후기 구석기부터 사용되었다. 흑요석은 화산지대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는 없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흑요석은 백두산과 일본 큐슈에서 나온 것이다. 내륙에 흑요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먼 거리까지 교역한 사실을 알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2	돌보습	<p>신석기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쟁이나 뒤지개처럼 땅을 파거나 알뿌리를 캐는 데 쓰이는 도구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뼈나 나무로도 만들지만 튼튼하지 않고 잘 부러지기 때문에 돌로 만든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돌보습은 갈았던 면은 관찰되지 않으나 한쪽 부분이 사용으로 인하여 매끈하게 마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쪽 면은 전혀 마모된 상태가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한쪽 면은 절반 정도, 다른 한쪽 면은 전면이 자루가 달린 목판에 의해 덮여진 상태로 끼워져 사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p>	<p>신석기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쟁이나 뒤지개처럼 땅을 파거나 알뿌리를 캐는 데 쓰이는 도구가 나타납니다. 이런 농기구들은 뼈나 나무로도 만들지만 잘 부러지고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돌로 만든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돌보습은 갈았던 면은 관찰되지 않지만 한쪽 부분이 매끈하게 마모되어 있어 사용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면은 전혀 마모된 상태가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한쪽 면은 절반 정도, 다른 한쪽 면은 전면이 자루가 달린 목판에 의해 덮여진 상태로 끼워져 사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p>	<p>이것은 농사에 사용했던 돌보습이다.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쟁이나 뒤지개처럼 땅을 파거나 알뿌리를 캐는 데 쓰이는 도구가 나타난다. 이런 농기구들은 뼈나 나무로 만들지만 튼튼하지 않아 잘 부러지기 때문에 돌로 만든 것을 사용했다. 이 돌보습은 갈았던 면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쪽 부분은 사용으로 인해 매끈하게 마모되어 있다. 반대쪽은 전혀 마모되지 않아서 한쪽 면은 절반 정도, 다른 쪽 면은 전면이 자루가 달린 목판에 의해 덮인 상태로 끼워져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p>	
53	송풍관	<p>쇠를 얻기 위해서는 제철로 안에 철광석이나 사철을 넣고 화력이 높은 숯이나 석탄을 넣어 광석을 녹여야 합니다. 이때 철광석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제철로 내부에 바람을 넣어주는 바람통이 송풍관입니다. 송풍관은 대체로 원통형으로 노 안에 박히는 부분이 휘어져 있어 바람의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노 안에 끼워졌던 부분은 철광석이 녹을 때 생기는 불순물인 슬래그(Slag)가 붙어 있고 강한 열에 의해 녹아 두께가 얇아져 있습니다. 노 안에 박힌 송풍관 안팎에는 균열 때문에 바람이 새는 것과 송풍관 끝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가 다량 섞인 흙을 덧발라 입혔습니다.</p>	<p>쇠를 얻기 위해서는 제철로 안에 철광석이나 사철을 넣고 화력이 높은 숯이나 석탄을 넣어서 광석을 녹여야 합니다. 이때 철광석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제철로 안쪽에 바람을 넣어주는 바람통이 송풍관입니다. 송풍관은 대체로 원통 모양으로 노 안에 박히는 부분이 휘어져 있어 바람의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노 안에 끼워져 있던 부분은 철광석이 녹을 때 생기는 불순물인 슬래그(Slag)가 붙어 있고 강한 열에 의해 녹아서 두께가 얇아져 있습니다. 노 안에 박힌 송풍관 안팎에는 균열 때문에 바람이 새는 것과 송풍관 끝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을 덧발라 입혔습니다.</p>	<p>이것은 송풍관이다. 쇠를 얻기 위해서는 제철로 안에 철광석이나 사철을 넣고 화력이 높은 숯이나 석탄을 넣어 광석을 녹여야 한다. 이때 철광석이 잘 녹을 수 있게 제철로 내부에 바람을 넣는 바람통이 송풍관이다. 송풍관은 대부분 원통모양으로 노(열을 발생시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안에 박히는 부분이 휘어져 있어서 바람의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노 안에 끼워져 있던 부분은 철광석이 녹을 때 생기는 불순물이 붙어 있고, 강한 열 때문에 녹아서 두께가 얇아져 있다. 노 안에 박힌 송풍관 안팎에는 균열 때문에 바람이 새는 것과 송풍관 끝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을 덧발랐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4	청동경자	<p>범당에 매달아 놓거나 책상 위에 두고 나무망치인 당목撞木이나 노루 뿔 등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일종의 범음구이다. 주로 불경을 읽을 때나 범패梵唄 의식을 할 때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 사용한다. 형태는 둥근 사발 모양으로 공중에 매다는 부경浮磬과 손잡이가 달린 인경引磬 형태도 있다.</p>	<p>범당에 매달아 놓거나 책상 위에 두고 나무망치인 당목撞木이나 노루 뿔 등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일종의 범음구이다. 주로 불경을 읽을 때나 범패梵唄 의식을 할 때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 사용한다. 형태는 둥근 사발 모양으로 공중에 매다는 부경浮磬과 손잡이가 달린 인경引磬 형태도 있다.</p>	<p>이것은 범음구이다. 범당에 매달아 놓거나 책상 위에 두고 나무망치나 노루 뿔 등으로 두드려 소리를 낸다. 불경을 읽을 때나 범패의식(재를 올릴 때 바치는 불교노래)을 할 때 불성을 깨우기 위해 사용한다. 둥근 사발 모양으로 공중에 매다는(부경) 형태와 손잡이가 달린(인경) 형태도 있다.</p>	
55	쇠술 鐵製鼎	<p>쇠술은 크게 아궁이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과 아궁이 대신 야외에 간단한 시설을 마련하여 사용한 것이 있다. 후자는 보통 3개의 다리가 달려 있어 정鼎으로도 부른다. 이러한 술은 완도 어두리와 태안 마도 등 해저 침물선에서도 확인되어 선상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선상용 술은 다리가 긴 것이 특징이다. 『고려도경』에는 “죽부鬻釜는 삶는 물건인데 철로 만든다. 위에는 뚜껑이 있고 배 아래에는 세 발이 있다.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는 가늘기가 털오라기 같다. 높이는 8촌, 너비는 1척 2촌, 용량은 2승 5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p>	<p>쇠술은 크게 아궁이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과 아궁이 대신 야외에 간단한 시설을 마련하여 사용한 것이 있다. 야외에서 사용한 것은 보통 3개의 다리가 달려 있어 정鼎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술은 완도 어두리와 태안 마도 등 해저 침물선에서도 확인되어 선상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선상용 술은 다리가 긴 것이 특징이다. 『고려도경』에는 “죽부鬻釜는 삶는 물건인데 철로 만든다. 위에는 뚜껑이 있고 배 아래에는 세 발이 있다.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는 가늘기가 털오라기 같다. 높이는 8촌, 너비는 1척 2촌, 용량은 2승 5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p>	<p>쇠술은 아궁이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과 야외에 간단한 시설을 마련하여 사용한 것이 있다. 야외에서 사용한 것은 보통 3개의 다리가 있어 ‘정’ 이라고 부른다. 이런 술은 완도 어두리와 태안 마도 등 해저 침물선에서도 발견되어 배 위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에서 사용한 술은 다리가 긴 것이 특징이다. 『고려도경』에도 쇠술의 크기, 형태 등이 기록되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6	‘황비창천’ 이 새겨진 청동 거울 煌丕昌天銘 銅鏡	뒷면에 포말이 이는 거친 바다와 상상 속의 큰 물고기, 그리고 ‘크게 빛나는 창성한 하늘’이라는 의미의 ‘황비창천煌丕昌天’ 글자가 있다. 파도 한 가운데에는 용이 배를 막고 사람을 위협하고 있으며, 뱃머리에 탄 사람이 칼을 들고 용과 싸우고 있다. 돛을 단배의 뒷전에 있는 사람은 키를 잡고 있다. 사람을 위협하는 용이 배를 막고 있으며, 뱃머리에 탄 사람은 칼을 들고 용과 싸우고 있다. 돛을 단 배의 뒷전에는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표현되어 있다.	뒷면에는 물거품이 이는 거친 바다와 상상 속의 큰 물고기, 그리고 ‘크게 빛나는 창성한 하늘’이라는 의미의 ‘황비창천煌丕昌天’ 글자가 있다. 파도 한 가운데에는 용이 배를 막고 사람을 위협하고 있으며, 뱃머리에 탄 사람이 칼을 들고 용과 싸우고 있다. 돛이 달린 배의 뒤쪽에는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청동거울이다. 뒷면에 물거품이 이는 거친 바다와 상상 속의 큰 물고기, ‘황비창천’이라는 글자가 있다. 이 글자의 뜻은 ‘크게 빛나는 창성한 하늘’이라는 뜻이다. 파도 한 가운데에 용이 배를 막고 사람을 위협하고 있으며, 뱃머리에 탄 사람이 칼을 들고 용과 싸우고 있다. 돛이 달린 배의 뒤쪽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표현되어 있다.	
57	청동 학무늬 거울 靑銅雙鶴文鏡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고려시대 널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천에 쌓인 상태로 청자 기름병과 함께 출토되어 화장용 거울임을 알 수 있다. 뒷면에는 구름 사이로 허공을 나는 두 마리의 학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의 거울에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무늬이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고려시대 널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천에 쌓인 상태로 청자 기름병과 함께 출토되어 화장용 거울임을 알 수 있다. 뒷면에는 구름 사이로 허공을 나는 두 마리의 학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의 거울에서만 보이는 특징적인 무늬이다.	이 청동거울은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고려시대 널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천에 쌓인 상태로 청자 기름병과 함께 출토되어 화장용 거울임을 알 수 있다. 거울 뒷면에는 구름 사이로 허공을 나는 두 마리 학이 표현되어 있다. 이 무늬는 고려 거울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다.	
58	최석정 초상 崔錫鼎 肖像	조선시대 문인이자 수학자였던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의 초상으로, 오른쪽을 바라보고 교의交椅에 앉은 모습을 그린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이다. 높은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쌍학흉배雙鶴胸背가 부착된 짙은 녹색의 단령포團領袍에 코빨소 빨 장식 허리띠인 서대犀帶를 착용하였다. 갈색 선으로 얼굴 윤곽선과 주름 선을 그린 후 물기 있는 갈색을 여러 차례 붓질하여 농담의 차이를 주고, 이마와 콧등 부분은 밝게 처리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수염을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그렸고, 뺨 위의 반점까지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문인이자 수학자였던 명곡明谷 최석정崔錫鼎의 초상으로, 오른쪽을 바라보고 교의交椅에 앉은 모습을 그린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이다. 높은 오사모烏紗帽를 쓰고 쌍학흉배雙鶴胸背가 부착된 짙은 녹색의 단령포團領袍에 코빨소 빨 장식 허리띠인 서대犀帶를 착용하였다. 갈색 선으로 얼굴 윤곽선과 주름 선을 그린 후 물기 있는 갈색을 여러 차례 붓질하여 질감과 열음의 차이를 주고, 이마와 콧등 부분은 밝게 처리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수염을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그렸고, 뺨 위의 반점까지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문인이자 수학자였던 명곡 최석정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교의에 앉은 모습을 그린 전신교의좌상이다. 높은 오사모를 쓰고 쌍학흉배가 부착된 짙은 녹색 관복(단령포)에 코빨소 빨 장식 허리띠(서대)를 착용하였다. 갈색 선으로 얼굴 윤곽선과 주름 선을 그린 후 물기 있는 갈색을 여러 번 붓질하여 질감과 열음의 차이를 주고, 이마와 콧등을 밝게 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수염을 한 올 한 올 섬세하게 그렸고, 뺨 위 반점까지 정교하게 표현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9	숙명신한첩 淑明宸翰帖	『숙명신한첩』은 효종孝宗(1619~1659), 현종顯宗(1641~1674), 장렬왕후莊烈王后(1624~1688), 인선왕후仁宣王后(1618~1674), 명성왕후明聖王后(1642~1683)가 숙명공주淑明公主(1640~1699)에게 보낸 한글 편지 67편을 하나로 묶은 첩帖이다. 숙명공주는 효종의 셋째 공주이자 현종의 누이이다. 17세기 조선 왕실의 국왕과 왕후가 쓴 한글 편지로 가족으로서의 왕실 분위기, 왕실 여성들의 문화, 한글 서예, 근대 국어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숙명신한첩』은 효종孝宗(1619~1659), 현종顯宗(1641~1674), 장렬왕후莊烈王后(1624~1688), 인선왕후仁宣王后(1618~1674), 명성왕후明聖王后(1642~1683)가 숙명공주淑明公主(1640~1699)에게 보낸 한글 편지 67편을 하나로 묶은 첩帖이다. 숙명공주는 효종의 셋째 공주이자 현종의 누이이다. 17세기 조선 왕실의 국왕과 왕후가 쓴 한글 편지로 가족으로서의 왕실 분위기, 왕실 여성들의 문화, 한글 서예, 근대 국어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숙명신한첩』은 효종, 현종, 장렬왕후, 인선왕후, 명성왕후가 숙명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 67편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숙명공주는 효종의 셋째 공주이자 현종의 여동생이다. 17세기 조선 왕실 가족의 분위기, 왕실 여성들의 문화, 한글 서예, 근대 국어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cjm008902
60	백자 새 · 자라모양 연적 白磁鳥形·鼈形硯滴	19세기에는 동물의 형태를 본뜬 연적이 많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해태는 상상의 동물로 선악의 판단을 상징하며, 물고기는 잉어로 등용문 고사처럼 출세를 상징하고, 거북은 장수를 상징한다. 이러한 동물상은 옹크린 해태, 거친 황하를 거슬러 오르며 뛰어오른 잉어, 새끼를 등에 지는 가는 거북 등 해학적으로 모습으로 표현된다.	19세기에는 동물의 형태를 본뜬 연적이 많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해태는 상상의 동물로 선악의 판단을 상징하며, 물고기는 잉어로 등용문 고사처럼 출세를 상징하고, 거북은 장수를 상징한다. 이러한 동물상은 옹크린 해태, 거친 황하를 거슬러 오르며 뛰어오른 잉어, 새끼를 등에 지는 가는 거북 등 해학적으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연적이다. 19세기에는 동물의 형태를 본뜬 연적을 많이 만들었다. 해태는 상상의 동물로 선악의 판단을 상징하며, 잉어는 등용문 고사처럼 출세를 상징하고, 거북은 장수를 상징한다. 이런 동물상은 옹크린 해태, 거친 황하를 거슬러 뛰어오르는 잉어, 새끼를 등에 지고 가는 거북 등 재미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7) 부산시립박물관(75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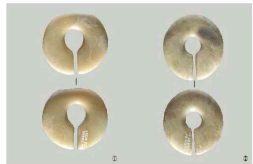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	좁돌날 細石刃	좁돌날(細石刃)은 폭 0.5cm 내외, 길이 1.0cm 이상인 돌날을 말한다. 몸돌에서 다양한 크기로 떼어낸 후, 자루에 끼워서 사용하였다. 몸돌로는 응회암·세일·유문암·안산암·흑요석·수정 등 떼어내기 쉬운 면서 날카로운 날이 만들어지는 돌을 사용하였다. 또 자루로는 뿔, 나무, 뼈 등을 사용하여 가장자리에 홈을 파고 송진 등으로 돌날을 끼워 고정하였다. 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널리 유행하면서 하나의 큰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좁돌날은 0.5cm 내외, 길이 1.0cm 이상인 돌날(돌 조각)을 말한다. 몸돌(몸체가 되는 돌)로부터 날카로운 날을 떼어낸 후, 자루에 끼워서 사용하였다. 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널리 유행하면서 하나의 큰 문화권(문화 공동체)을 형성하였다.	몸체가 되는 돌(몸돌)에서 떼어낸 돌을 좁돌날이라고 한다. 이 좁돌날은 다양한 뿔, 나무, 뼈 등에 끼워서 사용하였다. 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크기는 폭이 0.5cm, 길이 1.0cm이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에 유행하여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2-1	갈돌·갈판 石棒, 礮石	갈돌과 갈판은 견과류 등 식물성 식료를 가공 또는 제분하는 도구로 신석기시대 전시기에 걸쳐 사용된 대표적인 식료 가공구이다. 시기와 가공 식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갈판은 전기 이후 잡곡농경이 널리 보급되면서 조기의 부정형에서 말안장형의 지탑리형으로 정형화되고, 갈돌은 단면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한다. 갈판의 평면은 보통 제분으로 편평하거나 오목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삼동패총 출토 갈판에는 한 쪽 선단부에 평행 혹은 삼각형의 홈이 여러 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 홈들의 기능은 제분의 종류나 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갈돌은 일반적으로 봉상을 이루는데, 범방패총과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된 갈돌 중에는 측면에 손잡이용 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다.	갈돌(가는 돌)과 갈판(가는 판)은 신석기 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된 견과류 등의 식물성 식재료를 가공하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보통 갈판(가는 판)은 편평하거나 오목한 모양으로 마련되어(매끄럽게 갈려) 있으며, 갈돌(가는 돌)은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이다. 범방 패총(조개더미)과 동삼동 패총(조개더미)에서 출토된(나온) 갈돌(가는 돌)에는 손잡이용 홈이 측면에 마련되어 있다.	이것은 신석기 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던 것으로 갈돌과 갈판이 짍을 이루어 도토리 등 곡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으깨는데 사용된 도구이다. 갈판은 편평하거나 오목한 것이 일반적이며, 갈돌은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2	어로 도구 漁撈道具	<p>어로활동이 새로운 생존전략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였으며, 신석기시대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해양의 생태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로방법과 포획대상물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는 리아스식 해안 지형과 한류와 난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하였으며, 그에 따라 작살과 이음식 낚싯바늘 등의 다양한 어로도구가 발달하였다. 회전식 작살은 작살머리가 포획물의 몸 안에서 직각으로 회전하는 구조이다. 물개·강치·바다사자 등과 같은 해수류를 포획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동삼동 패총을 비롯하여 서포항·상노대도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음식 낚시 바늘은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특징적인 어로구이다. 보통 돌로 만든 축과 뼈로 만든 바늘이 결합하여 사용한다. 동삼동 유적 등에서는 동물 뼈나 전복 껍데기 등으로 축을 만든 것이 발견되기도 한다. 바늘 부분은 크기가 3~5cm 전후이며, 주로 사슴 뼈나 멧돼지 송곳니를 가공하여 만들었다. 이음식 낚시 바늘은 신석기시대 전 시기에 걸쳐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동해안과 남해안지역에서 주로 발견된다.</p>	<p>어로(고기나 수산물을 잡는) 활동은 신석기 시대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신석기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해양의 생태(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로(잡는) 방법과 포획(잡는) 대상물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는 리아스식(굴곡이 심한) 해안 지형과 한류와 난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어패류가 서식하였으며, 그에 따라 작살과 결합식 낚싯바늘 등의 다양한 어로(잡는) 도구가 발달하였다.</p>	<p>신석기 시대에 생존을 목적으로 고기나 수산물을 잡는 활동이 시작되어 다양한 도구들이 발달하게 되었다.</p> <p>어로방법과 포획 대상에 따라 그리고 해양의 생태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작살과 낚싯바늘 등의 다양한 도구가 발달하였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3	배 모양 토기 船形土器	<p>통나무를 가공한 환목선을 모방한 토기이다. 기형은 통나무 내부를 파내어 만든 환목선 형태인데, 비봉리유적의 배와 함께 신석기시대 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p> <p>창녕 비봉리에서 출토된 통나무배와 노는 당시 어민들의 해양활동과 어로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라는 점에서 신석기시대 어로와 해양활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신석기시대 배는 반구대 암각화에 부분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물 자료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배는 밑바닥만 남아 있어 전체 구조를 알 수 없으나, 잔존 규모는 길이 310cm, 두께 2~5cm, 최대폭 62cm 정도이다. 비봉리유적 배와 동일한 것이 토기 형태로 동삼동패총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통나무 내부를 가공하여 만든 환목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의 규모가 소형인 점으로 보아 외양성 어로를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배가 존재했는지도 알 수 없다.</p>	<p>배 모양 토기는 통나무 내부를 파내어 만든 환목선(둥근 배)을 모방한 토기이다.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 확인된 배와 함께 신석기 시대의 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p>	<p>통나무 내부를 파내어 만든 둥근 배 모양의 토기로 신석기 시대 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4	흑요석 黑曜石	<p>흑요석은 유리질로 되어 있어 단단하고 가공하기 쉬우므로 구석기시대부터 석기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동삼동, 범방 등 남해안 지역에서는 전혀 가공되지 않은 흑요석 원석과 많은 양의 박편이 확인되었다. 흑요석 분석 결과 대부분 일본 규슈산으로 확인되어 당시 일본과의 교역활동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남해안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흑요석이 일본 규슈지역으로부터 교류의 산물로 유입된 것이라면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교환물자 즉 교역품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물은 이 지역에서 산출되는 특산물과 동삼동패총에서 대량으로 출토된 조개팔찌이다. 동삼동패총에서 생산된 조개팔찌는 국내의 여러 집단뿐만 아니라 규슈지역의 흑요석과 주요 교역물로써 대마도나 규슈지역에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 신석기유물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사가(佐賀)패총의 조개팔찌는 구주산 흑요석을 매개로 동삼동패총 집단에 의해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흑요석을 포함하여 한일 양지역의 문화와 문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네트워크와 메커니즘을 통해 교류되고 유통되었는가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양 지역민들은 상호필요성에 의해 타지의 특산물 입수를 원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물품들이 상대지역에 유입되고 공급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다.</p>	<p>흑요석(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자연적인 유리)은 유리질로 되어 있으며 단단하지만 가공하기가 쉽다. 그런 특성 때문에 흑요석은 구석기 시대부터 석기(돌로 만든 도구)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남해안 지역에서는 전혀 가공되지 않은 흑요석과 많은 양의 박편(떨어져 나간 조각)들이 확인되었는데, 분석 결과 대부분 일본 규슈산으로 판명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과의 교역 활동을 추정해 볼 수 있다.</p>	<p>화산에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유리질로 된 재질이 단단하지만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가 쉬워 구석기 시대부터 많이 사용되었다.</p> <p>남해안 지역에 떨어진 조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일본 규슈 지역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과 어떤 형태의 무역 활동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5	빗살무늬 토기 櫛文土器	<p>신석기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토기의 발명이다. 토기는 인간이 경험한 최초의 화학 변화이다. 흙에 불을 가하여 화학적인 변질을 일으키게 하여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시킨다. 토기는 신석기문화의 파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토기의 제작과정이나 무늬의 종류는 각 지역과 시기의 문화나 사회적 배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므로 시기 구분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반도 서해안의 대동강·한강 유역 등지에서는 토기의 바닥이 뾰족한 포탄형이 대표적이다. 무늬는 점과 선에 의한 기하학적인 형태가 많으며, 이를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라고도 부른다. 낙동강 유역과 해안지역에서는 서해안이나 동해안 지역과 비교해 각각 계통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토기형식이 혼재하고 있다.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지두문토기(指頭文土器)·영선동식토기(瀛仙洞式土器)·태선어골문토기(太線魚骨文土器)·겹아가리토기(二重口緣土器)등이 있다.</p>	<p>빗살무늬 토기는 빗 모양의 무늬 새기개로 표면을 누르거나 그어서 여러 가지 기하학적(직선, 곡선, 점 등의) 무늬를 표현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토기이다. 일반적으로 아가리, 몸통, 바닥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무늬를 새겼다. 가장 대표적인 무늬는 빗살무늬이며 그 외에도 단사선문(빚금무늬), 격자문(바둑판무늬), 집선문(뽁뽁한 선 무늬)이 있다.</p>	<p>빗살무늬토기는 아가리, 몸통, 바닥을 각각 직선, 곡선, 점 등의 무늬를 빗모양으로 새긴 특징이 있다.</p> <p>토기의 제작과정이나 무늬의 종류로 여러 지역과 시기의 문화나 사회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6	귀걸이 耳飾	<p>신석기시대 이식은 주로 옥석이나 흙을 소재로 제작되었다. 아직 출토량이 매우 적고,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어 유행 시기, 착용자의 성별, 출현과 소멸에 이르는 과정, 착용자의 사회적 성격 등에 관해서 불명한 점이 많다. 현재 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귀걸이의 형태는 착장 방식에 따라 고리형의 결상이식과 삽입형의 이전의 두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결상이식은 형태가 중국 고대 옥기인 결珓과 유사하다는데서 붙여진 명칭으로 옥석을 둥글게 가공하여 컷볼에 구멍을 뚫어 거는 고리형의 귀걸이이다. 삼국시대 태환이식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선사시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지역에 널리 유행 하던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도 사촌리유적, 사천 선진리유적, 여수 안도, 동삼동, 고성 문암리, 울산 처용리유적에서 출토된 것이 전부이다. 형태는 동삼동과 사촌리 출토품이 말각방형, 문암리, 안도 출토품이 원형을 이룬다. 재질은 문암리와 사촌리 출토품이 연옥제이고, 동삼동 출토품은 석영제로 추정된다. 출현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문암리유적 출토품의 예로 보아 지금부터 7,000년 무렵인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착용자의 성별은 알 수 없으나 결상이식의 재료인 옥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적으로 혹은 집단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은 컷볼에 구</p>	<p>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귀걸이의 형태는 착용 방식에 따라 고리형인 ‘결상이식(玦狀耳飾)’과 삽입형인 ‘이전(耳栓)’의 두 가지로 나뉜다. 결상이식은 컷볼에 구멍을 뚫어 거는 둥글게 가공한 고리 모양의 옥석(옥돌)이며, 이전은 컷볼에 구멍을 뚫어 끼워 넣는 것으로서 흙으로 만든 것이다.</p>	<p>이식은 귀걸이를 뜻하는 말로 신석기시대 주로 옥이나 흙을 이용해서 만들었다.</p> <p>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귀걸이의 형태는 착용방식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옥석을 둥글게 가공하며 컷볼에 구멍을 뚫어 거는 결상이식과 흙으로 만들어 컷볼에 구멍을 뚫어 끼워 넣는 이전으로 나뉘어진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p>명을 뚫어 귀걸이를 삽입하여 귀를 장식하는 형식이며 재질은 모두 흙을 구워 만든 토제품이다. 현재까지 동삼동, 울산 신암리, 경주 봉길리유적 출토품이 알려져 있다. 특히 동삼동패총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전이 11점이 출토되었다. 형태는 원반형을 이루며, 측면에는 착장하기 위한 홈이 마련되어 있다. 외면은 봉길리유적 출토품과 같이 무문양도 있으나 신암리와 동삼동출토품과 같이 외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점열문과 동심원문을 장식한 것도 있다. 크기는 4~5cm 정도이나 8cm 이상의 큰 것도 있다. 출현과 존속 시기는 불투명하나 중기 이후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로 사용한 시기는 신석기시대 중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은 조몽문화에서는 조기부터 만기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른 시기의 이전이 출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	달모양 도끼 環狀石斧	기장 방곡리유적에서 출토된 달모양도끼로, 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운데 자루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 있다. 일반적인 도끼와 구별되는 특색 있는 모양을 바탕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쓰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달모양 도끼는 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운데 자루를 끼우기 위한 구멍이 있다. 일반적인 도끼와 구별되는 것은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 추정된다.	기장 방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달 모양 도끼는 가운데 자루를 끼우는 구멍이 있다. 일반적인 도끼와 다른 모양은 지도자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4	마제석검 磨製石劍	마제석검은 돌을 갈아 만든 단검으로 청동기시대 전기에 출현하여 기원전 3~2세기경까지 사용된 대표적인 석제품이다. 석검은 퇴적암 계통의 세일·슬레이트·이암·점판암 등으로 만들며 검의 날과 손잡이 부분으로 구성된다. 지석묘나 석관묘 등 무덤이 부장품으로 대부분 출토되지만, 주거지 내에서도 석검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 도구로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검은 제작방법과 손잡이 형태의 특징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손잡이 형식에 따라 일단병식과 이단병식석검으로 구분되며, 이단병식석검에서 일단병식석검으로 변화한다.	마제석검은 돌을 갈아 만든 단검(짧은 칼)이다. 주로 고인돌(기둥들 위에 넓적한 돌을 얹은 무덤)과 돌널무덤(돌로 넓적한 판을 만든 무덤) 등 무덤에서 꺼문 거리(시체와 함께 묻은 물건)로 널리 사용된 청동기 시대 대표 유물 중 하나이다. 주거지에서도 다수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돌을 갈아 만든 단검으로 청동기시대 대표 유물이다. 무덤에서 많이 발견되었지만 집터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봤을 때 실생활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	삼한의 토기 三韓-土器	<p>삼한시대에는 철기가 청동기를 대신하여 널리 사용되고, 무문토기 대신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와질토기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토기로 두형토기, 주머니호, 보시기, 완 등이 있다. 이 중 주머니호는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함께 변진한의 대표적인 토기로, 목관묘에 주로 부장된다. 후기 무문토기단계에 점토대토기가 와질토기 수법으로 제작되면서 주머니호로 변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초기형태는 동체부의 최대폭이 아래에 쳐져 있으며, 낮은 굽이 달린 무문토기 기형이다. 이후 굽이 사라지고 바닥형태가 말각평저, 원저로 변화하는데, 목이 잘록하게 길어지고 동체하단에 각이 지며 아가리가 거의 수평을 이루는 나팔모양을 한 형태가 말기 형식이다. 창원 다호리, 김해 대성동, 양동리, 경주 사라리, 조양동, 부산 방곡리, 노포동, 구서동, 복천동 등지에서 출토되었다. 대체로 기원전 1세기 대에 출현하여 2세기에 소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형토기는 豆자 모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굽다리 접시의 일종이다. 사천 늑도유적, 해남 군곡리패총, 장유 대청유적, 광주 신창동유적 등에서는 일상용토기의 한 종류로서, 대구 팔달동유적, 창원 다호리, 김해 양동리, 경주 조양동 등에서는 부장품이 한 종류로서 많이 출토되었다. 대각의 속이 비어있는 공심형에서 속이 찬 실심형으로 변화하며 대각이 높이는 점차 낮아지다가 연질고배로 발전한다.</p>	<p>철기(철로 만든 도구)가 청동기(청동으로 만든 도구)를 대신하여 널리 사용되고, 기벽이(두께가) 두텁고 투박한 무문(무늬 없는) 토기 대신 기벽이(두께가) 얇고 바닥이 둥근 항아리 등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와질(기와질) 토기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토기로 굽다리접시(받침이 높은 접시), 주머니호(주머니 모양 병), 보시기(작은 반찬 그릇), 완(접시) 등이 있다.</p>	<p>부산 방곡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기와질의 토기이다. 두께가 얇고 바닥이 둥근 특징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	수정 水晶	수정은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화살촉이나 굽개, 천공구 등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삼한시대부터는 중국 및 낙랑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장신구로서 만들어졌다. 동래 온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수정은 구멍이 뚫려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장신구보다는 공헌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정은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화살촉이나 굽개, 천공구(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도구) 등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삼한시대부터는 중국 및 낙랑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장신구로서 만들어졌다. 동래 온천동 유적에서 출토된 수정은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장신구보다는 공헌품(국가에 바치는 물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화살촉이나 나무나 가죽을 다룰 때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굽개,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는 천공구 등으로 수정이 사용되었다. 삼한 시대부터는 중국 및 낙랑의 영향으로 다양한 장신구로 만들어졌다. 동래 온천동에서 발견된 수정은 국가에 바치는 물품으로 추정된다.	
7	시루 甌	시루·술·국자와 같은 취사도구의 개량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부뚜막과 같은 취사설비가 만들어지면서 조리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 술과 시루의 사용으로 이전까지는 불가능하였던 찌는 조리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루는 아가리가 넓고,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몸통에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려있다. 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뜨거운 수증기가 구멍을 통해 시루 안에 담겨진 음식재료를 익히게 된다. 따라서 부뚜막 위에 올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나 독 형태의 보조 용기와 함께 사용되었다.	시루는 아가리가 넓고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으며, 몸통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는 모양이다. 물을 끓여 발생한 뜨거운 수증기를 바닥의 구멍으로 통하게 하여 시루 안의 식재료를 조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뚜막 위에 올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독 형태의 용기와 함께 사용되었다.	시루는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고 손잡이가 있고 아가리가 넓다. 부뚜막 위에 항아리를 올려 물을 끓여 뜨거운 수증기가 시루의 구멍을 통해 음식재료를 익히는 조리법의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8	덩이쇠 鐵錠	가야의 철기문화는 이 지역에서 풍부하게 생산되는 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덩이쇠는 쇳덩이를 얇게 두드려서 만든 철판으로, 도끼나 창과 같은 철제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재료이다. 긴 사각형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잘록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크기·모양·무게를 비슷하게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하여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가야 지배자급 무덤에서는 다량의 덩이쇠가 10매 단위로 묶인 채로 확인되기도 한다.	덩이쇠는 쇳덩이를 얇게 두드려 만든 철판으로, 도끼나 창과 같은 철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이다. 긴 사각형 모양으로 가운데 부분을 잘록하게 만들기도 한다. 덩이쇠는 그 크기와 모양, 무게를 비슷하게 제작하여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가야의 지배자급 무덤에서는 다량의 덩이쇠가 10매 단위로 묶인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쇳덩이를 얇게 두드려 만든 철판으로, 도끼나 창과 같은 철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 재료이다. 크기와 모양, 무게를 비슷하게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가야 지도자급 무덤에서 10개 단위로 묶인 채로 발견되기도 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9	말갓춤 馬具	<p>재갈은 말을 제어하는 중요한 말 갓춤새(마구)의 하나이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쇠, 재갈쇠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갈멈추개, 말을 조정하기 위한 고삐를 연결하는 고삐이음새로 구성된다. 특히 재갈멈추개는 금동·은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은 의장용으로 추정되며, 신라·가야·백제 등 한반도 남부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말띠드리개는 말의 가슴걸이나 후걸이에 매달아서 장식하는 치레걸이로 행엽이라고도 한다. 금·금동·은·철 등의 재질로 하트모양, 칼모양, 종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었는데, 말을 탄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말띠드리개 등으로 말을 화려하게 꾸몄다.</p>	<p>전쟁터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보다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말갓춤(말을 부릴 때 쓰는 기구나 말을 꾸미는데 쓰는 장식품)들이 만들어졌다. 달리는 말을 조종하기 위해 입에 재갈(막대기)을 물려 고삐와 연결하였으며, 말을 탄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말띠드리개(말띠에 달아 늘어뜨리는 넓적한 장식) 등으로 말을 화려하게 꾸몄다.</p>	<p>이것은 전쟁터에서 말을 편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p> <p>말의 입에 물려 고삐와 연결하여 사용된 재갈(막대기)과 말을 탄 사람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화려한 장식을 꾸민 말띠드리개가 있다. (말띠드리개 설명)</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0	종장판갑 縱長板甲	<p>종장판갑은 세로로 긴 철제 지판에 연결하여 제작한 영남지방 특유의 지역성이 강한 갑옷이다. 4세기 대를 중심으로 금관가야와 신라지역에서만 확인된다. 전시되어 있는 이 종장판갑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완형이다. 기본적으로 주지판인 종장철판을 못으로 결합한 종장판정결단갑이다. 크게 앞면과 뒷면, 어깨장식부로 구성되며, 앞면은 다시 좌, 우동부로 나뉜다. 앞면과 뒷면의 연결은 앞면의 외연과 뒷면의 양 외연에 종으로 촘촘히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가죽끈으로 기워 연결하였다. 앞면은 좌, 우 모두 3매의 종장판을 못으로 연결하였으며, 내측 종장판의 내연은 끝을 바깥으로 접어서 제작하였다. 하방에 폭 5cm 정도의 철판대를 바깥으로 대어 복륵을 만들었는데, 하연은 끝이 밖으로 접혀져 있다. 뒷면은 5매의 종장판을 바깥쪽으로 순차 좌우로 대어 연결시켰고, 종장판의 상단에 횡으로 1매의 철판을 붙인 형태이다. 그리고 이 최상 방의 철판의 중앙부 안쪽에는 목 가리개가 못에 의해 고착되고 있다. 이 목 가리개는 하방은 횡장판으로, 후동부 상부와 결합되고, 상방은 반원상의 철판을 붙여 만들었다. 이 반원상의 철판 외연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경갑 혹은 장식성의 깃 등을 연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 장식은 2점이 있는데 전체 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먼저 삼각형 철판 1매를 하방이 내만하고, 상방은 내경하게 한 후 상방에 1매의 긴 띠상의 철판을 덧붙여 만들었다. 갑옷 전체 형태와 개폐장치 등을 볼 때 시기는 대략 4세기 후반대로 생각된다.</p>	<p>갑옷은 전쟁터에서 적의 검이나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던 옷이다. 그중 종장판갑은 세로로 긴 철판을 덧댄 뒤 못으로 연결하여 제작한 갑옷으로서 영남 지방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형태이다. 이 갑옷은 총 11매의 철판을 못으로 연결한 것으로 김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갑옷의 형태를 볼 때 대략 4세기 후반의 유물로 추정된다.</p>	<p>김해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경상남도·경상북도 지역의 독특한 갑옷이다. 갑옷을 보면 약 4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p> <p>전쟁터에서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던 것으로 모두 11매의 철판을 못을 이용해 연결되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1	고배 高杯	<p>삼국시대에는 회청색의 단단한 토기가 유행했다. 굽다리접시는 그 중 대표적인 토기로서 긴 굽다리 위에 얇은 접시가 붙은 모양이다. 굽다리접시는 굽구멍의 세부 형태를 통해 크게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더 세분화하여 지역 단위로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중 외절구연고배는 구연부가 바깥으로 한번 꺾인 고배로, 금관가야의 중심영역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형태의 고배는 같은 시기 타 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기종으로, 그 분포범위를 볼 때 지역성을 상징하기에 충분하다. 4세기 중엽경 대성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점차 출토범위가 확대되는데, 동으로는 기장 청강·대라우적, 서쪽으로는 진해 웅천패총, 창원 가음정동, 도계동고분군까지 분포한다. 특히 기장 청강·대라우적은 서쪽으로 커다란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해안쪽으로 형성된 평지와 해로를 따라 울산지역 및 경주지역과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된 곳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역에서 금관가야의 영역을 상징할 수 있는 외절구연고배가 일부 출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금관가야 영역권의 외곽에서는 금관가야주민과 신라주민이 서로 혼재하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p>	<p>삼국 시대에는 회청색의 단단한 토기가 유행했다. 굽다리접시(받침이 높은 접시)는 그중 대표적인 토기로서 긴 굽다리(받침) 위에 얇은 접시가 붙은 모양이다. 굽다리접시는 굽구멍(받침 구멍)의 세부 형태를 통해 크게 신라 토기와 가야 토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더 세분화하여 지역 단위로 구별하는 것도 가능할 만큼 지역성이 강하다.</p>	<p>삼국시대에는 회청색의 단단한 토기가 유행했다. 이것은 그중 가장 대표적인 토기(접시)이다.</p> <p>긴 받침 위에 접시가 붙은 모양이며 받침의 구멍 모양을 보면 나라와 세부지역까지도 구분할 수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2	복숭아모양 토기 挑形土器	부산 연산동고분군 65호 석곽에서 출토된 복숭아모양토기로 상형토기의 일종이다. 고대사회에서 중요시 여긴 과일인 복숭아를 절반 잘라놓은 모양으로 만든 잔으로, 복숭아 모양의 잔을 만들어 무덤에 함께 묻은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신선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형토기는 사후 세계에 대한 상징적인 염원을 표현하기 때문에 주로 무덤이나 의례 장소에서 많이 확인된다.	복숭아 모양 토기는 상형(물건의 모양을 본따 만든) 토기의 일종으로, 고대 사회에서 중요시 여긴 복숭아를 절반 잘라놓은 모양으로 만든 잔이다. 복숭아 모양의 잔을 만들어 무덤에 함께 묻은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신선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 추정된다.	부산 연산동고분군에서 발견된 토기로 고대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된 복숭아를 잘라놓은 모양의 잔이다. 이것은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무덤에 함께 묻은 것을 보면 죽은 사람이 신선처럼 되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13	받침모루 · 도지미 內拍子, 陶枕	부산 분절패총과 기장 명례유적에서 각각 받침모루와 도지미가 출토되었다. 받침모루는 토기 제작 과정에서 토기가 비틀리거나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토기의 표면을 두드릴 때 토기의 안쪽에 대는 도구이다. 도지미는 가마에서 많은 양의 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토기끼리 서로 붙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열기가 가마 안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받치는 도구이다.	받침모루는 토기 제작 과정에서 토기의 표면을 두드릴 때 토기의 안쪽에 대는 도구이다. 도지미는 토기를 가마에 구울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토기끼리 서로 붙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열기가 가마 안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받치는 도구이다.	이것은 토기를 만들 때 걸면을 두드리는 것으로 사용된 받침 모루와 가마 안에서 토기가 서로 붙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받치는데 사용된 도지미 이다. 부산 분절패총과 기장 명례유적에서 각각 받침모루와 도지미가 출토되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4	뼈항아리 骨壺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수습 조사한 동래연산동고분군에서 인화문 개와 인화문 호가 확인되었다. 출토 당시 인화문 호와 그 위에 인화문 개가 덮여 있었다. 정선된 태토의 도질소성제품으로 소성정도가 양호하다. 개신의 외면에는 상단 4개, 하단 5개의 연속수직점원문이 2단으로 찍혀있다. 호는 도질소성제품이나 소성정도가 양호하지 못하여 와질소성에 가깝다. 전체적으로 암회색을 띠며 구연부는 완전히 결실되었다. 동체외면은 회전목리조정으로 정면된 후 상부에 점원문의 인화문이 시문되었다. 경부와의 경계지점과 동최대경 부위에 황으로 일렬의 점원문을 돌리고 그 내부에 중2열의 점원문으로 9칸을 구획한 후 C자문 1개, 역C자문 7개, 9자문 1개를 배치하였다. 경부에는 2열의 점원문을 X자형으로 배치하였다. 구연부의 내면에도 점원문을 찍었는데 파손이 심해 뚜렷한 문양의 특성을 알 수가 없다. 부산지역의 5~6세기대 수장층의 묘역에서 화장묘인 골호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불교문화의 전래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토기는 동래 연산동 고분군에서 확인된 통일 신라 시대의 뼈항아리이다. 부산 지역의 5~6세기대 수장층(지배 계층)의 묘역에서 화장묘인 뼈항아리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불교식 장례 문화인 화장(火葬)이 전국적으로 성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동래 연산동 고분군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의 뼈 항아리이다. 부산 동래에서 발견되어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직접 수습 조사한 것이다. 5~6세기 때 지도자들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으로 불교식 장례문화인 화장이 성행한 것을 알 수 있다.	
15	목제두레박 木罐	말각방형을 띄는 통나무 두레박으로 우물 바닥에서 두 점이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약간 뒤틀어졌으며 길이 18.2cm, 너비 16.6cm, 깊이 9.2cm 정도로 속을 파내어 만들었다. 내부 바닥은 끝이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면을 때내어 정리하여 표면이 거칠지만, 외면은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다듬어졌다. 손잡이는 두레박 양쪽 측면에 장방형 구멍을 뚫고 단면 장방형의 나무를 결속시켰는데, 중앙의 굴곡은 오랜 시간 사용으로 마모된 것이다.	동래 고읍 성지 우물 바닥에서 출토된 통나무로 만든 두레박이다. 전체적으로 약간 뒤틀어졌으며 깊이는 9.2cm 정도로 속을 파내어서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다. 두레박 양쪽 측면에 장방형(직사각형)의 구멍을 뚫고 단면 장방형의 나무를 결속시켜(묶어) 사용하였다.	부산 동래 우물 바닥에서 2점이 발견되었다. 조금 뒤틀어졌고 내부 바닥은 날카로운 것을 이용하여 9.2cm로 파내어진 모습이다. 직사각형의 구멍을 양쪽에 뚫어 나무를 묶어 사용하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6	석탑 石塔	<p>해운대의 호텔 정원에 있던 것을 1964년 4월 경주박물관으로 옮긴 것으로 3칸 정방형의 사암제로 제작된 석탑이다. 탑신석은 중앙에 창을 내어 중앙 칸은 넓고 좌우 칸은 좁은 양식으로 네 모서리에 인물상을 조각하였다. 기둥은 원기둥이며 특히 켓기둥(隅柱)이 강조되었다. 기둥 위에 주두를 두고 공포를 올렸는데 1 출목으로 고려시대 주심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두와 소로는 굽이 곡선이며 굽받침이 새겨져 있지 않아 통일신라 이전의 양식이 보이기도 한다. 탑신하단에는 난간을 둘렀는데 난간 밑은 공포가 받치고 있다. 옥개석은 상부에 원형의 홈이 있으며 중앙 좌우 공포에 마치 지붕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형상의 인물이 각 면에 2위씩 표현되어 있다. 표정은 펍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어 무거운 듯 고통스러운 듯 그러면서도 체념한 듯한 느낌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옥개석은 지붕처마 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형상은 알 수 없으나 원형 서까래를 사용하였고 그 하단에는 다시 공포를 조각하였다. 각 면에 5개의 포가 놓였는데 귀포와 주심포에 해당하는 공포의 모습이 매우 특징적이다.</p>	<p>해운대의 호텔 정원에 있던 것을 1964년 4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긴 것으로 사암제(모래가 굳어진 암석)로 제작된 석탑의 일부이다. 탑신석(몸체)은 중앙에 창을 내고, 네 모서리에 인물상을 조각하였다. 옥개석(지붕돌)은 마치 지붕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형상의 인물이 각 면에 2명씩 표현되어 있는데, 표정은 펍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다. 무거운 듯 고통스러운 듯 그러면서도 체념한 듯한 느낌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지붕 처마 부분이 파손되어 정확한 형상은 알 수 없다.</p>	<p>이 석탑은 해운대 호텔 정원에 있던 것으로 1964년 4월 국립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p> <p>모래가 굳어진 돌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몸체는 중앙에 창이 있고 네 모서리에는 인물의 모양이 조각되어있다.</p> <p>무거우면서도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의 사람이 지붕의 면을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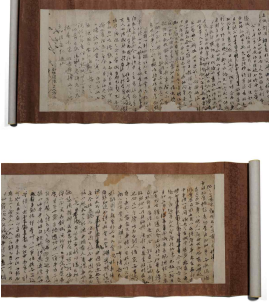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7	청자 상감 초문 임신명 접시 靑磁象嵌草 文'壬申'銘皿	<p>동래고읍성지 1-3지구 구상유구 1호 중앙 상층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내저면 중앙에 간지명의 하나인 '임신(壬申)'이 흑상감되어 절대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유물이다. 기벽은 거의 직립하는 듯 약간 외반하면서 뺨어 올라오다가 구연부가 다소 내경하고 있으며, 내저는 편평하고 외면 중상단부에 특징적인 띠 모양의 돌대가 장식되어 있다. 내저면에 2줄의 백상감선으로 2단의 문양대를 구획한 다음, 중앙에 흑상감의 '임신' 명을 단정한 예서체로 새겨 넣었다. 바깥쪽 문양대에는 3~4단의 짧은 백상감선을 방사선 형태로 배치하여 우점문을 표현하였다. 내저면과 맞닿은 내측면 하단에는 흑백상감의 초문 3포기를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는데, 본래는 4개가 시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포토키와 같은 초문은 유로수금문이 해체되면서 등장하는 것으로, 14세기의 특징적 문양 가운데 하나이다. 외면의 경우 1줄의 돌대를 중상단에 두고 상단의 구연부에는 뇌문대, 하단의 굽 주변에는 연주문대를 각 백상감하였다. 외면의 돌대는 중국 원대 용천요(龍泉窯)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것은 14세기 원대 자기의 영향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운영 시기가 14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강진 사당리 10호 가마터에서 간지명은 없으나 형태, 문양구성, 돌대장식 등이 동일한 접시 파편 1점이 수습되어 이 유물의 생산연대를 밝히는 좋은 단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임신'이라는 간지명과 함께 조합해보면 이 유물의 제작연대는 1332년으로 추정된다.</p>	<p>동래 고읍 성지에서 출토된 접시이다. 안쪽 바닥에 12간지(천간과 지지를 일컫는 말)명(이름)의 하나인 '임신'이 검은 글씨로 새겨져 있는데, 이것을 통해 정확한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p>	<p>부산 동래에서 발견된 접시이다. 십이간지 중 '임신'이 접시에 검은 글씨로 새겨져 있어 1332년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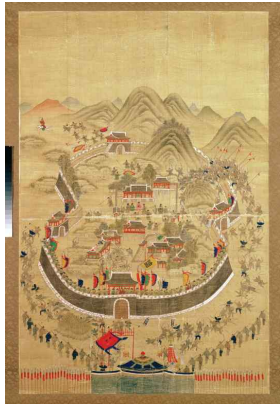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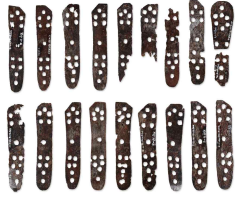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18	삼품명 암키와 三品'銘瓦	삼품은 고려시대 주현군에 소속된 조직으로 군사적 목적에 의한 동원이라기보다 공역을 담당했던 노동부대에 가깝다. 언제부터 조직되고 해체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일품군(一品軍)이 조직된 1012~1018년 사이에 삼품군도 조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종22년(1235) 주현군이 삼별초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일품군과 함께 폐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감동 성지에서 출토된 삼품(三品)명(‘삼품(三品)’이 쓰여 있는) 암키와이다. 삼품은 고려 시대 주현군(지방에 배치한 군대)에 소속된 조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동원되었다기보다 노동 부대에 가깝다.	부산 당감동에서 발견된 집의 지붕을 덮는 평면모양의 암키와이다. ‘삼품’이라고 써져있으며, ‘삼품’은 지방에 있는 노동을 목적으로 한 군대 조직으로 볼 수 있다.	
19	청자 철화 장구 靑磁鐵花文 長鼓	장고는 철화 선문을 등간격으로 구획하여 문양대를 구분한 후 콩나물 형태의 초문을 울통 부위에 채우는 방식으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울통 상면의 넓은 공간에 모란문 또는 국당초문을 배치하였는데, 일부는 울대와 울통의 경계 부위에 시문된 철화 선문에 백토점을 찍어 흑백이 대비되게 하였다.	장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타악기 중 하나로, 양쪽에 댄 가죽을 채로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 이 청자 철화 장구는 강서구 녹산동 청자 생산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모란문(모란 무늬) 또는 국당초문(국화와 덩굴무늬)을 시문하였다.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서 발견된 것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타)악기이다. 흑백이 대비되게 모란 무늬, 국화, 덩굴무늬가 색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0	소조 불두 塑造佛頭	<p>용당동유적의 건물지Ⅱ 북동쪽 기단석렬 전면의 함몰된 외편 하부에서는 연황색의 불두편 1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잔존길이 7.1cm, 잔존폭 6.4cm의 이 불두편은 안면을 제외한 두부의 측면, 후면부분 및 몸통 전체가 결실된 상태이고 마모가 심해 원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남아 있는 안면의 이목구비는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소조불이란 점토로 만든 불상을 일컫는 것으로 니상(泥像) 또는 소상(塑像)이라고도 한다. 인도에서는 일찍부터 점토로 불상을 만들었으며 재료가 풍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흔히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이 많지 않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 때 신라의 양지(良志)가 영묘사 장륙상을 만들 때 진흙을 빚어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소조불이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현재 실물은 남아 있지 않다. 현존하는 실물자료는 국보 제 45호로 지정된 부석사 소조불좌상과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소조사천왕상, 원오리사지 출토 소조불상군, 성주사지 출토 소조불, 진천길상산 방아골 출토 소조불 등이 있으며, 제작 시기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사찰명이 있는 암키와편과 이 소조불두의 출토사실은 용당동유적의 성격을 사찰지로 비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p>	<p>용당동 유적의 건물지에서는 점토로 만든 불두편(부처의 머리) 1점이 출토되었다. 이 불두편(부처의 머리)은 마모가 심해(많이 닳아) 원형(원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남아 있는 안면의 이목구비는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이 소조 불두(점토로 만든 부처의 머리)의 출토 사실은 용당동 유적의 성격을 사찰지로 간주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p>	<p>부산 용당동에서 발견된 부처의 머리이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부분을 제외하고는 닳거나 없어져서 원래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것의 발견으로 용당동에 사찰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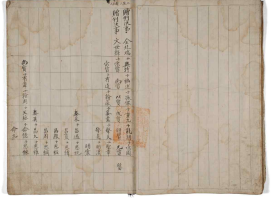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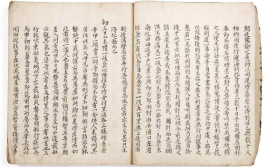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1	기비사명 기와 祇毗寺명 기와	전(傳) 만덕사는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 공민왕대에 충혜왕의 서자 석기(石器)가 소군(小君)으로 머물렀던 사찰로 여겨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비사명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삼중대사 혜거(三重大師 惠居)가 주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기비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만덕동, 만덕 고개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나 『여지도서(輿地圖書)』 동래현조에 기비현(其比峴)이라는 고개 이름으로 나온다. 이 일대를 기비현, 기비골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지명과 사찰 명칭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덕사지에서 출토된 ‘기비사’ 명문이 있는(‘기비사’라는 글씨가 쓰인) 기와이다. 만덕사지는 고려 공민왕대의 기록에 따라 만덕사 터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기비사명(‘기비사’라고 쓰인)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기비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비사’라고 쓰여진 기와가 많이 발견된 것으로 추측하건데 ‘기비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영조 33년에 만들어진 지도에서 부산 만덕동을 기비현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사찰 이름과 지명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동래 부산 고지도 東萊釜山古 地圖	동래지역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면명(面名)은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동래읍성, 금정산성, 좌수영성을 세밀하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적기 주변을 붉게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조선시대 동래 지역을 표현한 그림지도이다. 동래읍성, 금정산성, 좌수영성을 세밀하면서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조선시대의 그림 지도로 부산 동래지역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동래에 있는 여러 성이 자세히 또 질게 표현된 특징이 있다.	
23	호패 號牌	국가가 실시한 호구성적(戶口成籍)에서의 누락 여부를 증명하는 증표로 16세 이상의 정남(丁男)에게 지급하였다. 호패에는 이름과 출생한 해의 간지(干支), 거주지, 문무과 급제 여부가 새겨졌으며, 호패가 없을 경우 호구성적에 빠진 자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았다. 호패의 재질은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속대전(續大典)』 규정에 따르면 2품 이상은 아패(牙牌), 3품 이하 잡과 입격자는 각패(角牌), 생원·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잡직·서인·서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천·사천의 경우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실시한 호구조사에 응하였음을 증명하는 증표로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지급하였다. 호패에는 이름과 출생한 해의 간지(干支), 거주지, 과거 급제 여부가 새겨졌으며, 호패가 없을 경우 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죄로 처벌을 받았다.	국가가 출생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표로 이것이 없으면 처벌을 받았다.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름과 출생한 해, 거주지 등이 새겨져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4	망기 望記	동래부가 동래향교(東萊鄉校)에서 교임(校任) 중 수임(首任)인 도유사(都宥司)로 천거한 세 명의 인물 가운데 천만순조희택(趙熙宅)을 택임하는 문서이다. 도유사의 선출은 지역이나 향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향교에서 삼망(三望)을 하여 수령에게 보고하면 수령이 이 중 한 사람을 택임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동래부가 동래향교(東萊鄉校)에서 일할 도유사(都宥司)(사무를 보는 대장)로 추천한 세 명의 인물 가운데 천만순조희택(趙熙宅)을 선택하는 문서이다. 도유사는 일반적으로는 향교에서 세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령(동래 관아의 우두머리)이 이 중 한 사람을 선택한다.	조선시대 부산을 뜻하는 말이 동래부이다. 동래부의 향교 우두머리인 도유사를 추천하는 세 명의 인물 가운데 한명을 선택한(선택+결정) 문서이다. 3명을 추천하면 그중 한명을 결정하며 이 문서는 그중 천만순을 선택한 문서이다.	
25	금정산성 진지도 金井山城鎮 地圖	1872년 「군현지도(郡縣地圖)」에 실린 금정산성진지도이다. 금정산정(金井山城)은 성 둘레가 60,908척이나 되는 대규모 산성으로 왜적 방어의 요새였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 『동래읍지(東萊邑誌)』에는 1703년(숙종 29) 경상감사 조태동(趙泰東, 1649~1712)이 석축으로 개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707년(숙종 33) 동래부사 한배하(韓配夏, 1650~1722)가 수축하였고, 1808년(순조 8) 부사 오한원(吳翰源, 1750~?)이 동문(東門)을 신축하고 성을 보수하였으며, 1824년(순조 24) 부사 이규현(李奎鉉, 1777~1844)이 성내에 건물을 짓고 진장(鎭將)을 배치하였다. 성내에 국청사, 정수사, 미륵사 등이 있어 산성 수축 및 방어에 승군(僧軍)이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종이를 만들던 지소(紙所)도 확인시켜 준다. 성곽에는 동서남북의 문과 12곳의 망대, 2곳의 수문이, 그리고 중성에는 2곳의 망대와 석문이 그려져 있다.	동래의 금정산성을 그린 지도이다. 금정산정(金井山城)은 규모가 큰 산성으로 왜적 방어의 요새(방어 시설)였다. 성안에 여러 절을 지어 승려들이 산성을 보수하고 방어하도록 하였다. 성곽에는 동서남북으로 난 문과 12곳의 망대(망을 보는 곳) 등이 있었다.	1872년 부산 동래의 금정산성을 그린 지도이다. 이 산성은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성안에 절을 여러 개 지어 승려들이 산성을 보수하고 왜적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성의 울타리에는 동서남북에 문이 있고 망을 보는 곳이 12곳이 있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6	류성룡 필 진시무차 초고 柳成龍筆陳 時務劄草稿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1593년(선조 26) 12월과 1594년(선조 27) 4월에 걸쳐 두 차례 올린 상소문의 초고이다. 내용은 국가의 위난을 맞아 민심 규합책, 강원도 산척(山尺)을 복병으로 활용한 일본군 공격책, 한양 수복과 호남의 곡식을 활용한 영남 백성의 구제책을 비롯하여 변방의 보고를 즉시 처리해 시사(時事)에 만전을 기하고 게릴라전을 적극 활용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 1593년(선조 26) 12월과 1594년(선조 27) 4월에 걸쳐 두 차례 올린 상소문(임금님께 올린 글)의 초고(교정을 보기 전 원고)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심 수습책, 복병을 활용한 일본군 공격 방법, 호남 곡식을 활용한 영남 백성 구제책을 비롯하여 변방(국경 지역)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처와 게릴라전의 적극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류성룡(柳成龍)은 호가 서애(西厓)이다. 1593년(선조 26년) 12월과 1594년(선조 27년) 4월에 임금님께 보내기 위해 쓴 정리되기 전의 글로써 일본군 공격 방법과 접경지역 상황 대처방법 등 국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27	부산진 순절도 釜山鎭殉節圖	1760년(영조 36)에 동래부 군관 변박(卞璞, 생몰년 미상)이 임진왜란 최초 전투인 부산진성 전투 장면을 그린 기록화이다. 화면의 오른쪽 중단에는 부산진의 성곽이 포치(布置)되어 있고 그 대각선상으로 성을 공략하기 위해 반달형으로 성을 에워싼 일본군들이 묘사되어 있다. 성곽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부산진첨사 정발(鄭撥, 1553~1592)을 중심으로 성을 사수하는 조선군이 그려져 있고 내아(內衙)에는 정발의 시녀 애향(愛香)이 그려져 있다. 또 그 맞은편으로 성을 공략하려는 일본군과 군선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어 당시 전력의 심한 격차를 잘 보여준다.	1760년(영조 36)에 동래부(조선시대 동래 관아) 화원(화가) 변박(卞璞)이 임진왜란 최초 전투인 부산진성(부산포에 있었던 수군 기지)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검은 갑옷을 입은 부산진 첨사(부산진의 우두머리) 정발(鄭撥, 1553~1592)이 군사들과 함께 성을 사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성을 공략하려는 일본군과 군선들이 빈틈없이 그려져 있다.	1760년 임진왜란 최초의 전투의 부산 군사 지역의 전투 상황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우두머리와 성을 지키려는 군사들이 있고 성을 공격하는 일본군과 군선(배)들이 빈틈없이 그려져 있어 전쟁의 격차(차이가 심한 것)를 보여주고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28	동래부 순절도 東萊府殉節圖	1592년 4월 15일 벌어진 동래성전투의 항전내용을 그린 기록화이다. 1709년(숙종 35)에 그린 그림이 낡고 훼손되어 1760년(영조 36)에 동래부 화사였던 변박(卞璞, 생몰년 미상)이 다시 그렸다. 이 그림은 백성들에게 임진왜란의 교훈을 심어줌으로써 충절을 일깨우고 다시 국난이 닥치더라도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아 국가에 충정하게 하고자 한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뒤 동래성으로 쳐들어온 일본군을 맞아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이 군사들과 성위에서 대치하는 상황과 함께 경상좌병사 이각(李珣, ?~1592)이 군졸들과 함께 도주하는 장면, 송상현의 순절 장면, 노개방 일행의 순절 장면, 김상 일행의 분투와 금섬의 죽음 등을 한 폭에 묘사하였다.	1592년 4월 15일 벌어진 동래성 전투를 그린 그림이다. 1709년(숙종 35)에 그린 그림이 낡고 훼손되어 1760년(영조 36)에 동래부 소속 화원(화가) 변박(卞璞)이 다시 그렸다.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뒤 동래성으로 쳐들어온 일본군을 맞아 동래부사(동래부의 대장) 송상현(宋象賢)이 군사들과 성 위에서 대치하는 상황, 송상현의 순절(나라를 위해 죽음) 장면, 노개방 일행의 순절(나라를 위해 죽음) 장면, 김상 일행의 분투와 금섬의 죽음 등이 이 그림 안에 모두 그려져 있다.	1592년 4월 15일 벌어진 부산 동래성 전투 상황을 1709년에 그린 그림이다. 그림이 오래되어 낡아 1760년에 동래부 소속 화원(화가)인 변박(사람이름)이 다시 그린 것이다. 부산진성(성이름)을 함락시킨 후 동래성으로 쳐들어온 일본군을 동래부의 대장이 성 위에서 대치하고 나라를 위해 죽은 장면 등의 그림이 모두 그려져 있다.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선조(조상)들의 정신을 본받아 국가에 충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29	찰갑편 札甲片	동래성 전투 당시 조선군 군사들의 갑옷에 부착되어 있었던 쇠로 만든 조각이다. 동래읍성 발굴조사 시 출토되었다.	동래성 전투 당시 조선군 군사들의 갑옷에 부착되어 있었던 쇠로 만든 조각이다. 동래읍성 발굴 조사 시 출토되었다.	동래읍성 조사 때 발견된 것으로 조선군이 전쟁 때 입던 갑옷에 붙어 있던 쇠 조각이다.	
30	장창 長槍	동래성 전투 당시 조선군 무기 중 하나였던 창이다. 동래읍성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선 전기의 유일한 창이다.	동래성 전투 당시 조선군 무기 중 하나였던 창이다. 동래읍성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선 전기의 유일한 창이다.	동래읍성 조사 때 발견된 것으로 조선군이 부산 동래성 전투에 사용하던 창이다. 이 창은 조선 전기의 유일한 창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1	선조 국문 교서 宣祖國文教書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맞서도록 독려하기 위해 선조가 내린 교서이다. 백성들이 읽기 쉽도록 한문이 아닌 우리말로 쓰여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맞서도록 독려하기 위해 선조가 내린 교서(문서)이다. 백성들이 읽기 쉽도록 한문이 아닌 한글로 쓰여 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선조가 내린 교서이다.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맞설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백성들이 읽기 쉽게 한문이 아닌 한글로 쓰여 있다.	
32	열녀 금섬 사당 편액 烈女金蟾祠堂扁額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의 첩 한글섬(韓金蟬)을 기리기 위한 사당의 편액이다. 한글섬은 본래 함흥의 기생으로 13세에 송상현을 따라 동래로 왔다가 임진왜란으로 동래성이 함락되고 부사 송상현이 순절할 때 곁에서 시중을 들다가 일본군에 잡혀 3일 간 항거하다 순절하였다.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의 첩 한글섬(韓金蟬)을 기리기 위한 사당(조선시대 제사를 드리는 집)의 편액(액자)이다. 한글섬은 본래 함흥 기생으로 13세에 송상현을 따라 동래로 왔다. 임진왜란으로 동래성이 함락되고 송상현이 순절(나라를 위해 죽음)할 때 곁에서 시중을 들다가 일본군에 잡혀 3일간 항거하다 순절(나라를 위해 죽음)하였다.	동래부사 송상현의 첩 한글섬을 기리기 위한 사당의 편액이다. 한글섬은 본래 함흥의 기생으로 13세에 송상현을 따라 동래로 왔다가 임진왜란으로 성이 함락되고 부사 송상현이 순절할 때 곁에서 시중을 들다가 일본군에 잡혀 3일 간 항거하다 순절하였다.	
33	징비록 懲毖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선조 25년(1592)부터 31년(1598)까지 7년에 걸친 임진왜란에 대하여 적은 책이다. 징비(懲毖)란 『시경(詩經)』 소비편(小毖篇)의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豫其懲而毖後患)”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첫 장에서 류성룡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비옥한 강토를 폐쇄하게 만든 참혹했던 전화를 회고하면서,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날 있었던 조정의 여러 실책들을 반성, 앞날을 대비하며 왜란을 겪은 후 후세에 길이 남길 쓰라린 반성의 기록으로 『징비록』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임진왜란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조정의 실책, 백성들의 조정에 대한 비판 등을 담고 있어 임진왜란의 전세를 살필 수 있는 최고의 자료로 평가된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선조 25년(1592)부터 31년(1598)까지 7년에 걸친 임진왜란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임진왜란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조정의 실책, 백성들의 조정에 대한 비판 등을 담고 있어 임진왜란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최고의 자료로 평가된다.	류성룡이 임진왜란에 대하여 적은 책이다. 임진왜란의 원인과 경과, 자신의 잘못과 조정의 실책, 백성들의 조정에 대한 비판 등을 담고 있어 임진왜란의 전세를 살필 수 있는 최고의 자료로 평가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4	포충속후록 褒忠續後錄	임진왜란에 공이 있는 동래 출신 24공신의 후손들에게 은전을 내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포충록(褒忠錄)과 포충속록(褒忠續錄)에 이어 만들어져 포충속후록(褒忠續後錄)이라 하였다.	임진왜란에 공이 있는 동래 출신 24공신의 후손들에게 은전(혜택)을 위해 만든 문서이다. 포충록(褒忠錄)과 포충속록(褒忠續錄)에 이어 만들어져 포충속후록(褒忠續後錄)이라 하였다.	임진왜란에 공이 있는 동래 출신 24공신의 후손들에게 은전을 내리기 위해 만든 문서이다. 포충록과 포충속록에 이어 만들어져 포충속후록이라 하였다.	
35	부상록 扶桑錄	조선 중기 문신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이 1617년(광해군 9)에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의 정사 오윤겸(吳允謙, 1559~1636)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기록한 사행일기이다. 1617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의 기록으로 일기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기에는 피로인(被擄人)들의 생활과 그들을 조선으로 데리고 오기까지의 사연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 중기 문신(학문이 뛰어나 뽑힌 신하??)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이 1617년(광해군 9)에 종사관(통신사(일본 사신)의 수행비서)으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기록한 일기이다. 1617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의 기록으로 일기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기에는 일본에 끌려간 포로들의 생활과 그들을 조선으로 데리고 오기까지의 사연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 중기 문신 이경직이 1617년에 5개월 간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작성한 일기와 부록이다. 일기에는 일본에 끌려간 포로들의 생활과 그들을 조선으로 데리고 오기까지의 사연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36	사로승구도 권 槎路勝區圖卷	1748년(영조 24) 홍계희(洪啓禧, 1703~1771)를 정사로 하는 제10차 통신사의 부산에서 에도까지의 여정을 총 30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것으로 수행화원이었던 이성린(李聖麟, 1718~1770)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기항지를 위주로 묘사하였으나 일본 명승명소와 사행 중 겪은 인상적인 사건을 그리기도 하였다.	1748년(영조 24) 홍계희(洪啓禧, 1703~1771)를 정사(대장)로 하는 제10차 통신사(일본 사신)의 부산에서 에도까지 여정을 총 30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것으로 수행 화원(화가)이었던 이성린(李聖麟, 1718~1770)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기항지(배가 닿는 항구)를 위주로 묘사하였으나 일본 명승명소(경치가 훌륭하고 이름난 곳)와 사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 중 겪은 인상적인 사건을 그리기도 하였다.	1748년 홍계희를 정사로 하는 제10차 통신사의 부산에서 에도까지의 여정을 총 30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것이다. 수행화원이었던 이성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기항지 중심으로 묘사하였으나 일본 명승명소와 이동 중 겪은 인상적인 사건을 그리기도 하였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37	통신사 서계 通信使書契	1748년(영조 24) 5월 3일 통신사 정사 홍계희(洪啓禧, 1703~1771), 부사 남태기(南泰耆, 1699~1763), 종사관 조명채(曹命采, 1700~1764)가 쓰시마주에 보낸 외교문서이다. 통신사는 오사카 옆 요도가와(淀川)까지 해로로 이동하며 이후로는 육로로 에도까지 향한다. 그런데 육로를 이용하기 위해 마련된 사람과 말이 국서를 운반하는데 마땅치 않자 국서 운송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1748년(영조 24) 5월 3일 통신사(일본 사신) 정사(대장) 홍계희(洪啓禧, 1703~1771), 부사(부대장) 남태기(南泰耆, 1699~1763), 종사관(통신사(일본 사신)의 수행비서) 조명채(曹命采, 1700~1764)가 쓰시마주에 보낸 외교 문서이다. 통신사(일본 사신)는 오사카 옆 요도가와(淀川)까지 해로로 이동하며 이후로는 육로로 에도까지 향한다. 그런데 육로를 이용하기 위해 마련된 사람과 말이 국서(왕이 보내는 외교 문서)를 운반하는 데 마땅치 않자 국서 운송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1748년 5월 3일 통신사 정사 홍계희, 부사 남태기, 종사관 조명채가 쓰시마주에 보낸 외교 문서이다. 통신사의 일본 육로 이용을 위해 준비된 사람과 말이 국서를 운반하는 데 마땅치 않자 국서 운송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38	통신사 병풍 通信使屏風	에도성 내에서 통신사 일행이 향응(響應) 받는 모습을 묘사한 6곡 1척의 소병풍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야마토에(大和繪) 수법으로 그린 작품으로 벽체와 천장을 제거하고 사선의 부감시점으로 묘사하였다. 일본 후쿠젠시(福禪寺) 소장 <강호성내응접도권(江戸城内應接圖卷)>에 이 병풍과 동일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같은 원본을 참고하여 만든 작품으로 추정된다.	에도성 내에서 통신사(일본 사신) 일행이 향응(響應)(극진하게 대접)받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으로 그렸다.	에도성 내에서 통신사 일행이 향응(극진하게 대접)을 받는 모습을 묘사한 소병풍(그림)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회화 기법으로 그린 작품이다.	
39	통신사 행렬도 通信使行列圖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일행이 행렬하는 모습을 그림 그림이다.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일본 사신) 일행이 행렬하는 모습을 그림 그림이다.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 일행이 행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0	사처석교비 四處石橋碑	<p>사처석교비는 동래부사 이문원(李文源, 1740~1794)의 기부금과 동래부 유지들의 모금을 바탕으로 동래부의 남문 밖에 있던 네 곳의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꾼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이다. 나무다리는 1~2년마다 다시 고쳐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민으로부터 비용을 거두었으므로 민의 고통이 심하였다. 이에 강위성이 지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돌다리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고 박도유, 박사인 등 4~5명이 지역을 돌며 모금하자 당시 동래부사 이문원이 자신의 녹봉을 기부하여 협조함으로써 돌다리가 완성되었다. 비석의 글씨는 부산진순절도(보물 제391호), 동래부순절도(보물 제392호)를 그린 조선 후기 대표적 화가인 변박(卞璞)이 썼다.</p>	<p>동래부사(동래부의 우두머리) 이문원(李文源, 1740~1794)과 동래부 유지(지도자)들이 돈을 모아 동래부의 남문 밖에 있던 네 곳의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꾼 것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이다. 비석의 글씨는 부산진순절도(보물 제391호), 동래부순절도(보물 제392호)를 그린 부산 출신 화가 변박(卞璞)이 쓴 것으로, 그는 통신사(일본 사신) 파견 시 수행 화원(그림을 그리는 하급 직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p>	<p>이 비석은 동래부의 남문 밖에 있던 네 곳의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꾼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나무다리는 1~2년 마다 고쳐 짓게 되어 백성의 고통이 심하였다. 이에 동래부사 이문원과 동래부 유지들이 돈을 모아 돌다리를 완성하였다. 비석의 글씨는 부산 출신 화가 변박(卞璞)이 썼다.</p>	
41	묵매도 墨梅圖	<p>화면 좌측 하단에 적힌 ‘세갑신맹하(歲甲申孟夏) 동화술재사(東華述齋寫)’라는 글씨로 미루어 변박(卞璞)이 1764년(영조 40) 여름 일본에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 화면 상단에는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시가 적혀 있다.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조선시대 내내 즐겨 그려졌던 매화를 소재로 한 문인 풍취가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다.</p>	<p>통신사(일본 사신) 파견 시 수행 화원(화가)으로 참여하기도 한 부산 출신 화가 변박이 그린 매화 그림이다. 절개와 지조(신념을 지키는 깨끗한 태도)의 상징으로 조선 시대 내내 즐겨 그려졌던 매화를 소재로 한 문인 풍취가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다</p>	<p>부산 출신 화가 변박(卞璞)의 매화 그림이다. 매화는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조선시대 내내 즐겨 그려졌다. 화면 상단에 조선의 대표 성리학자 김종직의 시가 적혀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2	마상재도권 馬上才圖卷	조선의 뛰어난 마기(馬技)는 오래 전부터 일본에 알려져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 1604~1651)의 요청에 의해 1636년(인조 14)부터 승마술에 능한 마상재(馬上才)가 통신사에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마상재는 1655년(효종 6)과 1811년(순조 11)을 제외하고 에도의 쇼군 앞에서 매회 펼쳐졌으며 에도에 도착하기 이전 쓰시마의 이즈하라(嚴原)에서 예행연습을 하였다. 이 그림은 마상립(馬上立), 쌍기마(雙騎馬), 마상도립(馬上倒立), 등리장신(鎧裏藏身) 등 마상재의 다양한 마기가 표현되어 있다.	통신사(일본 사신) 일행에 참여한 마상재(馬上才)가 말을 타고 펼치는 기묘한 기술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의 뛰어난 말물이 기술은 오래 전부터 일본에 알려졌다. 승마술에 능한 마상재(馬上才)는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 1604~1651)의 요청으로 1636년(인조 14)부터 통신사(일본 사신) 일행에 수행하게 되었다.	조선의 마기(마상재, 말 위에서 하는 기예)는 상당히 뛰어났다. 이에 일본의 요청으로 1636년부터 승마술에 뛰어난 마상재가 통신사에 참여했다. 이 유물은 통신사에 참여한 마상재가 펼치는 기묘한 기술을 그린 그림이다.	
43	석란도 石蘭圖	도화서(圖畫署) 화원이며 1763~64년 통신사 수행 화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바 있는 김유성(金有聲, 1725~?)의 작품이다. 화면 왼쪽에 바위가 있고 그 옆으로 난(蘭) 잎 6~7줄기가 위와 우측 상단으로 길게 뻗어 있다. 난 잎 사이로 꽃 두 세 송이가 피었고 그 꽃을 향해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다. 단순한 구도이지만 효과적으로 사용된 먹의 농담(濃淡) 및 유려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강건한 느낌의 필치로 인해 이 작품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한 풍광을 포착한 그림이다. 화면 좌측 하단에 ‘조선(朝鮮) 서암(西巖)’ 이라 쓰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통신사 수행 화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일본인들의 그림 요구에 수용해 제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 외에 일본 세이젠지(清見寺)에 소장된 <금강산도(金剛山圖)>, <낙산사도(洛山寺圖)>도 같은 이유로 제작되었다.	도화서(圖畫署)(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화원(화가)이며 1763~64년 통신사(일본 사신) 수행 화원(화가)으로 일본에 다녀온 바 있는 김유성(金有聲, 1725~?)의 작품이다. 그림 좌측 하단에 ‘조선(朝鮮) 서암(西巖)’ 이라 쓰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통신사(일본 사신) 수행 화원(화가)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일본인들의 그림 요구를 들어 제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김유성의 작품이다. 그는 도화서(그림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 화원으로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일본에 파견된 적이 있다. 그림 좌측 하단에 조선 서암이라 쓰여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그림은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일본인들의 요구로 제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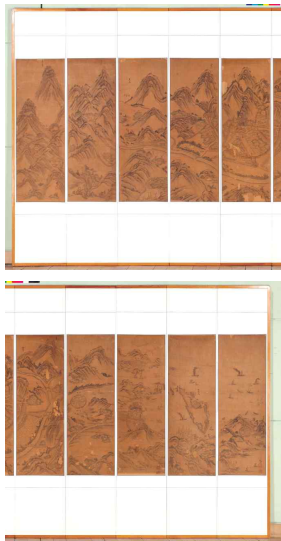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4	응도 鷹圖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구청물품(求請物品) 중 하나였던 매를 그린 그림으로 이의양(李義養, 1768~?)의 작품이다. 화면 우측 상단에는 ‘조선이신(朝鮮爾信)’이란 관지와 ‘이의양인(李義養印)’ 백문방인(白文方印)이 있어 1811년(순조 11)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쓰시마를 방문했을 때 남긴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의양은 산수화, 인물화, 영모화 등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도화서 화원으로 유존작 중 일본의 구청에 따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다수 있다.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구청 물품(求請物品)(필요는 있으나 그 나라에 없어 다른 나라에 요청하는 물품) 중 하나였던 매를 그린 그림으로 이의양(李義養, 1768~?)의 작품이다. 이의양은 1811년(순조 11) 통신사 수행 화원(화가)으로 쓰시마를 방문했는데, 이 그림은 이때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양은 산수화, 인물화 등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도화서(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화원(화가)으로 현재 남아 있는 작품 중에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다수 있다.	도화서 화원 이의양의 작품이다. 1811년 통신사 수행화원으로 쓰시마를 방문 했을 때 그린 것으로 일본인들의 구청물품 중 하나였던 매를 그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의양은 산수화, 인물화 등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고 현재 남아 있는 작품 중에는 일본의 요구로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다수 있다.	
45	왜관도 倭館圖	동래부 화원 변박(卞璞)이 1783년(정조 7)에 그린 초량왜관(草梁倭館) 그림이다. 초량왜관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었는데, 동관에는 관수옥(館守屋, 재판옥(裁判屋), 개시대청(開市大廳), 절(寺), 신사(神社) 등이, 그리고 서관에는 삼대청(三大廳)과 창고 등이 있었다. 출입구로는 수문(守門), 수문(水門), 북문(北門)이 있었으며, 조선은 왜관 출입을 통제하고 담장 밖에 경비를 위해 북병막을 설치하였다. 북쪽 문 밖으로는 연향대청이 있었으며 일본 사절이 오면 동래부사와 부산진첨사 등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또 일본 사절이 조선국왕에게 인사를 올리는 객사(客舍)와 역관들이 머무르던 성신당(誠信堂), 빈일헌(賓日軒), 유원관(柔遠館) 등이 있었다.	동래부 화원(화가) 변박(卞璞)이 1783년(정조 7)에 그린 초량 왜관(草梁倭館)(초량에 있던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 그림이다. 초량 왜관(초량에 있던 일본인들의 거주 공간)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었는데, 동관에는 관수옥(館守屋)(초량 왜관의 우두머리인 관수가 지내던 곳), 재판옥(裁判屋)(외교 교섭관), 개시대청(開市大廳)(무역이 이루어진 곳), 절(寺), 신사(神社)(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 등이, 그리고 서관에는 삼대청(三大廳)(외교 사절이 묵는 곳)과 창고 등이 있었다.	1783년 변박의 작품으로 초량에 있는 왜관(일본인들의 거주지)을 그렸다. 초량왜관은 용두산을 중심으로 동관과 서관으로 나뉘는데 동관에는 관수옥, 재판옥, 개시대청, 절, 신사 등이 서관에는 삼대청과 창고 등이 있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6	동래부사 접왜사도 한자 없음	<p>동래부사가 일본 사절단을 맞아 연향을 베푸는 과정을 시간의 배열에 맞춰 그린 그림이다. 제1폭에서 제7폭까지는 동래부사 행렬이 동래성을 나와 초량왜관까지 가는 모습이고, 제8폭은 초량객사(草梁客舍)에서 일본 사절단이 조선의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에 예를 올리는 모습이다. 그리고 제10폭은 동래부사가 배를 타고 온 일본 사절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연향대청(宴享大廳)에서 연회를 베푸는 모습이다. 동래부사는 일본 사절단이 동래에 들어오면 배를 내린 기념으로 하선연(下船宴)을 베풀었다. 이에 일본 사절단은 다례의(茶禮儀)를 열어 동래부사에게 서신을 봉정(奉呈)하였고, 동래부사는 일본 사절단이 일을 마치고 동래를 떠날 때에 상선연(上船宴)을 베풀어 주었다.</p>	<p>동래부사(동래부의 우두머리)가 일본 사절단(사신 일행)을 맞아 연향(잔치)을 베푸는 과정을 시간에 따라 그린 그림이다. 제1폭(첫 번째 그림)에서 제7폭(7번째 그림)까지는 동래부사(동래부의 우두머리) 행렬이 동래성을 나와 초량 왜관까지 가는 모습이고, 제8폭(8번째 그림)은 초량 객사(草梁客舍)(초량에 있었던 조선 임금에게 예를 올리던 곳)에서 일본 사절단(사신 일행)이 조선의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조선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에 예(예식)를 올리는 모습이다. 그리고 제10폭(10번째 그림)은 동래부사(동래부의 우두머리)가 배를 타고 온 일본 사절단(사신 일행)의 노고를 치하(위로)하기 위해 연향대청(宴享大廳)(잔치를 베풀었던 곳)에서 연회를 베푸는 모습이다.</p>	<p>동래부사가 일본사절단을 맞아 연향(잔치)을 베푸는 과정을 그린 그림이다. 제1폭에서 제7폭까지는 부사행렬이 동래성을 나와 초량왜관까지 가는 모습, 제8폭은 초량객사에서 일본 사절단이 조선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에 예를 올리는 모습이다.</p> <p>제10폭은 동래부사가 일본 사절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연회를 베푸는 모습이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7	약조제찰비 約條制札碑	<p>17세기 들어 왜관(倭館)을 통한 조선과 일본의 무역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 상인들은 중국산 견직물(絹織物)과 생사(生絲), 인삼을 수출하고 대신 일본으로부터 은(銀)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18세기에도 수출입 물품에 변화를 보이지만 왜관을 통해서 거래되는 무역량은 꾸준히 늘어갔다. 그 결과 왜관 근처의 상인들이나, 관리, 역관, 아전들 중에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밀무역(密貿易)으로 부를 거머쥔 자들도 있어서 조정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왜관을 관할하는 동래부사에게 밀무역을 단속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임무를 부여했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는 동래부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했다. 또 동래부사로 부임한 이후에도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경우 재임기간이 남더라도 교체되기 쉬웠다. 약조제찰비는 이처럼 왜관 설치 후 밀무역 등 여러 폐단이 자주 일어나자 1683년(숙종 9) 동래부사 남익훈(南益薰, 1640~1693)과 대마도주가 다섯 가지 금지조항을 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부산시지정 기념물 제17호)이다. 원래 한문과 일문으로 만들어져 조선 측 수문(守門)과 일본 측 경계에 세웠으나 현재는 한문으로 새겨진 조선 측 비만이 남아 있다.</p>	<p>왜관(일본에서 건너온 사람이 머물면서 외교나 무역을 하던 곳) 설치 후 밀무역(불법 무역) 등 여러 폐단이 자주 일어나자 1683년(숙종 9) 동래부사(동래부의 우두머리) 남익훈(南益薰, 1640~1693)과 대마도주(대마도의 우두머리)가 다섯 가지 금지 조항을 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부산시지정 기념물 제17호)이다. 원래 한문과 일문으로 만들어져 조선 측 수문(守門)(적의 공격을 막는 문)과 일본 측 경계에 세웠으나 현재는 한문으로 새겨진 조선 측 비만이 남아 있다.</p>	<p>왜관 설치 후 무역이 늘어나면서 밀무역 등의 폐단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 동래부사 남익훈과 (일본) 대마도주가 다섯 가지 금지조항을 정하고 이것을 적은 비석을 세웠다. 한문과 일문으로 만들어져 조선 측 수문과 일본 측 경계에 세웠으나, 현재는 한문으로 새겨진 조선 측 비만 남아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48	인화 국화 문양 물독단지 印花菊花文壺	일본인들이 거주하였던 왜관에는 도자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는데, 이 단지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인들이 거주하였던 왜관에는 도자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는데, 이 단지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왜관에는 도자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다. 이 단지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49	산수도 山水圖	변지한(卞持漢)은 동래 지역에서 일본인의 조선화(朝鮮畵) 수요에 적극 응했던 화가 중 한 명으로 추정될 뿐 자세한 이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화면 우측 하단에 ‘조선국(朝鮮國) 괴원사(槐園寫)’라고 적힌 작가의 낙관이 있고, 상단에는 두보(杜甫, 712~770)의 시 <구일, 남전 최씨장(九日, 藍田崔氏莊) 중 일부 시구가 제시로 적혀 있다. 우측 중앙에 그려진 폭포 및 중앙과 뒤쪽에 솟은 두 개의 봉우리는 이 그림이 위 시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도해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변지한(卞持漢)이 그린 산수화(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이다. 변지한은 동래 지역에서 일본인의 조선화(朝鮮畵) 수요에 적극 응했던 화가 중 한 명으로 추정될 뿐 자세한 이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변지한이 그린 산수화이다. 그는 일본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려준 화가로 추정된다. 화면에 작가의 낙관이 있고 두보의 시가 적혀 있다. 그림은 시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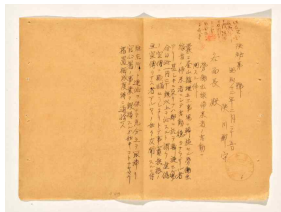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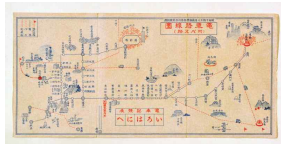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0	어부오수도 漁夫午睡圖	그림은 좌측에 ‘조선 삼락재가 그리다(朝鮮三樂齋寫)’ 라고 적혀 있다. 삼락재는 이 그림 작가의 호로 보이며 이름은 알 수 없다. 화면에 ‘조선’ 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그림은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된 어떤 인사가 일본인을 위해 그려 준 것이거나 동래 지역에서 활동한 어떤 익명의 화가가 왜관에서 일본인에게 팔 목적으로 그린 대일 교역용 그림일 것으로 추정된다. 강변에 높게 솟은 나무 아래 배를 정박하고 그 위에서 태평하게 잠을 청하는 뱃사공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되었다. 전경(前景)의 바위 표현에는 농묵과 거친 필선이 사용된 반면 배 위의 인물 표현에는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필선이 구사되어 있어 서로 대조를 이룬다. 특히 인물 표현에서는 동래부에서 활동한 화가 김달황(金達晃)의 화풍과 유사한 측면이 보여 삼락재란 호를 가진 인물 역시 동래부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좌측에 ‘조선 삼락재가 그리다(朝鮮三樂齋寫)’ 라고 적혀 있다. 삼락재는 이 그림 작가의 호(원래 이름 대신 친숙하게 쓰기 위해 지은 이름)로 보이며 이름은 알 수 없다. 화면에 ‘조선’ 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그림은 일본에 통신사(일본 사신) 로 파견된 어떤 인사(사람)가 일본인을 위해 그려 준 것이거나 동래 지역에서 활동한 어떤 익명의(이름 모름) 화가가 왜관(일본에서 건너온 사람이 머물면서 외교나 무역을 하던 곳)에서 일본인에게 팔 목적으로 그린 교역용(※수어에서는 ‘교역’ 이라는 말을 빼고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그림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좌측에 ‘조선 삼락재가 그리다’ 라고 적혀 있다. 이 작가의 이름은 알 수 없으며 삼락재는 호로 보인다. ‘조선’ 을 적은 것으로 보아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된 사람이 일본인에게 그려 준 것이거나 어떤 화가가 왜관에서 일본인에게 팔기 위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1	응도 鷹圖	<p>김달항(金達晃)은 19세기 동래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 대일 교역용 화가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왜관에서 거래된 대일 교역용 회화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그림 소재 중 하나는 매였다. 에도시대 일본 무사들 사이 인기 있었던 취미는 매 사육이었고 이것이 조선에서 매 그림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일 교역용 회화로 추정되는 매 그림은 대다수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매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그림 역시 매가 화면 우측에서 좌측 중앙으로 뻗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다. 화면 좌측을 날카롭게 응시하는 매는 그 형상 대부분이 윤곽선 없이 점과 선만으로 표현되었다. 단순하게 표현한 듯 보이지만 대상을 정확하게 포착한 화가의 솜씨에서 김달항의 기량을 엿볼 수 있다.</p>	<p>19세기 동래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 대일 교역용 화가였던 김달항(金達晃)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왜관(일본에서 건너온 사람이 머물면서 외교나 무역을 하던 곳)에서 거래된 대일 교역용 회화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그림 소재 중 하나는 매였다. 에도 시대 일본 무사(무예를 하는 사람)들 사이 인기 있었던 취미는 매 사육이었고 이것이 조선에서 매 그림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지만 매의 특징을 정확하게 잡은 화가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다.</p>	<p>19세기 동래 지역에서 활동한 김달항의 작품이다. (에도시대) 일본 무사들 사이에서 매 사육의 인기가 높았고 이것이 조선에서의 매 그림 구입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p> <p>단순하지만 매의 특징을 정확히 잡은 화가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다.</p>	
52	동래 부산 도병 東萊釜山圖屏	<p>1876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뺏겨진 조일 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는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시했다. 조선과 일본의 수호조규 이후 조선 최초의 근대적 개항장이 된 부산에는 많은 서양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항기 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부산은 차츰 도시로 변화되고, 도시 공간 곳곳에 이국적 요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유물은 1900년경 동래부(東萊府)와 부산부(釜山府)를 그린 지본담채(紙本淡彩) 10폭 병풍이다. 산수의 형상, 성곽 주변의 경치, 사원, 향만, 선박 등이 능숙하게 묘사되고, 당시 부산의 지명이 덧붙여져 있다. 그림에는 동래성의 모습과 일본전관 거류지인 일관(日館) 등 전근대와 근대가 만나고 교차하던 개항장 부산의 모습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p>	<p>1900년경 부산의 모습을 그린 작자 미상의(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다. 산수의 형상, 성곽 주변의 경치, 사원, 향만, 선박, 일본인 거류지, 근대 관청 등 개항기 부산의 변화되는 모습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p>	<p>1900년경 부산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이 시기 부산은 개항장으로 많은 서양인의 발길이 이어져 어촌마을에서 도시로 변화되었다.</p> <p>산수의 형상, 성곽 주변의 경치, 일본인 거류지, 관청 등 부산의 변화되는 모습이 표현되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3	해은일록 海隱日錄	<p>일본전관거류지가 설치되고 일본인들의 거주가 늘어나면서 개항장 부산에서는 근대적 자유무역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무관세의 이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일본 상품의 수입과 조선 상품의 일본 수출에 나섰으며, 조선 정부는 이러한 무분별한 수입과 수출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했다. 이에 1878년 조선 정부는 개항장 부산의 조선 상인들을 보호하고 통상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행정관청인 부산해관(釜山海關)을 두모포에 설립했다. 더불어 일본에 이어 1882년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과의 통상이 더욱 본격화되면서, 조선 정부는 개항장에 설치된 해관을 감독하고 외국인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넓은 의미의 지방 외교 관청’인 감리서(監理署)를 부산항에 설치하였다. 해은일록은 부산항 감리서 서기(書記), 방판(幫判)과 다대진 첨사(僉使)를 역임한 해은(海隱) 민건호(閔建鎬)의 일기이다. 총 29책의 일기에는 부산해관(釜山海關) 감리통상사무 시절의 해관 사무와 외국 관리들과의 관계, 다대진 첨사 재임 시절 업무, 고향인 해남으로 돌아가 있을 때 동학농민전쟁을 겪은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해은일록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개항장 부산에 대한 세밀한 기록으로 부산의 지역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p>	<p>해은일록은 1883년부터 1894년까지 부산항 감리서(監理署)(항구나 시장의 행정과 통상을 맡아보던 관아) 서기(서무를 관장하던 직원)로 근무하던 민건호(1843~1920)의 일기이다. 총 29책의 일기에는 개항기 부산의 변해 가는 풍경과 외국 관리들과의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다.</p>	<p>조선정부는 부산의 조선 상인들을 보호하고 통상업무를 관장하는 부산해관을 설립했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과의 조약이 체결되고 외국과의 통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 정부는 개항장에 설치된 부산해관을 관리하는 관청인 ‘감리서’를 설치하게 되었다.</p> <p>이 유물은 이 감리서에서 근무하던 관리 민건호의 일기이다. 이 일기에는 해관 사무, 외국관리들과의 관계, 등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 부산의 지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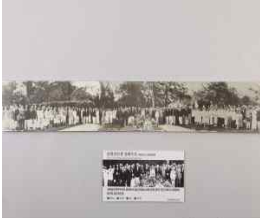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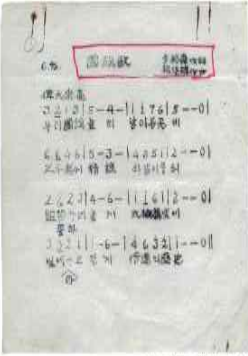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4	태극기 太極旗\	<p>일본전관거류지 설치 이후 각국 조계가 외국과의 조약 체결과 함께 속속 부산항에 설치되었다. 먼저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朝英修好通商條約)과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에 따라 영선현<현 영주동> 일대에 영국과 독일 조계가, 1884년 초량동 일대에는 청국 조계가, 1892년에는 러시아 조계가 설치되었다.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에서 외국인의 100리 이내의 통행 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각국 조계의 서양인들은 자유롭게 부산과 인근 지역을 유람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선교사들은 서구 문화와 문물을 소개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그들은 일반인들과 가까이 생활하면서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많은 역사적 흔적을 남겼으며, 당시 그들이 보고 느낀 부산의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 유물은 개항기 부산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리처드 사이드보텀(Richard Henry Sidebotham, 1874 ~ 1908, 한국명 사보담) 부부가 소장했던 태극기이다. 바탕은 백색이고 태극은 적청(적색과 청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청의 위치는 지금과는 반대로 청색이 위쪽에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괘(태극무늬 주변의 선??)의 배치와 색깔에 있어 통일된 형태로 제작되지 못했다.</p>	<p>개항기 부산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리처드 사이드보텀(Richard Henry Sidebotham, 1874 ~ 1908, 한국명 사보담) 부부가 소장했던 태극기이다. 바탕은 백색이고 태극은 적청(적색과 청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청의 위치는 지금과는 반대로 청색이 위쪽에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괘(태극무늬 주변의 선??)의 배치와 색깔에 있어 통일된 형태로 제작되지 못했다.</p>	<p>개항기 부산에서 활동했던 선교사 (한국명) 사보담 부부가 소장했던 태극기이다. 바탕은 백색이고 태극은 적색, 청색으로 지금과는 반대로 청색이 위쪽에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 태극기는 괘의 배치와 색깔이 통일되지 못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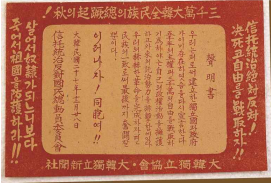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5	도항 증명서 渡航證明書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대륙 침략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철도 교통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인적·물적 자원을 운반하는 관부 연락선을 수송 수단으로 자리매김 시켰다. 부산과 일본의 최단 거리에 개설된 관부 연락선의 명칭은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에서 ‘관(關)’자를 조선의 ‘부산(釜山)’에서 ‘부(釜)’자를 가져와 사용하였다. 이 연락선에는 식민지 시대 농촌에서 토지를 잃고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 조선의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대륙 침략을 위해 동원되었던 일본 군인들과 조선인 징용·징병 인력들이 이 연락선에 실렸다. 1905년 1월 부산의 초량역과 서울의 영등포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었고, 그해 9월에는 부산항과 시모노세키 항을 잇는 관부(關釜) 연락선 이키마루(壹岐丸)가 취항하였다. 이 유물은 1940년 관부연락선의 승선이 필요함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류이다.	1905년 1월 부산의 초량역과 서울의 영등포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었고, 그해 9월에는 부산(釜山)항과 시모노세키(下關) 항을 잇는 관부(關釜) 연락선 이키마루(壹岐丸)가 취항하였다. 이 유물은 1940년 관부 연락선의 승선(배에 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었고 그해 9월 부산항과 시모노세키 항을 잇는 관부 연락선이 취항했다. 이 유물은 1940년 관부연락선의 승선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56	부산 열차 시간표 釜山列車時間表	부산의 한 여관에서 만든 근하신년 우편엽서에 실린 부산 열차 시간표이다. 열차의 부산 발착 시간과 함께 연락선 발착 시간도 기재되어 있다.	부산의 한 여관에서 만든 근하신년(새해를 축하하는) 우편엽서에 실린 부산 열차 시간표이다. 열차의 부산 발착(출발, 도착) 시간과 함께 연락선의 발착(출발, 도착) 시간도 기재되어 있다.	부산의 한 여관에서 만든 근하신년 우편엽서에 실린 열차 시간표이다. 열차의 부산 발착 시간과 연락선의 발착 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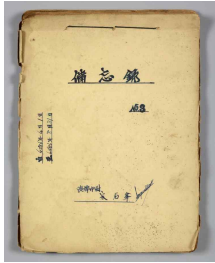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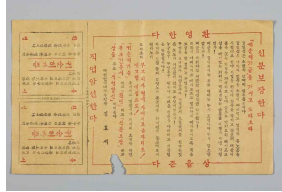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7	노동출가귀래 자 인동에 관한 건 勞動出家歸來者 言動에 關한 件	일제는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 확대 및 조선 침략과 수탈에 필요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바다를 메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1902년과 1907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항 매축(埋築)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이곳에는 부두 시설·부산역·세관 등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기반 시설이 조성되었다. 1909년~1912년에는 영선산 착평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부산진 매축 공사는 1913년과 192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이 공사는 시가지 확대 계획으로 진행되었고, 공장 지대도 조성되었다. 그리고 1920년~1940년대에 걸쳐 진행된 영도 대포포 매축 공사와 남빈 매축 공사는 연안 무역과 어업항 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 유물은 1937년 합천군수가 각 면장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부산항 메우기 공사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이 일급 1원 20전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는 것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통해 부산항 매립공사에 다른 군의 많은 노동자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합천군수가 각 면장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부산항 메우기 공사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이 일급 (일당) 1원 20전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는 것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서한을 통해 부산항 매립 공사에 다른 군에서도 많은 노동자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합천군수가 각 면장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부산항 메우기 공사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이 일급 1원 20전을 받았다고 소문을 내는 것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글을 통해 부산항 매립 공사에 다른 군의 많은 노동자가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58	전차 노선도 電車路線圖	1939년 부산관광협회에서 발행한 부산 지역 전차 노선도이다. 영도와 공설운동장에서 동래까지 이어지는 전차 노선 위에 각 정거장을 표시하고 온천장 등 주요 관광지와 시설물은 그림으로 그렸다. 버스 도로도 붉은 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유물은 1939년 부산관광협회에서 발행한 부산 지역 전차 노선도이다. 영도와 공설운동장에서 동래까지 이어지는 전차 노선 위에 각 정거장을 표시하고 온천장 등 주요 관광지와 시설물은 그림으로 그렸다. 버스 도로도 붉은 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1939년 부산관광협회에서 발행한 부산 전차 노선도이다. 영도와 공설운동장에서 동래까지 이어지는 전차 노선 위에 각 정거장을 표시하고 온천장 등 주요 관광지와 시설물은 그림으로 그렸다. 버스 도로도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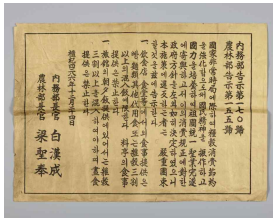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윤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59	공출보국 식기 供出報國食器	<p>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일제는 1938년 국민총동원법을 공포하고 총후(銃後, 후방)의 국민들에게 식곡 인 식과 전시 생활로의 전환을 강제했다. 비행기, 총기류 등 무기의 원료가 되는 금속에 대한 수탈이 각 마을과 학교 단위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제사(祭祀) 때 사용되던 유기가 집중적인 공출 대상이 되었다. 금속기가 모아서 군수 공장으로 출발하기 전, 각 학교에서는 강당에 금속기를 진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에게 참배를 하게 하는 헌납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의 군수물자 공급을 위해 각 가정의 놋그릇을 공출해 가고 대신 이 사기그릇을 지급했다.</p>	<p>일제는 태평양 전쟁의 군수 물자(전쟁에 필요한 물자) 공급을 위해 각 가정의 놋그릇을 공출해 가고 대신 이 사기그릇을 지급했다. 이 사기그릇에는 ‘공출보국(供出報國):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고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 는 뜻)’ 이란 글과 전투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p>	<p>일제는 태평양 전쟁의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각 가정의 놋그릇을 공출하고 대신 이 사기그릇을 지급했다. 이 그릇에는 ‘공출보국’, 즉(뜻) 일제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고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글과 전투기 그림이 그려져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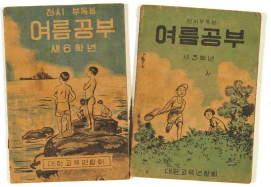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0	가출옥자 증표 假出獄者證票	<p>부산에서의 3·1 운동은 학생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다양한 지역민들이 합류하는 대대적인 만세 운동으로 확대됐다.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중심이 되어 부산지역 최초의 만세 운동을 전개했으며, 3월 13일 동래고보<현 동래고등학교> 의거, 3월 18일 동래 범어사 학생 의거, 3월 29일 구포 장터 의거, 4월 5일 기장 의거, 4월 8일 기장 좌천 의거 등 부산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초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만세 운동은 노동자·농민들이 가세하면서 훨씬 적극성을 띠었으며, 이후에도 청년들의 열차 파손, 전차 운전수의 파업, 만철관리국 철도공장 초량분공장 조선인 노동자 파업 등으로 이어져 갔다. 이 유물은 1919년 3월 11일 부산진여학교 만세 운동의 주동자인 김응수의 가출옥 증표이다. 죄명은 보안법위반, 징역 5개월이 구형되었다. 형기(刑期)는 1919년 4월 28일에서 9월 27일까지이고 가출옥 기간은 1919년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다. 증표는 1919년 8월 17일에 발급되었다.</p>	<p>부산에서의 3·1 운동은 학생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다양한 지역민들이 합류하는 대대적인 만세 운동으로 확대됐다. 이 증표는 1919년 3월 11일 부산진여학교 만세 운동의 주동자인 김응수의 가출옥(가석방) 증표이다. 죄명은 보안법(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법) 위반, 징역 5개월이 구형되었다. 형기(刑期)(징역의 기간)는 1919년 4월 28일에서 9월 27일까지이고 가출옥(가석방) 기간은 1919년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다. 증표는 1919년 8월 17일에 발급되었다.</p>	<p>부산에서의 3.1운동은 학생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지역민들이 합류하는 대대적인 만세 운동으로 확대됐다. 이 증표는 1919년 3월 11일 부산진여학교 만세 운동 주동자인 김응수의 가출옥(가석방) 증표이다. 죄명, 형기, 가출옥기간, 발급일이 표시되어 있다.</p>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1	윤현진 선생 장례 사진 尹顯振先生 葬禮寫眞	윤현진(1892~1921년)은 양산군 소토리 출신으로 동래부윤을 지낸 윤필은의 아들이며, 구포은행을 설립한 윤상은의 조카이다. 구포 구명학교에 입학해 신학문을 배웠다. 의춘양행(宜春洋行)을 설립해 일본 상품을 배척하는 소비조합운동을 벌였고, 백산상회, 구포은행 등에서 활동하면서 민족기업 육성에 기여했다. 3·1운동 후 상해로 건너가 임시 정부 재무 차관을 맡아 독립 자금 확보에 주력했으며, 1921년 순국했다. 이 유물은 상해임시정부 재무부차장 윤현진의 임시정부 국장(國葬)을 상해 외국인 묘지 정안사에서 치렀을 때 참가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기념사진이다.	윤현진은 양산군 소토리 출신으로 일본 상품을 배척하는 소비조합 운동을 벌였고 민족 기업 육성에 기여했다. 3·1운동 후 상해로 건너가 임시 정부 재무 차관을 맡아 독립 자금 확보에 주력했으며, 1921년 순국했다. 이 유물은 상해 임시 정부 재무부 차장 윤현진의 임시 정부 국장(國葬)을 상해 외국인 묘지 정안사에서 치렀을 때 참가한 임시 정부 요인들의 기념사진이다.	윤현진은 양산군 출신으로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소비 조합운동을 벌였고 민족 기업 육성에 기여했다. 3.1운동 후 상해 임시정부 재무차관을 맡아 독립자금 확보에 주력하다 1921년 순국했다. 이 유물은 윤현진의 임시정부 국장을 치를 때 참가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사진이다.	
62	광복군가집 光復軍歌集	광복군가집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본 군가집이다. 이 군가집에는 부산의 독립운동가 한형석 선생이 작곡한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이 실려 있으며,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에서 1943년 발간하였다. 한형석 선생은 동래 명륜동 출신으로 어려서 독립운동가인 아버지 한홍교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다. 1929년 상하이 신화예술대학 예술교육과에 진학하여 작곡을 시작했다. 1940년 충칭(重慶)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으며, 광복군 예술조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때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을 선보였으며, 공연대가 지나간 지역에는 아리랑 노래가 유행할 정도로 그 반응이 대단했다. 그리고 광복군 제2지대에서 활동하며 독립군 군가 「압록강 행진곡」, 「조국 행진가」 등을 작곡했다. 1948년 고향으로 돌아 왔으며, 6·25 전쟁 시기 부민동에 자유아동극장을 설립하여 예술 교육의 터전을 닦는데 앞장섰다.	광복군가집은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본 군가집이다. 이 군가집은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에서 1943년 발간하였으며, 부산 동래 명륜동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한형석 선생이 작곡한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이 실려 있다.	이 유물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본 군가집이다. 1943년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에서 발간하였고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한형석 선생이 작곡한 <광복군가>, <압록강행진곡>이 실려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3	월탐 시계 광고지 Waltham 時計廣告紙	1876년 부산항 개항과 함께 서양인들의 거류지가 형성되면서, 서양의 문화 또한 이식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의 모습을 살피고 신기한 물건들을 기이하게 여기며 놀라워했다. 하지만 자동차와 전차 같은 문명의 이기를 서양에서 온 괴물로 여겨 사람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신식 문물을 앞세운 근대화의 바람은 사람들의 일상으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이 유물은 개화기 시계 광고지로, 한국인들에게 기차 시간을 맞추기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시계가 바로 Waltham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1876년 부산항 개항과 함께 서양인들의 거류지(거주하는 곳)가 형성되면서 신식 문물을 앞세운 근대화의 바람은 사람들의 일상으로 빠르게 스며들었다. 개화에 눈뜬 한국인들에게 기차 시간에 맞추기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시계가 바로 월탐(Waltham)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1876년 부산항 개항으로 서양인들의 거류지(거주지)가 형성되면서 신식문물이 빠르게 들어왔다. 이 유물은 이 시기(개화기)에 나온 광고지로 기차 시간을 맞추기 가장 정확하고 믿을 만한 시계가 ‘월탐’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64	신탁 통치 반대 전단 信託統治 反對傳單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의 감격을 맞았다. 독립을 위해 36년간 치열하게 투쟁했던 우리 민족은 즉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는 38 도선을 경계로 분리되어 3년에 걸친 미국과 소련의 군정 통치를 받았다. 광복 이후 국내외 정치 세력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최고 5년간 신탁 통치(국제연합에서 위임받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를 결정하자 정국은 급속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좌익은 신탁통치의 결정을 지지한 반면, 우익은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립이 심각해졌다.	광복 이후 국내외 정치 세력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모스크바 3국 외상(외무장관) 회의에서 최고 5년간 신탁 통치(국제연합에서 위임받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를 결정하자 정국은 급속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좌익은 신탁통치의 결정을 지지한 반면, 우익은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대립이 심각해졌다.	광복 이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최대 5년의 신탁통치를 결정하자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좌익은 신탁통치 결정을 지지한 반면 우익은 격렬한 반탁운동을 전개했다. 이 신탁통치 반대 전단으로 그 당시의 사회 혼란상을 알 수 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5	타임지 Time誌	1948년 분단국가 수립 이후 남·북한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격적으로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였다. 국내전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미군과 유엔군이 개입하고 이후 중공군이 가세함으로써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6·25 전쟁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결한 최초의 전쟁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첫 언론보도는 UN 21개국 참전과 함께 도착한 각국의 취재진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취재 경쟁을 했다. 이들은 전쟁의 발발에서 휴전일의 상황까지 그 경과와 참혹함을 본국으로 긴급하게 타전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첫 언론보도는 유엔 21개국 참전과 함께 도착한 각국의 취재진들을 통해서였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취재 경쟁을 했고 전쟁의 발발에서 휴전일의 상황까지 그 경과와 참혹함을 본국으로 긴급하게 타전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의 첫 언론보도는 유엔 21개국 참전과 함께 도착한 각국의 취재진을 통해서였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취재를 했고 전쟁 발발부터 휴전일까지 경과, 전쟁의 참혹함을 본국으로 전했다.	
66	비망록 備忘錄	한국전쟁이 정전되던 해인 1953년 4월 1일에서 1953년 8월 31일까지 육군 중위 송석봉의 한국전쟁 비망록이다. 부대를 따라 강원도 묵호, 경주, 부산, 대구 등을 이동하면서, 전쟁과 자신의 기록을 남겼다.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 4월 1일에서 1953년 8월 31일까지 육군 중위 송석봉의 부대를 따라 강원도 묵호, 경주, 부산, 대구 등을 이동하면서, 전쟁과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한국전쟁 비망록이다. 작성자는 육군 중위 송석봉, 기간은 1953년 4월 1일에서 1953년 8월 31일까지이다. 강원도 묵호, 경주, 부산, 대구 등을 이동하면서, 전쟁과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67	귀순증 歸順證	빼라의 내용은 대부분 적의 사기 저하나 귀순 유도, 전의 상실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의식주 등에 대한 원초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고향에 남겨진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빼라의 내용은 대부분 적의 사기 저하나 귀순 유도, 전의 상실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의식주 등에 대한 원초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고향에 남겨진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한국전쟁 때 글이 담긴 종이쪽) 빼라 목적은 대부분 적의 사기 저하나 귀순 유도, 전의 상실이었다. 때문에 그 내용은 의식주 등에 대한 원초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고향에 남겨진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68	정부고시 政府告示	식량절약을 위한 정부 고시문으로, 정부는 계속되는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 및 여관에서 의무적으로 30%의 잡곡을 섞을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식량난의 단면을 보 수 있다.	식량 절약을 위한 정부 고시문으로, 정부는 계속되는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 및 여관에서 의무적으로 30%의 잡곡을 섞을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식량난의 단면을 보 수 있다.	정부 고시문으로, 그 내용은 식량 절약 지시이다. 계속되는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 및 여관에서 의무적으로 30%의 잡곡을 섞을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식량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69	케이피엑스 배급통장 KAPX 配給通帳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의 참화를 피해 남쪽으로 피란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그 종착지는 대부분 부산이었다. 1951년 1·4 후퇴로 최대를 이룬 부산의 피란민 숫자는 60만 명을 헤아렸다. 전란 시절 모든 것들을 끌어안은 부산의 도시 공간 위로 부산 사람들과 수많은 피란민들의 삶은 만나고 섞이며 펼쳐졌다. 전쟁의 혼란 속이었으므로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 인플레이션은 심각했다. 정부는 부족한 물자의 효율적 사용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 및 중요 생필품을 통제,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일반민들은 배급통장을 가지고 필요물자를 배급받았다. 이 KAPX 배급통장은 군인 및 군무원들이 배급을 받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전쟁의 혼란 속이었으므로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심각했다. 정부는 부족한 물자의 효율적 사용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 및 중요 생필품을 통제,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일반민들은 배급통장을 가지고 필요 물자를 배급받았다. 케이에이피엑스(KAPX) 배급통장은 군인 및 군무원(군대에 근무하는 사람)용 배급통장이다.	군인 및 군무원(군대에 근무하는 사람)용 식량 및 중요 생필품 배급통장이다. 전쟁의 혼란 속에 부산의 피란민 숫자는 60만 명을 헤아렸다.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심각했다. 그래서 정부는 부족한 물자의 효율적 사용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 및 중요 생필품을 통제,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군인 및 군무원 아닌 일반민들도 다른 배급통장을 가지고 필요 물자를 배급받았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0	1950년대 교과서 教科書	전쟁의 발발로 물자가 부족해져 교과서를 발행할 형편이 못되자 운크라(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책자를 인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식 교과서가 아닌 신문이나 잡지 등 대중 매체를 보면서 한글을 익혀야 했다. 하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1953년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부산에는 4만 9천여 명을 수용하는 75개교의 피란 학교가 만들어졌다. 부산 지역 대부분의 학교 건물들이 병원이나 군에 징발되면서, 피란 학교 대부분은 숲속 산간, 하천, 광장 등에 세워졌다.	전쟁의 발발로 물자가 부족해져 교과서를 발행할 형편이 못되자 운크라(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책자를 인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식 교과서가 아닌 신문이나 잡지 등 대중 매체(※영상은 아님. 수어 설명에서는 생략)를 보면서 한글을 익혀야 했다. 하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1953년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부산에는 4만9천여 명을 수용하는 75개교의 피란 학교가 만들어졌다. 부산 지역 대부분의 학교 건물들이 병원이나 군에 징발(국가에서 필요한 용도로 쓰임)되면서, 피란 학교 대부분은 산간, 하천, 광장 등에 세워졌다.	이 교과서는 전쟁의 발발로 물자가 부족해져 교과서를 발행할 형편이 못되자 운크라(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의 도움으로 인쇄하였다. 교과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식 교과서가 아닌 신문이나 잡지 등을 보면서 한글을 익혀야 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1953년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부산에 세워진 피란 학교는 모두 75개교로, 학생 4만9천여 명을 수용했다. 부산 지역 대부분의 학교 건물들이 병원이나 군에 징발(국가에서 필요한 용도로 쓰임)되면서, 피란 학교 대부분은 산간, 하천, 광장 등에 세워졌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1	왕자표 고무신 달력 月曆	1960년대 부산의 고무 산업은 전국의 9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특화된 산업이었다.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등의 신소재가 공급되어 제품의 다양화와 동시에 품질 향상이 이루어졌다. 신발 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것도 이 때이다. 부산의 신발 산업은 가장 빨리 수출산업으로 성장하여 1968년에는 부산시 수출액의 10.5%를 차지하였으며, 1985년에는 29.4%, 1992년에는 37%까지도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부산의 대표적 생산 제품은 신발이었다. 삼화고무(범표 신발), 태화고무(말표 신발), 동양고무(기차표 신발), 국제고무(왕자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신발 기업들은 모두 부산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 달력은 1961년 왕자표 고무신을 생산하던 국제화학주식회사에서 제작했다.	일제 강점기 고무 공업이 시작되면서 전통 신을 본뜬 고무신이 생산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고무신은 전성기를 이루다가 1960년대부터 운동화와 구두가 생산되면서 수요가 축소되었다. 이 달력은 1961년 왕자표 고무신을 생산하던 국제화학주식회사에서 제작했다.	이 달력은 1961년 왕자표 고무신을 생산하던 국제화학주식회사에서 제작했다. 일제 강점기 고무 공업이 시작되면서 전통 신을 본뜬 고무신이 생산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고무신은 전성기를 이루다가 1960년대부터 운동화와 구두가 생산되면서 수요가 축소되었다.	
72	반상회 표시등 班常會 表示燈	부산시 아래에 구(區)가 편성된 때는 1957년이다. 1956년 12월 17일 ‘부산시 구제(區制) 실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1957년 1월부터 구제가 실시되었다.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북구, 남구, 해운대구 등 새로운 구가 설치되고, 행정구역이 재편되기도 하였다. 직할시 기간 동안 구청의 개청, 동사무소의 개소 등은 부산행정의 발전과 시민 속으로 시정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다. 이 유물은 반상회의 개최와 장소를 알리는 표시등이다. 반원들이 반상회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상회가 열리는 집의 대문에 걸어두었다.	반상회의 개최와 장소를 알리는 표시등이다. 반원들이 반상회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상회가 열리는 집의 대문에 걸어두었다.	반상회의 개최와 장소를 알리는 표시등이다. 반상회가 열리는 집의 대문에 걸어두었다. 이유는 반원들이 반상회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3	전차와 지하철 개통 地下鐵 開通	일제 강점기부터 부산의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은 노면 전차였다. 그런데 전차가 부산의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많아 1968년도에 철거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버스, 택시 등이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부산시는 1981년 노포동역에서 신평역까지 32.5km의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노포동과 서면을 먼저 개통시키고, 이후 1994년 6월 23일에는 전 구간을 개통하였다.	일제 강점기부터 부산의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은 노면 전차였다. 그런데 전차가 부산의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많아 1968년도에 철거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버스, 택시 등이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부산시는 1981년 노포동역에서 신평역까지 32.5km의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노포동과 서면을 먼저 개통시키고, 이후 1994년 6월 23일에는 전 구간을 개통하였다.	부산시는 1981년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노포동과 서면을 먼저 개통시키고, 1994년 6월 23일 노포동역에서 신평역까지 32.5km의 전 구간을 개통하였다. 지하철 건설 전 일제 강점기부터 부산의 주요한 대중교통 수단은 노면 전차였다. 그런데 전차가 부산의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많아 1968년도에 철거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버스, 택시 등이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74	여객 정기항로 旅客 定期航路	1960년대 수출 주도 경제 정책이 펼쳐지면서 부산항은 본격적인 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부산항의 개발과 부두의 증설도 불가피하였다. 부산항의 개발은 컨테이너 부두로의 개편 사업에 집중되었다. 1974년부터 1983년까지 부산항 1·2단계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자성대 컨테이너 부두를 비롯한 4개 전용부두와 국제 여객부두가 축조되었다. 그 결과 부산항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중 95%를 차지하는 국제항으로 발전하였다. 이 리플릿에는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취항 선박의 출항 시각과 여객 운임 등이 안내되어 있다.	직할시(광역시 이전의 행정구역 명칭) 기간 동안 부산의 해양 산업이 궤도에 올랐으며 연안과 국제 항로, 여객 터미널들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 안내 소책자에는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취항 선박의 출항 시각과 여객 운임 등이 안내되어 있다.	이 선박 안내 소책자에는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취항 선박의 출항 시각과 여객 운임 등이 안내되어 있다. 직할시(광역시 이전의 행정구역 명칭) 기간 동안 부산의 해양 산업이 궤도에 올랐으며 연안과 국제 항로, 여객 터미널들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연번	유물명	박물관 원문	한국어 운문	한국수어 해설문	사진
75	양서협동조합 포스터 良書協同組合 傳單	<p>1978년 4월 11일 보수동 책방 골목에 1,000원의 출자금을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어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양서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 설립과 함께 부산의 진보적인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여 들었다. 이들은 어학연구, 지역 사회 개발, 학술 연구 등의 소모임을 만들고 강연회를 통해 조합원을 확대해 나갔다. 1979년 9월 양서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01명, 출자금은 500만원을 넘겨 경영 흑자를 남기기도 했다. 좋은 책 보급을 매개로 한 이러한 협동조합 운동은 학문마저 이데올로기의 잣대로만 재단되던 군사독재 시절에 지식인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단비와도 같았다. 하지만 조합의 활동성고가 커질수록 정부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고, 판매가 금지되는 책들이 늘어갔다. 1979년 11월에는 부마 민주 항쟁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조합원 300명이 연행되고, 조합은 강제 해산 당했다. 이후 1981년 공안 당국의 조작극 ‘부림사건’으로 다시 양서협동조합원 수십 명이 구속되며 탄압은 계속됐다. 이 시기 양서협동조합 운동은 대학가는 물론 부산 지역의 여론 형성을 주도해가는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다.</p>	<p>1978년 4월 11일 보수동 책방 골목에 1,000원의 출자금(조합 설립 자금)을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어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양서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조합 설립과 함께 부산의 진보적인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여 들었다. 1979년 9월 양서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01명, 출자금은 500만원을 넘겨 경영 흑자를 남기기도 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지식인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했지만 조합의 활동성고가 커질수록 정부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고, 판매가 금지되는 책들이 늘어갔다. 1979년 11월에는 부마(부산 마산) 민주 항쟁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조합원 300명이 연행되고, 조합은 강제 해산 당했다.</p>	<p>1978년 4월 11일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에 설립된 양서협동조합 포스터이다. 1,000원의 출자금(조합 설립 자금)을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어 책을 빌려 볼 수 있었다. 조합 설립 후 부산의 진보적인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여 들었다. 1979년 9월 양서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01명, 출자금은 500만원을 넘겨 경영 흑자를 남기기도 했다. 조합은 군사 독재 시절에 지식인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조합의 활동성고가 커질수록 정부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고, 판매가 금지되는 책들이 늘어갔다. 결국 1979년 11월에 부마(부산 마산) 민주 항쟁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조합원 300명이 연행되고, 조합은 강제 해산 당했다.</p>	

책임 연구원 이상용

공동 연구원 허인영, 이윤희, 원태연, 유경미, 손경애

보조 연구원 이승수, 김유진

담당 연구원 유은숙(주무관)

발행인: 송철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69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17년 12월 15일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인 쇄: 하늘인쇄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문화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영상 자료 구축’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